

# 탈진실 시대 종교와 가짜뉴스

## 자료집

일시 2022년 11월 10일(목) 오후 2시

장소 낙원상가 청어람홀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2022 기사연 대중포럼

탈진실  
시대

×

종교와  
가짜뉴스

2022.11.10(목)  
오후 2시-5시  
낙원상가 청어람홀

YouTube

기사연 TV



실시간 온라인 중계

---

### 기조강연. “탈진실시대와 한국사회갈등”

강연: 이준웅 교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논찬: 권혁률 (전 NCKK 언론위원장)

---

---

### 세션 1. “기독교 가짜뉴스의 동향과 분석”

발제: 변상욱 대기자 (전 YTN 앵커)  
토론: 이용필 기자 (뉴스앤조이),  
유지윤 박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

---

### 세션 2. “탈진실, 정체성 갈등과 보수 기독교”

발제: 허지영 박사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토론: 배덕만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정주진 박사 (평화갈등연구소)

---

주최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Kore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후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 순 서

시 간	순 서	비 고
14:00-14:10	인사: 김영주 원장	
14:10-14:40	<p>기조 강연: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한국 언론의 도그마”</p> <p style="text-align: center;">이준웅 교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p> <p style="text-align: center;">논찬: 권혁률 교수(전 NCKK 언론위원장)</p>	
14:40-14:50	쉬는 시간	
14:50-15:30	<p>세션 1: “한국 사회 정세 변화와 기독교 가짜뉴스 동향”</p> <p style="text-align: center;">발제: 변상욱 대기자 (전 YTN 앵커)</p>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 이용필 기자 (뉴스앤조이), 유지윤 박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p>	
15:30-15:40	쉬는 시간	
15:40-16:20	<p>세션 2: “탈진실 시대, 정체성 갈등과 보수 기독교: 기독교 청년 보수의 정치적 행동주의 연구”</p> <p style="text-align: center;">발제: 허지영 박사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p> <p style="text-align: center;">토론: 배덕만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정주진 박사 (평화갈등연구소)</p>	
16:20-16:30	쉬는 시간	
16:30-17:00	전체 토론 / 마무리	

## 목 차

---

□ 기조 강연: 이준웅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한국 언론의 도그마” .....	1
□ 논찬: 권혁률 (전 NCKK 언론위원장)	
“‘한국언론의 도그마: 사실 충분성의 원칙’에 대한 논찬” .....	28

---

□ 세션 1: 변상욱 (전 YTN 앵커)	
“한국 사회 정세 변화와 기독교 가짜뉴스 동향” .....	35
□ 논찬 1: 이용필 (뉴스앤조이) .....	65
□ 논찬 2: 유지윤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	67

---

□ 세션 2: 허지영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탈진실 시대, 정체성 갈등과 보수 기독교” .....	70
□ 논찬 1: 배덕만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	94
□ 논찬 2: 정주진 (평화갈등연구소) .....	98

---

□ [전체 토론 및 마무리]	
-----------------	--

## 포스트 트루스 시대와 한국 언론의 도그마<sup>1)</sup>

이준웅 교수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 사실 충분성의 원칙

이른바 ‘최순실 정국’을 주도하면서 제6공화국 최대 사건인 촛불행동을 촉발했던 한국 언론은 ‘조국 사태’에 거치며 다시 묵은 분노와 실망을 일으킨다. 적어도 뉴스 이용자가 보기에는 그렇다. 가용한 모든 자료를 종합해 보면, 지난 20년 간 한국 공중은 주류 언론을 존중하지도 신뢰하지도 않게 됐다.<sup>2)</sup> 공중은 아직도 뉴스를 본다. 그러나 그들은 언론에 의지하지 않으며, 별도의 정보나 해석을 거치지 않고서는 언론보도를 믿지 않는다. 주류 언론의 뉴스는 개별 이용자가 각자 정보환경을 구성하는 데 참조하는 자료 중 하나일 뿐이다.

---

1) 2022. 11. 1. 수정 원고. 이 글의 초고를 2019년 10월 25일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홀에서 개최한 한국언론정보학회 세미나 <언론개혁: 취재보도 관행과 저널리즘 원칙의 성찰>에서 ‘한국 언론의 도그마’란 제목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시 토론에 참여해 주신 김양순, 박건식, 성한용, 송태엽, 이광수, 이정환, 채영길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수정한 원고를 2022년 9월 16일 언론과사회 세미나 <변화하는 민주주의와 한국 언론>에서 발표했습니다. 토론해 주신 송현주, 안수찬, 조항제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2) 로이터언론연구소가 발간하는 <디지털뉴스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언론은 조사에 참여한 국가들 가운데 신뢰도 평가에서 최하위권을 놓친 적이 없다. 관련한 국내 연구결과도 일관되게 언론불신을 지적한다. 일찍이 2001년 강명구, 양승목, 엄기열은 <한국 언론의 신뢰도>에서 언론에 대한 불신의 원인으로 자사 이기주의, 사주의 편집자율성 침해, 언론인의 자질부족, 오만한 자세 등을 제시했다. 18년이 지난 뒤 김위근, 안수찬, 백영민은 <한국의 언론신뢰도: 진단과 처방>은 시민들이 언론인의 자질, 능력, 소명의식 등을 낮게 평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근본적으로 뉴스 이용자가 원하는 기사와 기자들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기사에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결과를 언론불신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했다.

언론 쪽을 보더라도 자기 환멸과 연민이 대단하다. 각자 열심히, 때로는 과도하게, 취재와 보도에 매진하건만, 우리 기자들은 스스로 잘 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sup>3)</sup> 기자 개인이 갑자기 무능하거나 파렴치해진 것도 아니고, 편집국과 경영진에 어떤 파멸의 음모를 꾸미는 악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집단의 효능감은 떨어지고, 편집국은 방향감각을 놓치며, 언론사 경영진은 항상 예전만 못하다고 자책한다. 언론은 스스로 격려하고 존중하던 자존의 감각마저 잃은 듯 보인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 언론에 대한 불신과 언론의 자기 환멸이 엄연한 가운데, 문제의 범위를 설정하는 데 주의해야 한다. 일단 ‘최순실 정국’과 ‘조국 사태’ 사이에 한국 언론에 무슨 외부적 충격이 가해져서 뉴스가 변했다고 볼 수 없다. ‘세월호 참사’나 ‘박연차 게이트’ 보도부터 따져도 마찬가지다. 같은 언론이고, 같은 기자 집단이고, 같은 취재보도 체제가 겪고 보여주는 일들이다.

주류 언론을 이렇게 하나로 묶어서 비판하는 것에 누구라도 즉각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다. 노무현 수사 때 활약한 방송사와 조국 사태에 불을 지핀 신문사가 다르고, 한 신문사에서도 그때와 지금 기자들이 다르며, 조국 사태만 보더라도 한 편집국 내에서 늙은 기자와 젊은 기자가 다룰 정도로 달랐으니 말이다. 과연 그런 차이들이 엄연하며, 따라서 그 차이를 탐구하는 일도 필요할지 모른다. 그러나 나는 이런 언론사 간, 기자 집단 간, 취재보도 관행 간 차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 언론을 관통하면서 지배하는 뚜렷한 하나의 실천관행에 주목하려 한다. <조선일보>고 <한겨레>고, <문화방송>이고 <엠비엔>이고, 이 때고 저 때고 할 것 없이 우리 기자의 일상적 실천이 드러내는 한 도그마를 문제 삼고 싶다. 그 도그마란 뉴스 제작에 적용되는 ‘사실 충분성의 원칙’을 지칭하는데, 이 원칙은 간단히 말하자면 ‘사실에 부합하면 뉴스로 충분하다’는 뜻이다.

얼핏 ‘사실 충분성의 원칙’은 우리가 없어 보이며, 언론의 온당한 실천에 도움을

---

3)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언론인 의식조사>에 따르면, 기자들이 최악의 사기저하를 경험했던 2017년 응답자의 약 77%가 저하했다고 응답했다. 2021년 결과를 보더라도, 사기저하의 이유로 언론인으로서 비전이 없다는 응답이 과반이고, 업무를 통한 성취감 및 만족도가 없다는 이유와 언론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하락했다는 데 동의한 응답이 상대적으로 많다. 조사결과를 시계열로 보면 공정성, 전문성, 자유도 등 한국 언론에 대한 모든 평가 항목에서 2007년 이후 2017년까지 하락세가 뚜렷하고, 이후 반등의 추세변경이 나타난다. 김위근 등의 2018년 <한국의 언론신뢰도: 진단과 처방>에는 신뢰하락에 대한 언론인 자체토론 결과가 담겨있는데, 결국 “기자들은 총체적인 언론불신의 환경에서 무엇을 어찌할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다”고 관찰했다.

주면 주었지 해롭지 않을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원칙이 언론의 도그마로 작동하기 때문에 언론에 대한 공중의 분노와 기자의 자기 환멸이 심화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이 원칙이 한국 언론의 오랜 전통에 기초한 이른바 ‘정상관행’과 결합해서 작동할 경우(이준웅, 2022), ‘박연차 게이트’ 보도 이전부터 ‘조국 사태’ 보도를 지나 이르는 바로 그런 보도가 계속되고, 심지어 그런 보도에 대한 정당화 작업도 이어진다는 것이다. 먼저 이 도그마의 작동 방식을 보자.

## 사실 추구라는 도그마

사실은 분명 뉴스의 구성요소이며, 그것도 필수적인 요소다. 사실에 대한 진실한 내용을 담은 문장이나 화면이 없다면 허망한 뉴스가 된다. 그런데 우리 기자들은 ‘사실이면 뉴스가 된다’고 믿으며 취재하고, ‘사실만으로 좋은 뉴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신념으로 뉴스를 전달한다. 이 신념은 한국 언론의 기저에 흐르는 일종의 근본 원칙처럼 보인다.<sup>4)</sup>

한국 기자는 이 원칙을 실천적 지침으로 삼기도 하고, 자신의 실천을 정당화하는 규범으로 활용한다. 한국 언론의 ‘사실 충분성의 원칙’은 내용만 보면 참인 명제이며, 또한 효과에 있어서도 무해한 것처럼 보이지만, 도그마로 작동하면서 온갖 실천적 문제를 유발한다. 이 도그마는 (가) 뉴스 가치 인식, (다) 뉴스 품질 평가, (다) 언론인의 덕성 인정 등 우리 언론의 모든 실천 영역에서 작동하며 악영향을 낳는다.

(가) 뉴스 가치: 기사의 사실성이 지배적인 뉴스 가치가 된다. 예컨대, 같은 사안에 대한 뉴스라도 복잡한 현장의 상황에 대한 분석이나 해석보다 경찰이나 검찰의 공보

---

4) 한국 언론은 이 원칙을 명시적으로 표명했고, 또한 규범적으로 따르고 있다. 2019년 이른바 ‘조국사태’에서 이어진 언론에 대한 공중의 비판에 직면하여 한국기자협회를 포함한 언론인 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에 대비하여 언론윤리헌장을 채택했다. 그 헌장의 제1조에 ‘진실을 추구한다’에 이어 “진실 추구는 언론의 존재 이유다”는 선언이 담겨 있다. 1964년 한국기자협회 창립선언문에 담긴 요지가 ‘권력에 굴하지 않는 자유’였던 것과 대조된 내용이다. 사실 충분성 원칙의 명시성 만큼이나 한국 기자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용어에 담긴 암묵적 규범 준수도 대단하다. 한국 기자들은 사실이 신성하다는 듯 ‘팩트’라는 별칭으로 부르기를 좋아하고, 사실 명제에 대한 검토가 아닌 의견과 해석에 대한 이견을 제시하면서도 ‘팩트’를 말한다고 표현하며, 사실 명제의 사실성 검토가 아닌 그에 대한 해석이나 해명을 제시하면서도 ‘팩트 체크’했다고 말하곤 한다.

회견을 챙기는 게 더 중요하다. 공식 정보를 제공하는 보도자료를 인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부 기관의 발표, 수사 당국의 확인, 사기업의 시장전망, 국제기구의 보고서, 외신의 보도 등은 야당의 논평, 당사자 해명, 대안적 지표, 이견과 이설 등에 대한 검토 없이도 또한 그에 대한 별도의 해석이나 맥락에 대한 논의 없이 그대로 옮겨서 쓰더라도 가치있는 기사가 된다. 한국 언론에서는 공식 보도자료만 인용해서 기사를 작성해도 어쨌이 ‘좋은 뉴스’로 대접 받는다.

(나) 기사 품질: 사실성이 뉴스 품질을 평가하는 기준이 된다. 아무리 취재를 열심히 했어도, 아무리 유려하게 묘사한 글이라도 사소하게나마 사실에서 어긋나면 나쁜 뉴스다. 반대로 당사자의 한 쪽 이야기만 썼어도 사실을 챙겼으면 일단 뉴스로서 합격이다. 일 초만 빨리 기사를 써도 사실이면 단독이고, 아무리 공들여 취재를 해도 한 줄이 오류면 오보 대접을 받는다. 전개하는 사건의 배경을 뒤지거나, 당사자나 이해관계자의 해명을 구해서 듣거나, 전문가의 해설로 맥락 정보를 구하는 일은 이른바 ‘사실을 챙기는 일’ 다음이 된다. 실은 아무리 배경, 해명, 해석을 더하더라도 사실을 부정확하게 기술하면 실패한 뉴스가 된다.

(다) 훌륭한 기자의 덕목: 사실 확인에 실수가 없어야 좋은 기자다. 사실과 진실에 대해 성실하고, 꼼꼼하고, 근성 있게 접근하는 기자가 유덕한 기자로 인정받는다. 명료한 문체, 성실한 인터뷰, 적실한 배경 조사, 타당한 추론능력 등을 동원해서 훌륭한 기사를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좋겠지만, 역시 사실을 놓치지 않아야 훌륭한 기자라고 인정받는다. 그러므로 출세하려면 오류가 없어야 한다. 무엇을 놓치면 무능한지 명료한 반면, 무엇을 잘해야 훌륭한 기자가 되는지는 모호하다. 따라서 현장의 기자들은 훌륭함을 추구하는 경쟁이 아니라 실패를 회피하는 게임에 몰두하게 된다.

‘사실 충분성의 원칙’을 도그마로 삼는 기자에게 뉴스 가치(news values)란 애초에 복수형이며, 그것도 서로 모순된 가치들로 이루어진 것이기에 서로 다른 가치를 내세워 보도하는 일이 가능하다고 말해도 소용없다. 뉴스 내용이 일단 참된 사실을 전달하지 않으면 부실하다고 간주하기 때문이다. 또한 뉴스가 다루는 사실이란 시공간 제약이 있기 마련이고, 따라서 ‘사실 충분성’은커녕 ‘사실 필요성’의 조건마저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해 봐야 소용없다.<sup>5)</sup> 예컨대, (1) 기자라면 사실에

---

5) 이 글의 초고에 대해 한 논평자가 ‘사실 충분성’은 아니더라도 ‘사실 필요성’의 원칙을 요구하는 일은 사실과 진실에 둔감한 우리 언론을 경계하는 데 유용하다고 주장했다. 이 주장은 규범적이고 처방적인 의도를 실현하기 위한 언론 비평으로서 미덕을 갖는다. 그



대해 참인지 아닌지 당장은 알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도 일단 직술 보도(straight reports)를 해야 할 때가 있고, (2) 최선을 다해서 확인을 거듭하더라도 나중에 거짓으로 밝혀지는 사실보도가 다반사며, (3) 잘못 보도한 내용을 후속보도를 통해 바로 잡는 일이야 말로 언론의 진정한 미덕에 속한다. 그러나 뉴스에 사실 추구, 정확히 말하자면 ‘사실에 대한 진실한 내용’의 정확성을 따지는 일보다 더 중요한 요점이 얼마든지 있다는 주장은 사실 충분성의 도그마 앞에서 무력하다.

나는 여기서 뉴스의 원천이 무엇이고, 뉴스 가치란 무엇이며, 좋은 뉴스란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 등을 따져보자는 게 아니다. 일단 ‘사실 충분성의 원칙’이 도그마로 작용하기에 현장의 기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반복해서 빠지는 실행 상의 함정이 있다고 지적하고 싶을 따름이다. 매일 취재의 현장에서 우리 기자들은 최선을 다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건만 어쩐지 그것만으로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없다. 애초에 진실 추구에 만족이란 게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동료나 선배 기자가 기사를 읽고 격려하고 비판하더라도 개선의 요점을 파악하기 어렵다. 사실은 당연히 뉴스의 중요한 재료가 되지만, 성공적인 보도란 재료를 충실하게 배열하는 것 이상의 일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 일정을 쟁기고, 배경조사를 위해 자료를 구하고, 발제하고 고쳐 쓰고, 후속기사를 준비하면서 바쁘게 지내지만, 사실과 진실에 한정해서 규율하는 한 어떻게 해야 더 좋은 보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서로 따로 가르치고 배우지 못한다.

어떻게 이럴 수 있나?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첫째는 우리 언론인들이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또한 믿음에 충실하게 살고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이 모든 일들이 어떤 다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핑계라는 것이다. 그런데 내 글이 문제 삼는 도그마 내에서 이 두 해석은 서로 모순이 아닐 수 있다. 순진한 사실 숭배이면서 동시에 책략에 가까운 변명으로 활용되기도 한다는 것이다.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사실에 집착하는 우리 언론인의 실천이 바로 그 도그마를 강화한다. 도그마 속에서 행위자가 의지에 따라 자발적으로 하는 행위는 그 행동의 의미를 제공하는 규범을 강화하며, 행위자가 하는 일에 별도의 해석을 제공하거나 비판을 제기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우리 언론인들이 서로에 대한 거울이 되어 동료에게 비판과 격려를 아끼지 않음에도 언론 현실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그마

---

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주장은 뉴스의 사실성 추구가 일종의 규제적 이념(regulative ideas)으로서 작동하는 것 이외에 다른 일을 별로 하지도 못한다는 요점을 스스로 드러낸다.

속에서 이루어지는 비판과 성찰이 오히려 그것을 강화한다.

한국 언론의 정파성과 불공정성 논란이 아무리 심하더라도 그에 대한 비판과 성찰만으로 좀처럼 극복하기 어려운 사정도 여기에 있다. 과거 나는 우리 언론이 ‘의견과 사실의 구분’에 취약하다는 관찰을 통해서 한국 언론의 문제란 정파적 자세에 있다기보다 몰아치기 관행이라고 주장한 적 있다(이준웅, 2010). 우리 언론은 사회적 영향력 행사를 위해서 여론을 한 쪽으로 몰아가는 데 능한데, 이를 한국 언론의 경향성(tendentiousness)이라 부르자. 경향적인 언론은 사실의 일부를 선별해서 강조하는 데 유능하고, 사실을 윤색적으로 표현하는 데 발군이다. 기사의 요지는 틀 지워져 있으며, 전략적으로 정보원과 인용문 활용한다. 이는 진보 신문이든 보수 방송이든 공중의 이해를 돕기보다 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보도하려다 보니 발생하는 일이다.

한국 언론은 ‘사실 충분성의 원칙’을 내세움으로써 기사의 불균성, 보도의 불공정, 기자의 편파성에 대한 비판에 저항할 수 있게 된다. 우파 기자의 편향을 문제 삼는 좌파 편집자에게, 또는 반대로 진보 의제를 소개한 기사를 비판하는 보수 논평에 대해 ‘그래도 사실은 쟁쟁다’고 대응할 수 있다. 이런 대응 자체가 한국 언론의 도그마를 강화하는 정당화 작업이기도 하다. 불공정 문제 뿐만 아니라 품질에 대한 비판에도 저항할 수 있다(김경모 등, 2018, 이재경, 2008). 뉴스 이용자들이 저질이다, 유치하다, 재미없다고 뉴스를 비판하더라도 기자는 ‘그래도 팩트는 쟁쟁잖아’라고 대꾸하곤 한다. 품질, 성숙, 재미와 같은 가치를 무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게 도그마가 작동하면서 강화되는 전형적인 방식 중 하나다.

한국 언론의 사실추구가 도그마에 빠져있다고 지적하는 일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그저 (1) 우리 언론이 진실한 사실만을 보도하더라도 편향적이거나, 저질이거나, 재미없는 뉴스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점을 드러내고, (2) 진실 추구만큼이나 중요한 언론의 다른 덕성들도 존재하다는 걸 보여주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그러나 나는 도그마로서 ‘사실 충분성의 원칙’ 그 자체를 효과적으로 반박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도그마에 빠진 언론인에게 발본적 비판이 필요하다고 느꼈다. 따라서 이 글에서 나는 사실 충분성의 도그마를 뒷받침하는 명제들이 정합하게 유지되기 어려우며, 또한 역사적으로 보아도 그 이념이 현실적인 실천규범으로 성립하여 변성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련다.

내 두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이 글은 첫째, 1920년대 미국 언론에 대해 월터 리프먼이 제기한 언론 개혁론을 관통하는 이념을 검토하고, 둘째, 리프먼이 한때 주

창했던 그 이념이 미국 언론의 역사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 평가한다. 이는 현대 한국 언론의 상황이 1920년대 이후 미국 언론의 전개와 어떤 유사성을 띄고 있기에 미국 사정을 보면 참조가 된다는 식의 유비적 논증을 사용하려는 게 아니다. 내 논증은 내재적이며 역사적인 비판을 따른다. 우선 나는 한국 언론의 도그마를 지탱하는 이념은 그것을 만들어 낸 주창자인 리프먼조차도 일관되게 주장하기 어려울 정도로 내적으로 정합하지 않다고 논지를 전개하겠다. 두 번째 논증은 일종의 역사적 비판인데, ‘언론의 객관주의’를 이념으로 형성한 미국 언론조차도 역사적 전개를 통해 그 이념을 정당화하기보다 오히려 극복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으며, 이 역사적 궤적은 ‘진실한 정보’를 이상화하는 리프먼의 이념에 반한다는 요지를 드러내려 한다.

## 리프먼의 뉴스 개혁론

1920년 월터 리프먼은 당대 <뉴욕타임즈>의 러시아 혁명 보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한 보고서를 스스로 편집에 참여했던 <뉴리퍼블릭>의 부록으로 출판했다. <뉴스검증(A test of the news)>이란 제목의 보고서는 광고를 제외하고도 2단 편집한 지면으로 42쪽에 달한다. 연구에 동참했던 찰스 머즈(Charles Merz)는 제1차 대전 후 파리에서 리프먼과 함께 군사정보국에서 활동했던 언론인으로서, 훗날 <뉴욕월드>에서 다시 함께 일했다.

리프먼이 주목한 보도는 국제 정세와 전쟁 보도였다. 그는 <뉴리퍼블릭>의 편집부에서 논설을 쓰면서 1916년 대통령 선거에서 우드로 윌슨의 당선을 도왔던 인연을 자산으로 삼아, 이듬해 행정부 내 외교연구단의 일원으로 활약했다. 그는 1차 대전 후 파리 평화회의 미국 측 대표단의 선전담당 관리자로 참여해서 윌슨의 14개 조항 작성을 돕기도 했다. 그는 자신의 외교현장 경험에 비추어 볼 때, 당대 언론이 외교 및 전쟁에 대해 보도하는 방식에 확실히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리프먼과 머즈는 1917년 3월부터 3년 간 러시아 혁명과정을 보도한 기사 약 3천 5백 건을 분석했다. 사설은 제외하고 오직 뉴스만 분석했는데, 당대 <뉴욕타임즈>는 날카롭고 묵직한 논설로 성가를 올리는 논평지라기보다 정확하고 선정적이지 않은 기사로 인정받던 정보지였기 때문이다. 저자들은 또한 <뉴욕타임즈> 기사자료를 구하기 용이하고, 기사 내용에 대한 지표가 잘 정비되어 있어서 자료준비가 편리했다고 조사대상 선정 이유를 보고서에서 밝혔다. 보고서는 러시아 혁명이 미국의 이익

과 현저하게 관련성 있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에 대해 미국 공중은 최소한의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했다고 결론 내리고, 그 까닭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Lippmann & Merz, 1920, pp.41-42).

첫째, 정부 발표나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라고 해도 사실인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은 오히려 특수한 목적에 따른 의견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인용한다고 해서 믿을 만한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공직자나 당국에 속한 익명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히 정보원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명을 역지로 밝힐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정보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셋째, 일부 특파원의 보도는 노골적으로 편파적이었다. 이해관계나 주의주장으로부터 떠난 ‘무심함(disinterestedness)’이 필요하다. 넷째,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기자들이 몰라도 너무 모른다. 전문 지식을 갖춰야 한다. 다섯째, 〈뉴욕타임즈〉 편집부의 편협한 태도도 문제다. 기사 제목과 사진 설명을 제공하는 것부터 전문성을 발휘해야 한다.

백 년 전 〈뉴욕타임즈〉 보도에 대한 비판을 현대 한국 언론에 적용해 보더라도 별로 위화감 없이 통한다는 게 흥미롭다.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언론의 수준이 1920년대 뉴욕 언론과 유사하다거나 아니라는 게 이 글의 요점은 아니다. 요점은 뉴욕 언론에 대해 백 년 전에 가해진 비판이 우리 언론에 적실하고 또한 유효하다는 식으로 생각하는 언론인과 언론학자들이 우리 사회에 많다는 사실을 환기하는 데 있다. 이 글이 문제 삼는 도그마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 환기 자체가 왜 요점이 되는지 인식하기 어렵다. 그때나 지금이나 리프먼과 머즈의 제언을 모두 수용해서 언론을 개혁한다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으며, 실은 언론의 문제를 정보원의 사용, 공직자의 인용, 편파적인 태도, 편집자의 전문성 등으로 구분해서 지적하더라도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정을 헤아리지 못할 수 있다.

리프먼이 〈뉴스검증〉 보고서 말미에 제시한 개혁정책이 전제한 이념적 기초를 따져보자. 이 보고서를 작성할 당시만 해도 리프먼은 아직 개혁적 지식인으로서 자유주의에 따른 지식기반 언론관을 주창하고 있었는데, 언론을 개혁하게 위해 외부의 통제가 아닌 자율 규제를 동원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을 보면 특히 그렇다. 그는 당대 언론이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이루지 못한 것만 같은 실천적 규범을 조목조목 제시했다. 또한 언론의 보도에 대해 공공연하게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조직된 시민들의 움직임에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언론을 더 이상 존경하지도 신뢰하지도 않는 시민을 버려두어서는 안 되며, 언론 개혁을 위해서라도 뉴스 이용자의 적극적인 감시를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이런 제언, 비판, 주장이 실현가능한데

이루어지지 않아서 문제라고 믿었다.

## 자유를 위한 투쟁의 도구

〈뉴스검증〉을 출간할 즈음에 리프먼은 언론 개혁과 관련한 일련의 논평을 〈애틀랜틱〉에 발표했는데, 그 글들을 모아 1920년 〈자유와 뉴스(Liberty and the news)〉라는 책으로 엮어냈다(임상원, 2017, 95-100쪽). 〈자유와 뉴스〉는 〈뉴스검증〉과 주제를 공유하지만 논조도 방법도 다르다. 이 책은 언론 관행이 부실한 이유를 제시하고 방법론적 대안을 제시하는데, 여러 모로 리프먼의 본격 비판론에 근거한 언론 개혁론이라 할 만하다. 특히 그는 당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에서 유래한 ‘의견 개진의 자유’를 부정하고 ‘진실을 위해 싸우는 자유’라는 개념을 대안적으로 제시했다.

“오늘날 서구 민주정의 위기는 언론의 위기다”는 유명한 명제가 〈자유와 뉴스〉 초판 5쪽에 등장한다. 리프먼은 언론이 부실하기 때문에 공중이 사실을 확인할 기회를 갖지 못한 조건에서, 어떻게 인민의 자기 통치가 가능하겠냐고 힐난한다. 언론은 사실과 공정함을 희생해서 사실상 선전기관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거짓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거짓이 바로 뉴스를 제공한다면서 궤변과 선전을 제공하는 것인데, 문제는 언론이 의식적으로 이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고 착각한다는 데 있다.

〈자유와 뉴스〉는 기자가 목격자나 통신사로부터 직접 정보를 받더라도, 그 정보가 애초에 검열과 선택의 결과일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Lippmann, 1920, pp.45-46). 예컨대, 당대 유럽의 통신사들은 정부보조를 받고 있는데, 이 과정에 정부의 선택과 검열이 개입할 수 있다. 편집자들의 무지와 편견도 오류의 원천이 된다. 언론의 편집권이란 결국 그들이 속한 사회집단에 지배적인 관습을 준거로 삼아 판단한 결과일 뿐이며, 이 때문에 서로 유사한 관점에서 의식하지 못한 채 무지와 편견을 갖는다는 것이다. 결국 언론은 열심히 취재하고 제작해서 뉴스의 형식으로 공중에게 전달하고 있건만, 공중이 접하는 내용은 사실상 선전물이 된다.

리프먼은 이런 식의 언론 실패가 공적 지식의 수단이 붕괴하는 것과 같다고 보았다. 이런 조건에서 행정부가 언론을 통해서 공중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식으로 통치하기 시작하면, 그것 또한 독재와 다를 바가 없다. 리프먼은 오도된 의견의 유통을 방지한 결과를 자유라 볼 수 없다고 단언한다. 편견에 기초한 의견의 자유란 실은 오류, 환상, 오해의 자유일 뿐이라는 것이다. 이런 진단에 이어서 그는 특유의 과

학주의에 대한 의존으로 진행한다. 리프먼은 거짓에 싸울 수 있는 자유야 말로 진정한 자유인데, 그 싸움의 방법론이 곧 과학이라고 선언한다. 결국 그에게 자유란 목적만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방법론적으로 정당화 가능해야 한다. 리프먼은 자유란 우리 행동에 필요한 ‘정보의 진실성(the veracity of the information)’을 증진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역설한다(p.68).

그렇다면 어떻게 언론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할 수 있을까? 우선 리프먼은 거짓기록(false documentation)의 위협을 들어 규제론을 내세우는 데, 거짓기록이 무엇인지 따로 규정하지 않고서 어쨌든 불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둘째, 모든 기사를 기명기사로 낼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정보원은 확인 가능해야 한다고 제언하기도 했다. 셋째, 그는 언론으로부터 진실을 얻기 어려우니, 별도의 정치 관측소(political observatories)를 각급 정부부처와 기업, 그리고 해외 공관에 신설하면 좋겠다고 제언했다(p.94). 세 제언 중에 첫째와 셋째 주장만 보더라도, 언론 개혁론자 리프먼은 이미 전통적 자유주의 언론관의 경계 밖으로 나가 있다. 그는 언론이 진실한 정보를 제공하게 만들기 위해서라면 뉴스 제작은 물론 취재보도 과정에 대해서도 강한 통제를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리프먼은 덧붙여 기자를 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적절한 훈련도 받지 않은 채 편견과 자만에 빠져서, 사실을 무시하고, 어떤 방법론적 원칙도 없이 될 대로 되라는 식(catch-as-catch-can)으로 보도하는 기자들을 훈육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가 말하는 언론인 교육의 요점은 (가) 객관적 증언이 기사의 기본이 되도록 가르쳐야 하며, (나) 특별한 목적을 추구해서는 안 되며, (다) ‘이해관계에 무심한 보도(disinterested reporting)’를 할 수 있어야 한다(p.88). 요컨대, 기자는 사실을 기초로 보도해야 하고, 이해관계나 주의주장에 휩싸이면 안 된다.

리프먼이 <자유와 뉴스>에서 주장하는 자유란 결국 ‘진실을 위해 투쟁하는 자유’다. 그가 바라는 언론은 두려움 없이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이다.<sup>6)</sup> 언론은 의견이 아니라 사실을 보도해야 하는데, 이는 방편적인 것으로서 결국 자유를 위한 투쟁의 도구라는 것이다. 그는 <자유와 진리>에서 존 밀튼, 존 스튜어트 밀, 버틀랜드 러셀 등의 자유론을 공들여서 재구성한 뒤, 이어서 신랄하게 비판한다. 외부적 간섭을 받

6) 그 유명한 “모든 악마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진실을 말하는 일보다 더 고귀한 언론의 법칙은 없다”는 문장이 <자유와 뉴스> 13쪽에 등장한다. 이런 리프먼의 진리추구 언론관은 1918년 선동법에 따라 기소된 러시아 이민자 제이콥 에이브럼스에 대한 1918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소수의견을 통해 발언의 자유를 정식화한 올리버 웬델 홈즈 대법관의 자유주의적 언론관을 배경으로 삼아 제시된다.

지 않고 의견을 개진할 자유만으로는 진실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더 많은 의견으로 의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없다. 리프먼은 의견으로부터 독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낳을 수 있는 방법을 통해서 정보의 진실성(the veracity of the information)을 증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pp.67-68). 확실히 〈자유와 뉴스〉 무렵만 해도 리프먼은 진실을 목적으로 삼는 정치, 그리고 진실을 제공하기 위해 초연하게 사실을 추구하는 방법을 찾고 있다. 그는 제대로 작동하는 언론과 공공정보 체계가 있으면 자유를 지킬 수 있다는 신념을 유지하고 있었다.

## ‘진실한 정보’의 맥락들

리프먼이 약 백 년 전 사용한 ‘정보의 진실성’이란 표현이 지금 여기 한국 언론에 대해 갖는 울림을 무시할 도리가 없다. 그 울림은 과연 적당한지 논의 평가하기 전에, 그 ‘진실한 정보’라는 표현이 당대에 과연 어떤 함의를 가졌는지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진실, 사실, 정보, 그리고 목적이 아닌 방법론으로서 자유를 동원하는 용법은 리프먼만 애용했던 레토릭이 아니다. 정보와 진실을 연결한 어법은 당대의 특유의 맥락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19세기 말 20세기 초 미국 언론에서 ‘정보’란 ‘이야기’에 대칭하고 대비되는 용어였다. 마이클 섯슨은 〈뉴스의 발견(Discovering the news)〉의 제3장 ‘1890년대의 두 언론’에 이 사정을 잘 기록했다. 19세기 말 세계 최고의 신문의 도시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던 〈월드〉와 〈저널〉은 대표적인 ‘이야기’ 중심의 언론이었다. 신랄한 정치적 논평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도시 범죄와 정치적 스캔들을 쉬운 문장과 삽화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데 능했다. 대중지가 아닌 잡지와 팜플렛도 이야기에 논평을 더해서 제공하는 의견의 제공자로 변성했는데, 실로 당대의 언론이란 그렇게 이야기와 의견을 수집해서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였다.

〈뉴욕타임즈〉는 당대의 주류 언론과 자신을 구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언론으로 떠올랐다. 품위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즉 그럴듯한 ‘이야기’와 통찰력 있어 보이는 ‘의견’에 집중한 당대 주류 대중지와 잡지와 차별화된 편집 전략을 도입했다. 다른 뉴욕의 대중지와 마찬가지로 일전신문(the penny press)으로 출발했지만, 1896년 새 발행인이 들어선 뒤 독자적인 편집 노선을 선택한 이 신문은 정확한 내용을 품위 있는 문체에 담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대 대중지와 경쟁하게

된다. 19 세기말 뉴욕에서 <타임즈>는 ‘이야기’와 ‘논평’을 전하는 언론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셋슨은 19세기말 뉴욕 언론의 ‘정보’와 ‘이야기’ 모형 간 대립이란 일종의 계층 간 갈등의 또 다른 표현임을 날카롭게 지적했다(Schudson, 1978/2019, 208-212쪽). 당대 <타임즈>는 뉴욕 중산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신문이 되었는데, 이는 당대에 합리적인 방식으로 정돈된 삶을 살았던 사회경제적 엘리트 계층의 요구와 정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결국 이 신문이 강조했던 정보란 정확하게 사실을 전달한다는 것과 더불어 도시 중산층의 생업, 사교, 취미 등에 고유한 절제와 품위를 거스르지 않는다는 양식을 따른다는 것을 의미했다. 이 시대 언론인이나 논평가가 ‘뉴스’라 써야만 했을 것만 같은 맥락에서 굳이 ‘정보’라는 용어를 선택한 것은 결국 그 작가가 추구하는 사회경제적 지위와 자신이 속한 인맥에서 통용되는 절제와 품위의 미덕으로 삼는다는 것을 과시하는 일이기도 했다.<sup>7)</sup>

‘정보’란 또한 특별한 기술적 함의를 한 가지 더 갖는다. 제1차 세계대전 중 미국 선전전을 총괄했던 ‘공공정보위원회(the committee of public information)’에 추문록로 언론인 출신 조지 크릴(George Creel)이 참여하고 리프먼을 주요 언론인들도 가세했는데, 이 ‘정보’ 위원회의 임무는 다름 아닌 전시 선전선동이였다.<sup>8)</sup> 국내외 반전주의 여론을 비애국적이라 매도하고, 전쟁참여와 애국주의를 고양하는 일이었다(임상원, 2017, 90-95쪽; 차배근, 2014, 493-498쪽). 이 위원회는 국내외 2개부에 24개 하위부서를 갖는 방대한 기관이기도 했다. 지방 정부에 연방 정부의 전쟁정책 홍보와 관련한 지침을 내리면서 동시에 직접 적십자, 기독교청년회, 구세군 등 사회운동단체를 동원해서 전쟁을 지원하는 선전선동 활동을 관리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이후 미국은 가히 ‘정보’의 시대를 살았다고 할 만하다. 언론인 출신 홍보전문가가 작성한 보도자료,<sup>9)</sup> 국내외 정치운동의 노골적인 선전선동 팸플렛,<sup>10)</sup> 정부의 노골적인 언론 통제,<sup>11)</sup> 그리고 당대 좌우전후 당파적 언론인들이

7) ‘정보’를 추구하는 언론이 ‘이야기’를 추구하는 언론보다 사실확인에 있어서 더 정확했던 것도 아니다(Schudson, 1978/2019, 211쪽).

8) <자유와 언론>에 정부에 의한 공보체제 관리와 통제를 정당화하는 구절이 있다. “보다 정확하고 타당한 분석을 위해 공적 정보를 행정으로 관리함으로써 자유로 가는 탄탄대로를 닦을 수 있다” (Lippmann, 1920, p.100).

9) 셋슨(Schudson, 1978/2019, 255쪽)은 사일러스 벤트(Silas Bent)의 연구결과를 인용해서, 1926년 12월 29일자 <뉴욕타임즈>의 기사 255건 중 147건이 홍보대행사에서 유래한 기사였고, 편집인 존 제섭(John Jessup)의 인터뷰를 인용해서 1930년대 초 <타임즈>의 기사 중 약 6할이 언론홍보 대행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기록했다. 20세기 초 미국 언론은 홍보대행사가 제공하는 보도자료(“handouts”)로 지면을 채우는 일이 다반사였다.



내지르는 평론들(리프먼의 <뉴리퍼블릭>에 실린 논설들이 대표적이다)이 모두 자신이 말하는 바는 정보에 기초한 것이고, 따라서 사실이며, 거짓된 선전은 아니라고 외쳤다. 자신을 사실의 탐구자 또는 진실의 수호자라고 자임하는 것보다 그저 ‘정보 제공자’라고 자칭함으로써 발언의 진실성, 진정성, 호혜성 등을 강조할 수 있었다. 정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단순한 허구는 물론 불가피한 거짓, 그리고 의도적 기만을 포함한 모든 진실과 진정성 위반을 피할 수 있을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제 주장만 참이고 다른 주장들은 거짓이라는 주장이 많을수록 오히려 거짓은 더 많아질 뿐이다. 정보의 시대에 진실 주장은 더 많은 선전선동을 낳는 역설을 빚었다. 이런 맥락에서 리프먼마저 개혁적 언론 모형을 제시하면서 ‘정보’의 레토릭을

- 
- 10) 당대 미국 연방대법원이 심의한 수정헌법 제1조 발언의 자유 관련 위헌심사 사례들을 보면, 당대 정치적 선전의 내용과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다음 네 건 모두 1917년 방첩법(the espionage act)을 위반한 혐의로 유죄 받은 사례다. 1917년 방첩법의 일부는 1918년 전시 특별법적 성격을 갖는 선동법(the sedition act)으로 강화되어서 정치적 발언의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활용됐다. 필라델피아 사회당 서기인 쉥크(Charles Schenk)는 징집거부를 선동하는 전단을 나누어 준 행위로 유죄를 선고받고, 연방대법원은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초래한 행위이기에 방첩법 적용이 합헌이라고 인정했다. 뎀스(Eugene Debbs)는 미국 사회당 당수로서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정치인이었는데, 전시에 사회주의를 옹호하고 전쟁에 반대했다는 이유로 유죄 확정을 받았다. 프로웁(Jacob Frohwerk)은 독일계 신문을 발행하던 언론인이었는데 역시 전쟁에 대한 부정적 내용의 기사를 출판했다는 이유로 처벌 받았다. 에이브람즈(Jacob Abrams)와 그의 러시아계 유대인 동료들은 미국의 러시아 혁명 개입에 반대하는 유인물을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고, 유죄를 선고 받았다. 연방대법원 판사 올리버 웬달 홈즈는 앞의 세 건의 위헌심사에서 합헌결정 판결문을 작성했으나, 네 번째 에이브람즈 판결에서 1918년 선동법이 발언의 자유를 침해한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개진했다.
- 11) 차배근(2014)은 <미국신문발달사>에서 1914년부터 40년까지를 신문의 통폐합시기로 규정하고 세계전쟁과 경제공황으로 인한 언론 간 인수합병을 위주로 서술했지만, 행정부의 직접적인 언론 통제와 정부 정책 홍보를 위한 활동이 만연한 사정을 기록했다. 미국 정부는 전쟁기간 동안 사회주의 언론인과 급진적 노동조합주의자의 활동을 제약했으며, 특히 1917년 적국과의 교역금지법(Trading with the enemy act)을 이용해서 외국어 신문 검열을 강화했다. 세계대전 전 약 1,000여 개의 외국어 간행물이 있었으며, 그 중 140여개는 일간지였는데, 전후에는 독일어 계열 신문은 절반 정도로, 다른 언어 신문은 1/4 정도가 감소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 법을 적용해서 검열위원회를 운영했는데, 그 위원장이 공공정보위원회의 조지 크릴이었다. 이 모두 윌슨 민주당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이후 사정은 악화했다. 1929년 대통령에 취임한 허버트 후버는 대통령 관련 기사를 세 가지 범주, 즉 (가) 직접-인용해야 할 발언, (나) 배경정보로 언급하되 대통령 출처를 명기하지 않을 발언, (다) 오프더레코드 등 세 범주로 구분해서 관리했다. 이런 대통령 기사관리 관행은 프랭클린 루스벨트까지 이어졌다. 르보빅(Lebovic, 2016)에 따르면, 프랭클린 루스벨트 시대에 정부의 언론정책은 더욱 정교하게 발전했는데, 이는 특히 유능한 언론인이 지속해서 정부 홍보부처로 진출해서 언론을 상대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미국 언론은 특유의 오래된 정론지 전통에서 유래한 정파성에 따라 정치 투쟁에 참여하는 문제가 여전했지만, 이에 더해 정부의 홍보 및 공보정책에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정파성만으로는 비난할 수 없는 복잡한 사정에 처해 있었다.

동원했던 것인데, 이는 참된 언론이란 불공정한 논설, 홍보, 선전, 선동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되어야 한다는 당대의 분위기를 따른 것이기도 하다.

종합해 보면, 리프먼이 옹호했던 정보란 정확한 사실을 담고 품위를 유지한 기사를 뜻한다고 할 수 있다. 당대 지식층에서 이미 질리도록 보고 있었던 선전선동, 캠페인, 광고홍보와 내용적으로 차별화된 뉴스를 말한다. 그러나 ‘진실한 정보’를 추구하는 리프먼의 이상적 언론관은 그때도 그랬지만 그 이후 언제라도 실현될 수 있었으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실은 그 이상적 언론관이 실현되지 못더라도 안타까워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 왜냐하면 첫째, 진리추구 언론관은 그 최고 주창자인 리프만 자신에 의해서 즉각 부정되었으며, 둘째, 언론의 객관주의를 이념으로 확립한 미국 언론의 역사적 전개를 보더라도 리프먼 식의 과학주의적 개혁론이 주류였던 적이 없기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리프만 식의 언론 개혁론은 특별히 실현되지도 않은 채 언론 현장을 맴도는 메아리 같은 존재였는데, 그것은 미국 언론에 대한 주류적 시각이 되기도 전에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했다.

## 언론에 대한 포기

리프먼이 어떻게 진리를 추구하는 언론이란 이상을 포기했는지 보자. 1922년 <여론>에서 리프먼은 언론이 진실을 제공할 수 없는 기관이고 선언한다. 언론은 진실이 아닌 뉴스를 제공하는 제도인데, 뉴스란 진실과 동떨어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알리는 뉴스는 숨겨진 사실을 밝히는 일과 엄밀하게 구분되는 것이다. <자유와 뉴스>에도 뉴스가 일종의 ‘사이비 환경(pseudo-environment)’을 만들 우려가 있다는 경계심이 담겨있었다. 그리고 언론은 근거 없는 소문이나 이유 없는 억측이 되지 않도록 개혁이 필요하다는 희망이 남아있었다. 그러나 <여론>에 따르면, 뉴스란 이제 사이비 환경을 만드는 주범조차 되기 어려워 보인다. 왜냐하면 뉴스의 결합은 물론 미덕도 여론의 수준을 따라 만들어지는데, 그 여론이란 역시 지식을 산출할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인민의 무능함에 일차적으로 제약받기 때문이다 (Lippmann, 1922, pp.264-5).

<여론>에서 리프먼은 언론의 무력함, 여론의 모호한 형성과정, 개인 의견의 취약성 등 모든 대상을 비판적으로 고발한다. 당대의 정치적 위기는 세상에 대해서 신뢰할 만한 표상을 갖지 못하고 혼란스럽게 행동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는 사람들의 인

지적 결함에서 비롯한다. 여론에 의존해서 통치해야 하는 민주정은 다른 방도를 찾지 않는 한 실패를 면할 수 없다. 리프먼은 초연한 전문가들로 구성된 별도의 조직을 갖추어, 그로부터 관찰과 지혜를 구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사건과 사태에 대해 적절한 관점과 지적 능력을 갖춘 ‘내부자들’이 작업할 수 있도록 기회와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언론과 공중은 이 식견을 갖추고 초연한 심성을 갖춘 내부자들의 조사, 결단, 제언이 이루어진 다음에 등장해서 제 할 일을 하면 된다. 언론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충실하게 전달하면 되고, 공중은 그렇게 충실하게 전달된 정보를 기초로 의견을 정하면 된다.

나는 <여론>을 읽을 때마다 언론 개혁론이 아닌 언론에 대한 포기를 전제로 한 사회개혁이 가능할지 의심하게 된다. 공중의 의견형성 능력과 언론의 취재 능력에 대해 기대하지 못하는 민주정이란 과연 어떤 민주주의 이론에서 가능할지 궁금해진다. 이런 의심과 의혹에 켜기라도 박듯이 리프먼은 1925년 출간한 <유령 공중>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를 보장하는 게 민주정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선언했다. 민주주의 이론이 전제한 주권자인 공중은 추상적인 존재이며, 실은 유령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실제 유권자 공중은 본원적으로 무능해서 공적 사안에 직접 참여할 수 없다는 관찰한 그로서는 당대 민주정을 괴롭히는 그 문제를 “민주적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확인했다(Lippmann, 1925, pp.189-180). <유령 공중>에서 언론은 적극적으로 공중의 의견형성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단순하지만 충직하게 정보의 매개자 역할을 수행하는 일마저 제대로 하기 어려운 제도처럼 보인다.

## 이른바 ‘리프만의 선회’에 대하여

많은 평자들은 1920년 <자유와 뉴스>의 언론 개혁론에 담긴 낙관주의가 어째서 불과 2년 만에 회의론을 거쳐서 다시 3년 뒤 <유령 공중>의 암울한 비관론으로 변했는지 묻는다. 특히 언론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버린 채, 전문성을 갖춘 ‘내부자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는 언론제도 자체에 대한 부정적 시각으로 선회한 사실을 놓고 당혹해 한다.

동료 진보 지식인의 개혁주의 언론활동의 무력함에 대한 환멸과 당파적 언론인들 간의 반목에 대한 반감 때문이었을까. 역대 대통령들을 포함한 거물 정치인들과 만남을 통해 점차 강화된 예리한 현실주의적 정치감각 때문이었을까. 아니면 그가 기

여했던 파리 강화회의 평화조약이 적나라한 이익추구 행위와 전략적 술수 속에서 망신창이로 변하는 걸 목격했기 때문일까. 리프먼의 전기작가는 리프먼이 1921년 <뉴리퍼블릭>을 떠나 플리처의 <월드>로 옮기기로 결단한 후, 휴가 차 방문했던 유럽에서 목격했던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등장한 전체주의적 선동정치의 등장도 그의 심경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는 암시도 덧붙였다(Steel, 1980, p.180).

나는 그러나 언론과 공중에 대한 리프먼의 환멸이 예정된 경로를 따랐을 뿐이라고 말하고 싶다. 이 모든 것이 그가 변했다기보다 애초에 그가 변한 적이 없어서 나온 결과라는 것이다. 따라서 그의 ‘선회’란 그가 진보적 개혁론을 포기한 무슨 변절자가 됐기 때문이라기보다 그가 애초에 가졌던 이론적 전망에 근거해서 ‘내부자’의 시각으로 보았던 정치 현실을 관찰한 결과 도달한 결과라고 본다.<sup>12)</sup> 리프먼의 이론적 전망은 그가 <뉴리퍼블릭>에서 개혁적 언론인으로 활동하던 1914년 출판한 <표류와 지배(Drift and mastery)>에 이미 정립되어 있다. 이 책은 미국 민주정이 권위주의를 극복하고 자유를 얻었지만 결국 혼돈에 빠져 표류하고 있다는 진단에 따라 쓰인 것이다.

<표류와 지배>는 진보주의적 개혁을 이끌었던 추문폭로 언론(muckrakers)이 사회개혁에 도움을 주었다거나 아니라고 쉽게 결론 내릴 수 없는 사정을 해명하며 시작한다. 리프먼은 추문폭로 언론이 성공이 표류하는 미국 사회의 혼란을 반영한다고 보았다. 이익추구 세력과 결탁한 정치인의 음모를 폭로하고, 사업가의 부당이익을 고발하고, 자본가의 비효율성과 노동착취를 비판하는 데 성공했지만, 추문폭로자도 결국 인민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데 그쳤을 뿐이라고 한다. 추문폭로 언론으로 도래한 고발 문화는 누구도 믿을 수 없는 사회를 만들고 말았다. 리프먼은 언론이 탐사와 고발에 집중한다고 해서 온전히 제 기능을 다 한다고 보지 않았다. 어떤 이념이나 종교도 위안을 주지 못하고, 어떤 새로운 절차나 규율도 질서를 낳지 못하는 당대 사회에서 추문폭로 언론은 혼란의 징후이거나 아니면 사태를 악화할 뿐이다. 추문폭로는 공중의 독식에 대한 의심을 강화하고, 폭로의 기대 수준을 높일 뿐 표류하는 사회를 구하지 못한다는 진단이다.

12) 청년 리프먼의 성품과 성장 배경에 대한 증언들도 참고가 된다. 로널드 스틸의 전기를 보면, 젊은 시절의 리프먼은 스스로 ‘영웅숭배자’였다는 사실을 숨긴 적 없으며(p.64), 명망가들과 친교하면서 명성을 추구하는 데 주저함이 없었고(p.67), 성인이 된 이후 자신의 유대인 배경에 대해 옹호도 변명도 하지 않았지만 미국의 유대인에 대한 부정적으로 평가했으며(ch.15), 러니드 핸드(Learned Hand) 판사와 교신에서 반민주주의로 기울어지는 자신의 마음을 밝혔는데 애초에 그가 인간의 평등에 대해 근원적인 불신을 가졌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역시 특별한 고백이라고 하기 어렵다(pp.217-218).

리프먼은 과학정신이야 말로 민주정의 훈련이고, 표류로부터 해방이고, 자유로운 인간의 전망이라 대안을 제시한다(Lippmann, 1914, p. 276). 어떤 전통적 권위와 경제적 이익도 지배적일 수 없고, 사회주의를 포함한 어떤 이념이나 종교도 위안을 줄 수 없기에, 그는 현대인이 무지와 불안 속에서 서로 도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전제한다. 그리고 과학이 그 협동을 위한 공통의 규율을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p. 282). 아직 개혁적 이상주의 유지했던 청년 리프먼은 환상으로부터 사실을 구분해 내는 능력, 즉 과학정신을 이용해서 불행한 현실을 이상에 근접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일까.

사실 리프먼의 이성 숭배와 과학에 대한 의존은 그의 하버드 시절이후 약화한 적이 없으며, 그가 평생 숨긴 적 없는, 숨길 수도 없었던, 특유의 엘리트주의의 토대를 이룬 신념에서 나왔다. 한때 그가 과학적 방법론을 동원해 사실에 대해 진실하게 보도하면 공중은 스스로 자기를 통치할 수도 있다는 개혁주의적 세계관을 가졌을지도 모르지만, 이미 <표류와 지배>의 시기에 이르면 그 개혁 방안이란 일반 공중의 계몽과 실천과 별로 관련이 없는 것이 되고 만다. 리프먼은 이후로도 여론을 ‘사이비 환경’이라고 부르면서 결함은 있지만 교정이 가능한 현실적 조건으로 보는 시각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그 교정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과학적 방법론을 적용해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소수에 한정된다고 믿었던 것이다.

리프먼은 <표류와 지배>에서 이미 추문폭로 언론은 물론 당대 진보적 개혁론과 선을 긋고, 그런 방식으로 미국의 복잡한 문제를 간단히 해결할 수 없다고 보았다. 실로 리프먼은 1910년 이미 보스턴의 기독교 사회주의자이자 추문폭로자인 링컨 스티븐스(Steffens)를 도와 <에브리바디즈>에서 기사를 쓰다가 1년 만에 신임 뉴욕 시장의 비서 자리를 얻어 정계에 투신했다. 리프먼은 스티븐스의 언론활동이 “사실을 수집해서 분석하는 방식으로 기사를 쓰기보다 다소 모순적 양식으로 쓴다”는 데 점차 비판적이 되었으며, 또한 “현실로부터 괴리된 기독교 무정부주의자 성인처럼” 구는 스티븐스로부터 배울 것이 없다고 생각했다고 한다(Steel, 1980, pp.38-41). 그의 언론관은 철저하게 주류적인 인식을 갖고 있었고, 이는 당대의 이념이라 할 수 있는 도금시대의 낙관주의와 저변의 실용주의 정조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는 20세기 초 사상계를 흔들었던 신사조들 간의 충돌에 민감했지만, 동시에 당대의 혼란 속에서 지배적 정조와 이념의 변화 속에서 현실 정치를 관찰하면서 빠르게 현실주의적 자세를 확립했다.

아무리 과학 정신이 대단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현실을 이상에, 또는 이상을 현실

에 근접하게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실현할 수 있기를 어떤 철인 정치인이나 양광 과학자에게서라도 기대하기 어렵다. 하물며 현장에서 정치인을 면담하고 과학자를 인용해서 기사를 써야 하는 언론인에게 그것을 실현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 언론이 다루는 사건의 본성과 뉴스의 본성, 즉 관찰과 보고의 시공간적 제한성을 생각해 보면 이 요점이 명확하다. 현실의 언론의 실천, 즉 취재, 제작, 보도를 관찰하면 할수록 그것은 과학적 발견이나 철학적 논증과 유사성은 희미해지고 결정적인 차이들이 명확해진다. 높은 이상을 지녔던 합리적 현실주의자는 기회주의적인 언론과 무기력한 공중을 관찰하면서 이미 사회개혁 전략을 수정했던 것이다.

## 전문직 규범으로서 ‘언론의 객관성’

리프먼이 언론에 대해 가졌던 기대와 환멸과 별도로 미국 언론의 역사적 전개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실제 지배적인 이념이 무엇이었고 어떻게 전개했는지 살필 수 있다. 일단 모트(Mott, 1962)의 시대구분에 따르면, 18세기 정립기와 19세기 정론지 시기, 그리고 세기전환기의 선정적 대중지 간의 경쟁시기를 거치고 나면, 1920년대 이후 ‘현대 신문의 시기’가 열린다고 볼 수 있다. 언론윤리에 대한 역사적 연구를 종합해서 말하자면, 바로 이 시기에 미국 언론인의 직업적 이념인 ‘언론의 객관성’이 자리잡기 시작했다.<sup>13)</sup> 미국 언론의 직업적 이념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의 객관성’이 1920년대 이후 성립했다는 역사적 사실 자체가 리프먼 식의 언론 환멸에 대한 미국 언론의 반응의 양상을 증거한다.

한 가지 오해를 짚고 넘어가자. 언론학자들 중 일부는 리프먼이 1920년대 미국 언론의 이념인 ‘객관주의’의 대변자이며, 전문주의의 기원이라고 해설하기도 한다(강준만, 2017, 95쪽 이하). <자유와 뉴스>에 이은 <여론>과 <유령 공중>에 제시된 진

13) 언론이 사실과 진실을 주장했다는 이유로 ‘언론의 객관성’이 등장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런 공언은 1640년대 영국의 정기간행물 뉴스책(newsbooks)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Ward, 2004/2007, 151쪽). 워드는 17세기 영국 언론의 사실 주장이 기본적으로 ‘수사적’인 것이었다고 평가했다(171쪽). 1830년대 미국의 일전신문과 같은 상업적 대중지가 당대 정론지와 경쟁하면서 이해관계를 떠난 비당파성(nonpartisanship)과 보도의 초연함(detachment)을 강조했지만(Mindich, 1998), 역시 언론이 어떤 이념을 주장했다고 해서 곧 그것이 규범화됐다고 속단할 수 없다. 기자와 편집자가 자의식을 갖고 자신의 실천을 돌아보는 데 적합한 격률과 그것을 일반화한 규범은 1920년대 미국의 대도시 상업신문에서 일했던 언론인들의 실천 속에서 등장했다(Maras, 2013, ch.1; Ward, 2004/2007, 308-315쪽).

실한 정보에 대한 강조와 당대 언론인들이 형성하고 있던 객관주의를 병치하고, 개념적 연관에 주목해서 이렇게 해설하는 것도 이해 못할 일은 아니다. 그러나 리프먼이 <여론> 이후 옹호한 이른바 전문적 지식을 갖춘 내부자들의 활동이란 영미 언론이 역사적으로 수행한 ‘전문직주의’ 규범과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sup>14)</sup>

리프먼이 추구했던 정보의 진실성이 ‘초연함’, ‘무심함’, ‘성숙함’으로 드러나는 과학자들의 습속이었다면(Lippmann, 1929), 당대 기자들이 추구한 객관성이란 “소박한 경험주의에 다른 이름을 붙인 것”에 가까웠다(Schudson, 1978/2019, 276쪽). 리프먼의 객관성이란 ‘왜곡된 세계의 상’을 교정하는 데 필요한 방법론적 기획이라면, 언론의 객관성이란 당대의 선전선동의 위협에 대한 언론인의 염려에 찬 대응방책이었다(273-277쪽). 역사적으로 형성된 미국 언론의 객관주의 이념은 ‘진실에 대한 의심’에 기초한 언론 직업의 집단적 대응으로 사후에 정당화 된 것이다. 미국 언론의 객관주의 이념은 언론직역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적 압박으로부터 직역을 보호하기 위해 내부적으로 만들어낸 직업윤리였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것은 리프먼이 말하는 ‘내부자’의 신조, 방법론, 규범 등 어떤 것과도 별로 상관이 없다.

역사적으로 전개한 미국 언론의 객관주의 규범의 형성과정은 많은 연구를 통해 대체로 알려져 있다. 비당파적인 글쓰기, 정치적 논평의 구분, 간결한 사실의 제시, 두괄식 구성 등과 같은 언론의 작업 관행들은 이미 19세기 중반이면 미국 언론의 실천에 등장했고, 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는 신문사도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다(Maras, 2013). 이렇게 되기까지 (가) 전신의 발전에 힘입은 통신사의 성립, (나) 정치적 불편부당성을 이용해서 상업적으로 성공하려는 발행인의 동기, (다) 기자직 경험을 통한 집합적 정체성의 형성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했다.

1890년대 선정적 대중지의 경쟁기를 거치면서 관공서, 노동조합, 기업 등 정보원들이 출입처를 제공하기도 하고, 기자도 분야별로 정보원을 접촉해서 면담하는 취재

14) 당혹스럽게도 마이클 섯슨이 <뉴스의 발견>에 적은 한 문장이 불필요한 오해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다. <뉴스의 발견> 제4장에 등장하는 “리프먼의 저술은 객관주의 언론이념을 위한 가장 정교한 정당화 논리를 제공한다”는 문장이 그것이다. 그러나 섯슨은 재빠르게 덧붙인다. “일상적인 기자들이 아무리 객관성 이념에 헌신한다고 말하더라도 그들이 하는 말이 곧 리프먼이 저서에서 의도했던 바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어진 섯슨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언론인이 사실과 진실을 추구하는 언론의 객관성을 주장함으로써 일종의 ‘규제적 이념’으로 삼아 다짐한다거나 혹은 언론의 사후 정당화를 위한 변명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으로 언론인의 직업적 규범이 완성된다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객관성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절망과 주관성의 위험에 대한 염려가 언론인들이 일상적 실천에 적용해서 실제 사용했던 구체적 격률들을 낳았으며, 그런 격률들의 전체를 ‘언론의 객관성’이라고 불러서 이념화해도 무방하다는 정도로 해석할 수 있다. 이 해석은 이 글의 요점에 닿는 내용이기도 하다.

하는 기법이 자리 잡게 된다. 특히 취재를 통해 현장의 상황을 전하는 보고자와 편집국의 저술가, 그리고 경영을 전담하는 편집자의 역할이 확연히 구분되는 체계를 갖출 때, 언론은 이미 산업이 되었고, 동시에 정치과정에서도 가장 영향력 있는 기구 중의 하나로 자리 잡는다. 언론이 단순히 정보와 오락을 제공하는 사업자 역할을 넘어서 사회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게 누구에게나 명확해졌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언론인의 직업적 규범으로서 객관성을 제도화하기 전에 벌어진 일들이다.

미국 언론이 객관성을 직업적 이념으로 내세우기 시작한 시점은 20세기 초, 즉 리프먼 선회의 시공간이다. 섯슨은 미국 언론에서 객관주의가 이념으로서 등장하고 자리 잡는 과정을 <뉴스의 발명>에서 역사적 서술로 한 번(Schudson, 1978/2019), 그리고 언론직의 규범형성에 대한 이론으로 다시 한 번(Schudson, 2001) 제시했다. 역사적 서술의 요점은 당대 정부와 기업의 선전 체계가 기승을 부리며 기사 쓰기와 지면 편집에 개입하는 가운데, 이들은 자신의 새로운 직역인 언론을 독립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윤리적인 이념체계를 의식적으로 형성하려 했다는 데 있다. 언론의 객관성이란 과학자의 진실추구에 가까운 것이라기보다 뉴스에 대한 개입, 조작, 지배에 대한 저항과 자기 단속의 방책이었던 것이다.<sup>15)</sup>

그 방책이 언론인 직역을 정부 선전이나 기업 홍보에서 일하는 동료들로부터 자기 직역을 구분해서 보호하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났다.<sup>16)</sup> 같은 대학을 졸업하고, 유사한 글쓰기 훈련을 받으며 수습기간을 거쳤고, 심지어 같은 사안에 대해 보고문을 작성해야 하는 직무를 가진 선전과 공보 전문가를 보면서 기자는 과연 자신은 무엇이 다르다고 주장할 수 있는지 실천적 요점을 찾아야 했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해서 쓰고, 인터뷰를 통해 정보를 얻으며, 언론윤리에 대한 자질한 격률들을 모아서 규범으로 공표하는 일이 일어났다. 미국 뉴스편집인협회(ASNE)의 1923년 강령이나 전문언론인협회(SPJ)의 전신인 시그마델타카이의 1926년 강령이 이런 문서들이다. 이런 강령과 구전된 실천 지침에 이름을 붙여 후배 기자들에게는 물론 스스로 기억하고 또한 적용하기 위한 규범으로 삼았는데, 그 규범들을 총괄하는 명칭이 ‘객관성’

15) 당대 미국 언론이 불가능한 객관성을 부정하는 식으로 반응한 것만이 아니었다. 불가피하게 주관성이 뉴스에 개입하는 것을 인정함으로써 뉴스 생산 과정을 통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사실이 중요하다. 예컨대, 기명 기사를 작성하는 관행을 채택하고, 노동, 과학, 보건 등 전문 기사를 도입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해석 보도(interpretive reporting)를 하나의 보도방식으로 인정해서 도입했다는 사실이다(Schudson, 1978/2019, 257-264쪽).

16) 섯슨(Schudson, 2001, p.163)은 서스먼의 1947년 학위논문을 인용해서, 당대 홍보인력 약 600명 가운데 3/4 정도가 기자출신이었다고 밝혔다.



이었던 것이다. 1920년 리프먼이 언론에 대한 환멸로 회귀하는 사이에 미국 언론은 객관성을 이념으로 삼아 의식적으로 직업 이념으로 삼기 시작했다. 당대 언론은 자기 지역의 충실성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언론 지역의 이념을 만들어 나갔다.

## 역사가 반증한 이념

“1930년대에 이르면 객관성은 언론의 전문적 가치로 명료하게 인정되지만, 그것은 만들어지자마자 붕괴하기 시작했다”(Schudson, 1978/2019, 281쪽).<sup>17)</sup> 직업적 규범으로서 성립한 언론의 객관성마저도 성립 초기부터 비판과 성찰의 대상이 됐다. 의견과 사실을 구분하는 게 가능한지, 주관적 해석을 배제한 보고문이 가능한지, 광고와 홍보는 어디부터 기사가 될 수 있는지 고민이었다. 당대 기자들은 기사 작성과 보도에 불가피하게 주관성이 개입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 객관성을 의심하게 된다. 미국 언론의 주류적 전통은 리프먼이 주장했던 ‘정보의 진실성’에 대한 의심과 반발, 그리고 반성을 통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미국 언론에서 ‘객관성 규범’이 지배적인 시기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때는 언론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다. 제2차 세계대전을 치르던 미국은 하원반미활동위원회(HUAC)를 설치해서 파시스트 활동을 감시했는데,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공산주의를 비롯한 반미활동에 대해서도 조사를 계속했다. 냉전에 접어든 국제정치는 내부 정보와 고급 첩보를 가지고도 확인하기 어려운 복잡한 사정 속에서 진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대 언론은 정부당국의 기자회견이나 의원의 의회발언에 담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여 쓰지 않을 수 없었다. 이런 받아쓰기 관행이 결국 미국 언론 최악의 이적색출과 사상통제에 일조한 격이 됐다.

매카시즘 광풍을 겪은 후 미국 언론은 일련의 성찰을 통해 사실과 진실에 대한 비판적 관점을 확립하게 된다. 당대에 매카시 의원의 주장을 처음에는 단순한 우스개거리로 다루거나 아예 무시하기도 했지만 결국 그의 의회발언과 기자회견을 있는 그대로 소개했다는 언론의 자성도 이루어진다. 이런 자성이 가능했던 이후는 미국

---

17) 워드도 같은 관찰을 제시했다(Ward, 2004/2007). 그의 <언론윤리의 재발견>의 제6장은 20세기 언론의 객관주의 성립을 논의하는 데, 첫 절의 제목이 “객관성의 짧은 지배”이다. 객관성은 20세기 초 잠시 지배적이었을 뿐, 바로 탐사보도와 해석보도를 주창하는 언론인들의 도전을 받는 운명이 됐다.

언론이 이미 ‘의원이 말하면 쓴다’거나 ‘정부 회견은 그 자체가 뉴스다’라는 식의 관행에서 떨어진 해석주의 보도관행을 확립하고 있었기 때문이다(Zelizer, 1992, pp.230-231).

매카시즘을 겪은 후에는 특히 언론의 권위란 당대 사건을 충실하게 보도한다는 ‘현장의 권위’에 근거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최초의 관찰에 대해 해석을 통해 바로잡아 보도하는 ‘해석의 권위’에 있다는 점을 자각하기 시작했다(Altschull, 1990/1993, 579쪽). 1960년대에 이르면 미국의 주류 언론은 이미 (1) 정부와 정치인은 뉴스를 경영하고 통제하는 정치적 행위자라는 엄연한 사실, (2) 정부와 정치인은 ‘의사사건(pseudo-events)’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다는 사실, 그리고 (3) 정부와 정치인은 때로 거짓말을 하는 데, 거짓말이 참인 발언과 섞여 있기에 더욱 파괴적이라는 사실을 전제로 삼아 취재하고 보도했다(Schudson, 1978/2019, 306-310쪽).

우리는 미국 언론의 최대 자랑거리가 워터게이트 보도에 대한 반복된 평가적 담론에서 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Schudson, 1992, ch.6, Zelizer, 1993). 1970년대 평가는 익명정보원의 보호에 대한 기술적 논의가 주류였다면, 이후에는 권부를 파헤친 탐사보도의 전형으로, 그리고 끈질긴 탐사보도 기자의 매력으로 회자했다. 탐사보도에 대한 미국 언론의 숭배는 추문폭로 언론의 전통을 적법한 조상으로 삼아 주류 언론의 역사에 추존해 놓았고, 권력비판적인 보도 양식은 베트남 전쟁 보도를 지나며 더욱 강해졌다. 결국 ‘사실이면 뉴스가 된다’는 명제가 아니라 ‘공식적 사실을 의심하라’는 명제가 미국 언론의 실천적 격률로 자리 잡는다. 매카시즘, 워터게이트, 베트남 전쟁보도를 넘어온 미국 언론은 정부를 포함한 어떤 당국이나 당사자의 공식 발언이라도 그것을 제3자 검토, 해석, 분석, 그리고 비판적 논평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일이 오히려 언론의 악덕이라고 간주하게 됐다.

20세기 후반 언론의 자세 변화는 공중의 역량이 강화한 것과 관련이 있다. 미국 언론이 일상적인 사건사고 보도가 아닌 해석과 분석을 곁들인 ‘맥락적 보도’로 변하는 과정은 시민의 교육수준 증가, 대중문화를 통한 비판적 담론의 확장, 그리고 입법활동을 통한 행정부에 대한 투명성 요구의 증가에 힘입은 것이기도 했다(Schudson, 2015, pp. 136-157). 추세로 보면 미국 언론이 점차 맥락적이고 해석적인 보도를 늘려간 사정이 명확하다(Fink & Schudson, 2013). 1950년대 이후 2000년대까지 미국 언론은 점차로 (가) 기득권에 대해 비판적이 되었고, (나) 공격적이며 도적적인 자세를 보이며, (다) 긴 이야기로 승부하고, (라) 단순한 사실보도보다 맥락을 강조하는 기사를 썼다고 한다. 2000년대에 이르면 이른바 해석적이고 사회적

감수성을 자극하는 기사가 전체 기사의 절반을 넘는다.

정리하자면, 역사적으로 ‘언론의 객관주의’란 이념을 형성한 미국 언론마저 리프먼 식의 ‘정보의 진실성’ 이념을 일관되게 추구할 수 없었다. 고독한 팸플릿 출간에 서 시작해서 선정적 대중지끼리 경쟁에 이르기까지, 추문폭로보도에서 탐사보도의 전통을 확립하기까지, 그리고 야심만만한 19세기 발행인의 시대에서 20세기 독과점 언론 집단의 시대에 이르기까지 리프먼 식의 ‘진실한 정보’를 내세운 이념이 언론의 실천을 통해 구현된 적이 거의 없다.

알철(Altschull, 1990/1993, 645쪽)은 20세기 미국 언론사를 정리하면서 현대 미국 언론의 지배적 이념은 오히려 ‘회의적인 적대자(skeptical adversaries)’에 가까울 것이라고 보았다. 권력에 비판적인 언론에게 사실과 진실에 대한 주장은 경계와 의심이 대상이었으며, 사실 주장에 회의적인 언론에게 새롭게 밝혀진 진실이란 언론의 해석적 권위를 되찾을 수 있게 돕는 도구가 된다. 사실과 진실이란 용어는 때로 기자의 합리화 담론에 등장하기는 한다. 사실을 파헤치고 진실을 확립하는데 노련한 탐사보도 전문가들 중에는 때로 ‘진리’를 그들의 작업관행을 정당화하는 윤리적 방어의 맥락에서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Ettema & Glasser, 1998). 그러나 그것은 리프먼이 말했던 언론 비판론이나 사회 개혁론에서 등장하는 과학적 방법론이라기보다 윤리적인 신조를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실로 1920년대 이후 미국 언론인들은 실로 리프먼의 기대를 진지하게 추구한 적이 거의 없으며, 따라서 그의 환멸에 대해 따로 아쉬워할 이유도 없었다.

## 한국 언론의 작은 리프먼들

한국 언론에 작은 리프먼들이 많다. 언론을 개혁한다면서 언론을 혐오하고, 언론 활동의 배경이 되는 공중을 불신한다. 독자와 시청자를 겨냥해서 글을 쓰면서, 독자와 시청자를 믿지 못한다. 실은 리프먼이 되고 싶어도 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되고자 흉내 내는 서글픈 리프먼치기들이 대부분이다. 사실과 진실을 챙기는 것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며, 그래서 뉴스에 가치를 더하기 위해서 별도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애써 부정하는 기자들이다.

복잡한 현장을 누비고, 연속 기사를 때맞춰 달고하는 기자들은 알고 있다. 하나의 사건의 범위 내에 사실들은 차고 넘친다는 것을. 그 사실 중에 일부가 의미 있는

사실이며, 그 의미는 해당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 따라 뉴스로서 가치가 달라지는데, 그런 가치를 평가해서 기사로 만드는 일이야말로 언론인의 고유한 자유에 속한다는 것을. 좋은 뉴스란 언제나 사실에 대한 참된 명제 이상의 내용을 담는다. 그것은 뉴스의 편집과 편성에 따라 달라지는 형식과 양식의 요구를 따르기 마련이며, 무엇보다도 당대 뉴스 이용자에게 감동을 줄 수 있도록 주의 깊게 선택되고 또한 다듬어진 사실에 기초한 내용을 담게 된다.

이용자의 관점에서 보아도 마찬가지다. 이용자가 뉴스를 접할 때 일단 사실에 부합한 내용을 담았다고 간주하게 된다. 그러나 ‘사실에 대한 참된 진술’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는 일이 이용자 언론 경험의 전부가 아니다. 이용자는 뉴스가 모든 사실에 대한 참된 명제를 담은 것도 아니고, 심지어 참인 명제라도 불공정하거나 사악한 의도를 담을 수 있고, 참인지 아닌지 알 수 없는 애매한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중요한 뉴스가 된다는 것쯤은 짐작하고 있다.<sup>18)</sup> 요컨대, 아무리 사실에 충실한 참된 뉴스라 해도 얼마든지 불공정하거나 저질일 수 있다. 반대로 아무리 세련되고 불평부당하게 만들어진 기획보도라 할지라도 의심스러운 사실 주장을 포함할 수 있다.

뉴스 이용자도 알고 있는 ‘사실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요점을 기자와 편집자가 모를 리 없다. 바로 이 때문에 나는 ‘사실 충분성의 원칙’을 신조로 삼는 기자들이 일종의 도그마에 빠졌다고 보는 것이다. 도대체 모를 수 없고, 모든 채마저 하기조차 어려운 요점을 한국의 기자들은, 그리고 일부 언론학자들은 진정 모른다는 듯이 부정하려 한다. ‘팩트’는 뉴스의 한 재료일 뿐, 뉴스의 전부가 아니며, 훌륭한 뉴스의 가장 좋은 부분은 더욱 아니라는 이 요점을 말이다.

이미 50년 전 언론직역을 탐구한 사회학자 게이 터크만(Tuchman, 1978)은 기자가 사건의 전개에 따라서, 자신이 쓸 뉴스의 장르에 따라서, 그리고 자신의 일정에 맞춰서 어떻게 사실을 선택하고, 재단하고, 재구성해서 그럴듯한 이야기로 만들어 내는지 고찰했다. 그녀는 기자들이 사실들을 재료로 삼아 뉴스를 분류하는 방법이 분석적인 ‘범주화 기법’이 아니라 일종의 ‘전형화 기법’이라는 점을 밝혔다. 사건 발생의 속성에 따라, 의외성과 예측가능성에 따라, 그리고 기자의 제작 일정에 따라 한

18) 역사적으로 이렇지 않은 적이 있을까. 1640년대 영국의 정기간행물 언론이었던 ‘뉴스책’들은 이미 ‘진실’, ‘충실성’, ‘불편부당성’, ‘사실관계’, ‘정보제공’ 등의 윤리적 용어를 동원해서 정치와 외교 사안을 독자에게 전했는데, 당대의 이른바 ‘교양있는 독자들’은 언론을 통해 같은 사안에 대해 정부관료, 성직자, 과학자 등이 논쟁하는 모습을 보면서 뉴스가 주관적이고, 당파적이고, 편파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파악할 수 있었다(Ward, 2004/2007, 163-171쪽).

사건은 단신이 되기도 하고, 연속 보도의 일부가 되기도 하고, 심층 취재감이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사실이란 실은 보도자료, 취재자료, 인터뷰, 공식 통계 등 다양한 원천을 가지며, 뉴스라는 이야기 형식에 하나의 요소로 잘 들어맞는 것이어 한다. 사실이 곧 뉴스가 되는 것이 아니라 뉴스 구성 부분 중 어떤 것은 사실적이어야 한다는 뜻이다.

사실만으로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자명한 명제를 정당화하기 위해 오래된 뉴스의 현상학으로 돌아갈 필요도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훌륭한 기사들은 아무리 봐도 사실에 대한 참된 명제를 문장으로 만들어 이어 붙인 것 이상의 성취물이기 때문이다. 기사의 훌륭함은 사회적 기능에 있고, 주제의 중요성에 있고, 구성의 짜임새에 있고, 묘사의 절묘함에 있고, 이야기로서 전개와 반전에 담겨 있다. 사실이란 좋은 저널리즘의 재료일 뿐, 홀도 관도 아니다. 한국 언론은 사실을 보도했다는 식의 사소한 성취에 만족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애초에 사실 확인만 해도 뉴스가 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보도할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된다는 식의 자기기만에서 깨어나야 한다. ‘사실 충분성의 원칙’을 도그마로 삼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 참고문헌

- 강명구, 양승목, 엄기열 (2001). <한국 언론의 신뢰도>. 한국언론재단.
- 강준만 (2017). <저널리즘 여론 민주주의>. 전북대학교출판문화원.
- 김경모, 박재영, 배정근, 이나연, 이재경 (2018). <기사의 품질>. 이화여자대학교출판문화원.
- 김위근, 안수찬, 백영민 (2018). <한국의 언론신뢰도: 진단과 처방>. 한국언론진흥재단.
- 이재경 (2008). 한국의 저널리즘과 사회갈등: 갈등유발 저널리즘을 극복하려면.  
커뮤니케이션 이론. 4(2), 48-72.
- 이준웅 (2010). 한국 언론의 경향성과 이른바 '사실과 의견의 분리'. 한국언론학보, 54(2), 187-209.
- 이준웅 (2022). 민주화 이후 한국언론의 과제: 불신과 언론개혁. 송호근 편. <시민정치의 시대> (313-363쪽). 파주: 나남.
- 임상원 (2017). <저널리즘과 프래그머티즘>. 파주: 나남.
- 차배근 (2014). <미국신문발달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Altschull, J. H. (1990). From Milton to McLuhan: The ideas behind the American journalism. Allyn & Bacon. 양승목 역. <현대언론사상사>. 나남.
- Ettema, J. S. & Glasser, T. L. (1998). Custodians of conscience: Investigative journalism and public virtue.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 Fink, K. & Schudson, M. (2013). The rise of contextual journalism, 1950s-2000s. Journalism. 15(1), 3-20.
- Lebovic, S. (2016). Free speech and unfree news: The paradox of Press Freedom in America.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 Lippmann, W. & Merz, C. (1920). A test of the news: An examination of the news reports in the New York Times on aspects of the Russian Revolution of special importance to Americans March 1917-March 1920. A supplement to the New Republic (No. 296).
- Lippmann, W. (1914/1917). Drift and mastery: An attempt to diagnose the current unrest. New York: Henry Holt and Co.
- Lippmann, W. (1920). Liberty and the News. New York: Harcourt, Brace and Howe.
- Lippmann, W. (1922/1991). Public opinion.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Lippmann, W. (1925/1993). The phantom public. New Brunswick, NJ: Transaction Publishers.

- Maras, S. (2013). Objectivity and journalism. Cambridge, UK: Polity.
- Mindich, D. T. Z. (1998). Just the facts: How objectivity came to define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NYU Press.
- Mott, F. L. (1962). American journalism. 3rd Edition. New York: The Macmillan Company.
- Schudson, M. (1978/2019). Discovering the news: A social history of American journalism. New York: Basic Books. 박경우, 여은호 역, <뉴스의 발견>. 커뮤니케이션북스.
- Schudson, M. (1992). Watergate in American memory: How we remember, forget, and reconstruct the past. New York: Basic Books.
- Schudson, M. (2001). The objectivity norm in American journalism. Journalism 2(2), 149-170.
- Schudson, M. (2015). The rise of the right to know: Politics and the culture of transparency, 1945-1975. Cambridge, MA: Belknap.
- Steele, R. (1980). Walter Lippmann and the American century. Boston: Little Brown.
- Tuchman, G. (1978). Making news: A study in the construction of reality. New York: Pres Press.
- Ward, S. J. A. (2004/2007). The invention of journalism ethics. McGill-Queen's University Press. 이은택 역. <언론윤리의 재발견>. 에피스테메.
- Zelizer, B. (1993). Journalism as interpretive communities. Critical Studies in Mass Communication, 10(3), 219-2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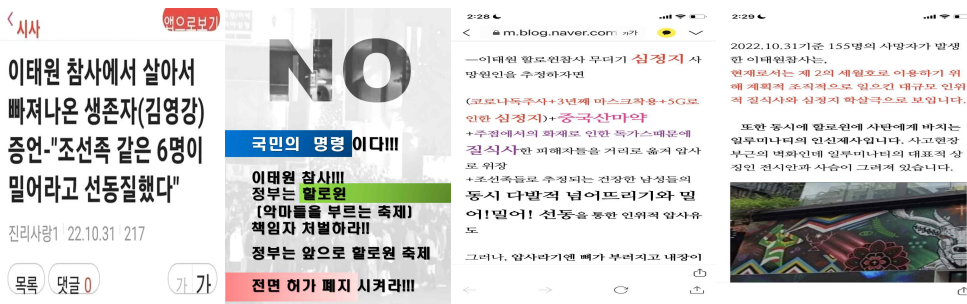
## ‘한국언론의 도그마: 사실 충분성의 원칙’

권혁률 교수

(성공회대, 전 NCKK 언론위원장)

### 1. 들어가는 말

이태원에서 비극적 참사가 발생한 시점에 이 글을 준비하는데 조금 전 카톡방에서 읽은 글들이 뇌리에서 떠나지를 않는다. 카카오톡과 페이스북, 트위터 등 소셜미디어들은 이미 우리 사회에서 전통적인 신문과 방송 등의 레거시미디어 못지않게, 아니 그 실제적 영향력 측면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언론의 기능을 감당하고 있다. 그런데 전혀 사실이 아닌 글들이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특히 장노년층과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 이를 사실이라 믿고-아니 실제로는 믿지 않아도 자신의 정치적 취향에 맞는 글이기에-지인들에게 파도타기식으로 건너 건너 전파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분위기를 더욱 증폭시키려는 듯 전광훈은 “이태원 참사는 북한 공작”이라는 주장을 내놓고 펼치기까지 하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특정 정치적 성향을 가진 이들과 장노년층,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퍼지고 비록 소수이기는 하지만 신문과 방송의 보도보다 이런 ‘가짜뉴스’를 더 믿는 사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오늘 이 자리와 같은 논의의 필요성을 확인시켜주고 있다.

## 2. 한국 언론의 현실

언론 쪽을 보더라도 자기 환멸과 연민이 대단하다. 각자 열심히, 때로는 과도하게, 취재와 보도에 매진하건만, 우리 기자들은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없다. 기자 개인이 갑자기 무능하거나 파렴치해진 것도 아니고, 편집국과 경영진에 어떤 파멸의 음모를 꾸미는 악당이 있는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자 집단의 효능감은 떨어지고, 편집국은 방향 감각을 놓치며, 언론사 경영진은 항상 예전만 못하다고 자책한다. 언론은 스스로 격려하고 존중하던 자존의 감각마저 잃은 듯 보인다.

기조강연문의 첫 쪽에 있는 이 문장을 읽는 순간, 논찬자가 평생 몸담았던 언론사를 퇴직할 무렵 후배들과 이야기를 나눌 때 들은 푸념이 생각났다. “선배, 요즘 우리들은 기자가 아니라 포털에 뉴스라는 이름의 읽을거리를 제공하는 콘텐츠 공급자가 되어버린 것 같아요”라는 뉘즈리였다. 기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SNS를 뒤져 파워트위터리안의 말 한마디를 소개하는 5분짜리 기사가 닷새간 아니 한 달간 공을 들인 기획기사보다 100배, 천배의 주목을 받는 미디어 현실에 대한 자조감이 의욕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이미 포털 위주로 재편된 언론환경 속에서 기자들은 보도자료를 받아쓰거나 정치인들의 발언이나 유명인사들의 SNS에서 손쉽게 기삿거리를 찾게끔 길들여져가고, 같은 내용이어도 남들보다 1초라도 빨리 포털에 전송해 포털의 앞순위를 차지하는 것이 업무의 최우선적 과제가 되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다. 이렇다 보니 취재원의 발언이나 주장을 제대로 점검할 시간을 갖기는커녕, 타자 속도를 경쟁해야 하는 현실에 내몰리는 것이다.

한국 언론의 현실을 논하는데 갑자기 100년 전 미국의 언론 현실을 소환하는 것이 처음에는 다소 뜬금없고 의아하게 느껴졌다. 하지만 이준웅 교수의 기조강연 원고를 읽어가면서 논찬자의 가슴이 뛰기 시작하였다. 이 글은 100년 전 미국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의 한국 언론 현실을 지칭한다는 안타까움이 밀려들어왔기 때문이다.

이준웅 교수는 리프먼과 머즈가 1917년 3월부터 3년간 러시아 혁명 과정을 보도한 기사 약 3천5백 건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소개하고 있다.

첫째, 정부 발표나 정치 지도자의 발언이라고 해도 사실인 것은 아니다. 이런 발언은 오히려 특수한 목적에 따른 의견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것을 인용한다고 해서 믿을 만한 뉴스가 되는 것은 아니다. 둘째, 공직자나 당국에 속한 익명의 정보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특별히 정보원의 신뢰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실명을 억지로 밝힐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정보원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한다.

위의 인용문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미디어비평 칼럼에 인용한다면 독자들은 어떻게 이해할까? 바로 지금, 즉 오늘날 한국의 언론 상황에 대한 따끔한 충고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사실 확인도 되지 않은, 아니 어떤 경우에는 이미 확인된 사실과도 배치되는 정치인이나 준정치인 정치평론가의 일방적 발언과 SNS를 그대로 인용 보도하고, 익명의 그늘에 숨어 고위 관계자나 소식통이라는 이름으로 특정 방향으로 여론을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태에 뉴스보도라는 명분으로 동조하는 현실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19세기 말 세계 최고의 신문의 도시라 할 수 있는 뉴욕에서 최대 부수를 자랑하던 <월드>와 <저널>은 대표적인 ‘이야기’ 중심의 언론이었다. 신랄한 정치적 논평을 제공하면서 동시에 도시 범죄와 정치적 스캔들을 쉬운 문장과 삽화를 활용해서 전달하는 데 능했다. 대중지가 아닌 잡지와 팜플렛도 이야기에 논평을 더해서 제공하는 의견의 제공자로 변성했는데, 실로 당대의 언론이란 그렇게 이야기와 의견을 수집해서 전달하는 사업이라고 말할 수 있을 정

도였다.

<뉴욕타임즈>는 당대의 주류 언론과 자신을 구분하면서 새로운 유형의 언론으로 떠올랐다. 품위 있게 정보를 제공한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즉 그럴듯한 ‘이야기’와 통찰력 있어 보이는 ‘의견’에 집중한 당대 주류 대중지와 잡지와 차별화된 편집 전략을 도입했다. 다른 뉴욕의 대중지와 마찬가지로 일전신문(the penny press)으로 출발했지만, 1896년 새 발행인이 들어선 뒤 독자적인 편집 노선을 선택한 이 신문은 정확한 내용을 품위 있는 문체에 담아 전달하는 방식으로 거대 대중지와 경쟁하게 된다. 19세기 말 뉴욕에서 <타임즈>는 ‘이야기’와 ‘논평’을 전하는 언론이 아닌 ‘정보’를 제공하는 언론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이 부분을 읽으며 든 느낌은, 지금 한국의 대다수 언론은 130년 전 미국의 <월드>와 <저널>처럼 자신의 성향과 다른 정치세력에 대한 신랄한 논평과 함께 사건사고와 정치적 스캔들에 대해 자극적이고 흥미 위주로 전달하는 데 치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자괴감이었다. 이런 언론환경 속에서 등장한 <뉴욕타임즈>가 정확한 내용을 품위 있는 문체에 담아 전달하며 언론의 전형으로 자리매김한 것처럼 우리 언론도 이제는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정파적 흥미 위주 기사 대신 ‘정확한 내용’과 ‘품위’를 담은 기사를 전하길 바란다.

### 3. ‘사실 충분성’ 도그마에서 벗어나기, 그리고 ‘사실 충분성’에 충실하기

리프먼이 언론에 대한 환멸로 돌아서는 사이에 미국 언론은 ‘언론의 객관성’으로 도피처를 찾았으나, 이는 급속히 무너지게 되었다고 한다. ‘객관성’을 내세워 정당 당국의 기자회견이나 의원의 의회 발언에 담긴 내용을 ‘사실’로 인정하며 보도하는 ‘받아쓰기’ 관행이 매카시즘 확산에 일조하였기 때문이다.

결국 ‘사실이면 뉴스가 된다’는 명제가 아니라 ‘공식적 사실을 의심하라’는 명제가 미국 언론의 실천적 격률로 자리 잡는다. 매카시즘, 워터게이트, 베트남 전쟁보도를 넘어온 미국 언론은 정부를 포함한 어떤 당국이나 당사자의 공식 발언이라도 그것을 제3자 검토, 해석, 분석, 그리고 비판적 논평이 없이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일이 오히려 언론의 악덕이라고 간주하게 됐다.

지금 한국 언론은 미국 언론이 일찌감치 탈피한 '객관성'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괴감이 든다. 여와 야의 주장, 영향력 있는 특정인의 발언을 분석과 평가 없이 그대로 전달해주면 된다는, 이른바 '사실이면 뉴스가 된다'는 안일함에 빠져있다는 느낌이다. 진OO같은 사람들이 SNS에 휘갈긴 한 마디 의견이 왜 포털의 메인에 걸리고 온 국민이 알아야 하는지, 방송마다 양쪽 특정 정당에 속한 인물이 나와 자신의 주장과 해설을 쏟아내고 정작 해당 현안에 대해 깊이 있게 취재하고 해설해야 할 기자들은 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한 이 인물들의 논쟁과 주장을 단순히 받아쓰기해서 기사로 작성하는 아이러니컬한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그런 의미에서 이준웅 교수의 결론을 무겁게 되새겨본다.

한국 언론은 사실을 보도했다는 식의 사소한 성취에 만족하는 버릇을 버려야 한다. 애초에 사실 확인만 해도 뉴스가 된다는 믿음에서 벗어나야 한다. 사실에 충실하면 그것으로 보도할 이유가 되고 변명이 된다는 식의 자기기만에서 깨어나야 한다. '사실 충분성의 원칙'을 도그마로 삼는 자세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국의 모든 언론인이 깊이 명심해야 할 말이다. 그러나 동시에, 지금 대다수 우리 언론은 '사실 충분성'의 도그마에서 벗어나야 함과 함께 전제조건인 '사실 충분성' 아니 그 이전에 '기계적 균형'에조차 충실하지 못한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불편한 현실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논두렁 시계' 보도에서 드러난 사실 외면 오보를 비롯해 조국 전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해 쏟아진 보도의 분량과 관심에 비해 김건희 여사의 허위경력 논란에 대한 우리 언론의 보도 태도가 너무도 분명히 대비된다는 주장에 대해, 또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와 윤석열 정부의 공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검증 보도가 지나치게 차이가 크다는 주장에 대해, 산업재해 등 노동 현안에 대해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 주장을 각기 보도하는 균형이 무너진데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비판 기사의 충실하지 못한 '팩트'에 대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물론 이런 지적이 우리 언론의 '사실 충분성'에 대한 도그마를 부정하는 것은 당연히 아니다. 지금도 우리 언론은 여전히 특정인의 선동적인 SNS 내용을 아무런 여과 없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다. 정부 발표, 특히 검찰 등 수사기관의 발표, 아니 비

공식적 귀띔조차 맹목적으로 ‘사실’로 간주하며 보도하는 도그마적 행태도 반복되고 있다. 여야 정치인들의 기자회견이나 주장을 ‘사실’로 간주하며 무비판적으로 보도하는 도그마적 행태도 계속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 한국 언론은 ‘사실 충실성’에 더욱 충실하면서 동시에 ‘사실 충실성’ 도그마에서 벗어나야만 하는 이중의 과제를 안고 있다 할 것이다.

#### 4. 나오는 말

이준웅 교수는 주로 레거시미디어의 현실에 기반을 두고 발표를 준비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이 실제로 접하는 미디어 환경은 신문과 방송만이 아니다. 카톡과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하루하루, 아니 순간순간 접하는 인터넷매체 기사와 유튜브 방송, 심지어 출처 불명의 주장 등은 우리 국민들의 인식에 레거시미디어 못지않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이 교수의 한국 언론 현실에 대한 뛰어난 지적에 적극 공감하면서 동시에 소셜미디어에 난무하는 ‘가짜뉴스’에 대해서도 우리의 관심이 필요함을 추가하고자 한다.<sup>19)</sup> 기조강연을 통해 소개된 대로 리프먼은 언론 개혁론에 대한 ‘낙관주의’에서 불과 2년 만에 ‘회의론’을 거쳐서 다시 3년 뒤 ‘암울한 비관론’으로 변했다고 한다. 우리도 1987년 민주화대투쟁의 성과로 언론의 자유를 만끽하게 되면서 언론에 대한 낙관주의가 팽배하였고 논란자도 이때 언론에 투신하였다. 그러나 10여 년 후인 1999년 네이버와 다음 같은 포털이 등장하고 이들이 급속도로 언론환경을 지배하게 되면서 언론에 대한 회의론이 대두하였고 2011년 종편채널이 등장하고 유튜브 등 소셜미디어가 활개를 치면서 급기야 ‘암울한 비관론’이 지배하게 되었다.

따라서 한국의 미디어 환경이 ‘암울한 비관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실 충분성’에서 벗어나고 동시에 더욱 ‘사실에 충실하고자 하는 노력’과 ‘균형감각의 회복’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 복합적 상황에 직면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런 언론환경을 감시하고 개선을 독려해나가는 사회적 노력, 언론소비자의 자각이 더욱 절실하다.

마지막으로, 서론에 언급한 것과 같은 ‘가짜뉴스’가 횡행하는 우리 현실에 대해,

---

19) 물론 레거시미디어가 ‘가짜뉴스’에서 자유롭다는 뜻은 당연히 아니다.

특히 기독교인들에게 당부하고 싶다. 기독교 언론학자들은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하나님과 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단절된 사건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뱀이 유포한 가짜뉴스에 아담과 하와가 속아 넘어가면서 벌어진 사건인 것이다. 지금 우리를 유혹하며 분열과 갈등,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고 있는 가짜뉴스에 또다시 속아 넘어가지 않도록 지혜와 분별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에덴동산에서 뱀이 전해준 가짜뉴스를 믿고 행동한 하와와 같은 어리석음을 우리가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분명한 것은 가짜뉴스는 십계명 위반이라는 사실이다. 가짜뉴스 생산자든 유포자든 "네 이웃에 대해 거짓증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배하는 일이다. 가짜뉴스가 창궐할수록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요 8:32)는 말씀 위에 굳건히 서고자 하는 지혜와 노력이 더욱 절실한 것은 바로 그 때문이다.

## 한국 사회 정세 변화와 기독교 가짜뉴스 동향

변상욱 대기자

(전 YTN 앵커, 국민대학교 특임교수)

### 1. 한겨레 신문의 3단 연결망 정리에 따른

#### 개신교 가짜뉴스 배포망 동향

- 이슬람 무슬림 공격
  - 종교인 과세
  - 유럽 난민 폭력
  - 동성애.에이즈 사회에 범람, 수간도 우려돼
  - 지방분권 후 고려연방제 좌파.공산당 득세
- ( 작성자 아닌 유포 채널 )

1. 지지스온리/마라나타티비 등 활동 없는 채널 다수
2. 성경 해설 등 종교성만 유지 - 여호와로이티비 등
3. 정치사회 이슈 축소
4. 전광훈, 안희환 등 리더급 채널은 정치 이슈 여전히 강해
5. 자체 내분, 여권과의 결별 등 상호 비방 콘텐츠 늘어

\*\*\* 요약 정리 \*\*\*

- 보수 집권으로 진보 진영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줄어들  
문재인 정부 규탄 비난하는 각종 정보나 뉴스의 전파  
불필요해지면서 활동 소강상태 내지는 휴면 상태.
- 전 정권 비리척결 수사 정국이 확대되면 재등장 가능
- 반공,좌파척결은 특정 유튜브채널 통해 지속
- 동성애 반대 이슈는 아직 평등법 제정 문제가  
남아 있고 다수당이 민주당이어서 격렬한 편
- 증발된 이슈 중 가장 큰 것은 코로나 19백신.무슬림.난민 이슈
-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된 위기 강조 내용은  
예상 외로 적어 ... 남북긴장, 위기감에 대한 책임을  
결국 현 정권이 짊어지게 됨으로 인한 소극적 대응인 듯
- 유럽 발 가짜뉴스 줄고 미국 발 가짜뉴스 비중 커져
- 북한 핵과 미사일, 한일관계에 대한 가짜뉴스가  
앞으로 변화 클 것으로 예상
  
- 정치사회적 이슈를 망라해 다루던  
주요 유튜브 채널들은 기독교 내부적 이슈를  
근본주의적 시각에서 다루는 쪽으로 선회  
동성애 차별금지법 교육과정 개정 등 일부 주장 외  
특별한 가짜뉴스 발견되지 않음.
  
- 코로나 19 팬데믹을 소재로 독재나 통제 비난하던  
가짜뉴스도 사라짐 (지금도 백신과 마스크 유지)
  
- 전광훈 씨 측은 국민의힘과 연계되지 않아  
비난하고 있는 중  
10.10 자유통일주사파 척결 국민대회 열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 국민의힘 장악해버리자는 불평 나와



**\*\* 민주당이 교회폐지법을 추진한다는 가짜뉴스가  
최근 가장 활동력 가진 가짜뉴스**

의원 명단 79명 그리고 항의 전화번호 공개  
(총선을 겨냥해 지역구 출마 야당의원들에 대한  
공격용 교두보로 해석됨)  
“ 항의가 많아지자 철회했다 한다  
.... 다음에 명단을 기억했다가  
표를 안 주었으면 한다.”

**\*\*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드 차원의 뉴스 등장**

MBC 허가 취소에 동참 촉구  
법안이 마련됐고 전화로 서명체크하라 독려

**\*\* 차별금지법 반대 서명 .. 전화로**

이 법 통과되면 기독교 전도를 못하게 된다고 주장

**\*\* 2022 교육과정 개정 놓고 이념 갈등에 주목하고 있어**

- 기독교유튜브 중 음악 채널이 가장 강세  
그 다음은 우익보수 채널
- 우익 보수 채널 ... shorts 활용 돋보여

**\*\*\* 주요 유튜브 채널 동향 \*\*\***

**1. 에스더기도운동 (7만8천)**

- 대한민국 공산화 저지  
북한지하교회 돕기/ 이스라엘 품기  
차별금지법 제정위기

## 2022 교육과정 정상화

### 1. khtv 가짜뉴스 아닌 집회 토론회 현장 소개.중계 중심

- 동성애 퀴어축제

교육부 교육과정 개정 (이념.페미교육/좌편향왜곡)

평등법 반대 집회

---> 윤석열 정부 들어 활발해진 보수집회를

적극 소개하는 쪽으로 변화

### 1. 마라나타TV(9만)

- 7년 환난 시작 경고

한국 교회 하나님 경고

### 1. WORLD ALL TV (10만6천)

- MBC .. 괴벨스 조작

안정권 옥중서신

광우병 뺑 치더니 윤석열 쌍욕 뺑

문재인 체포 촉구집회 실황

### 1. FTNER (15만)

(이전) 통제사회 본격화 정부에 타협하는 교회 (9개월 전)

한국 사회 침투한 주사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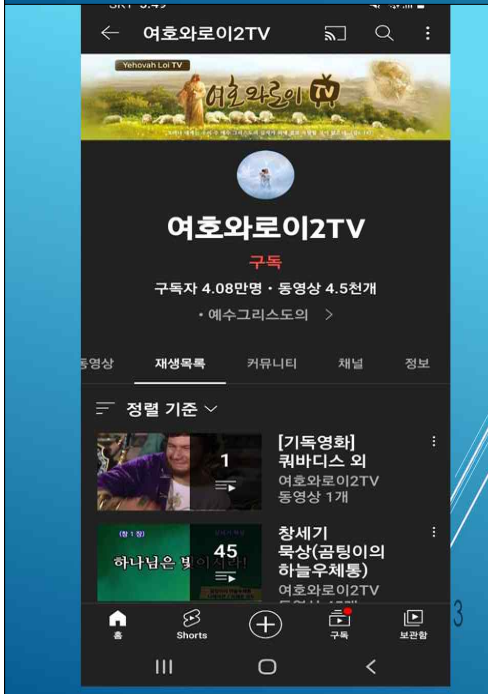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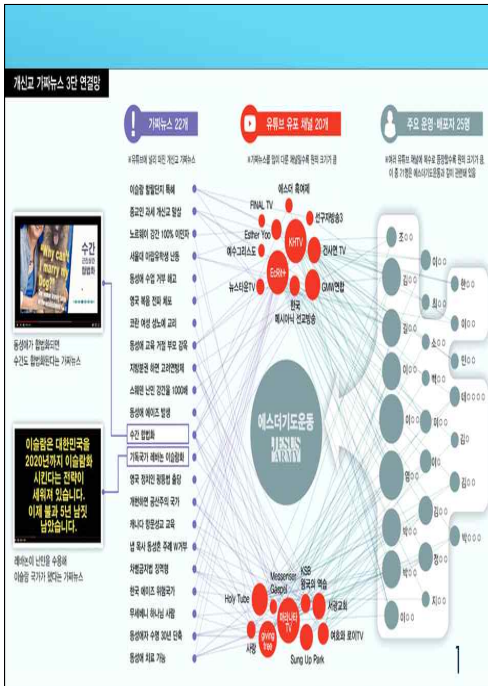
코로나 이후 나타날 말세 징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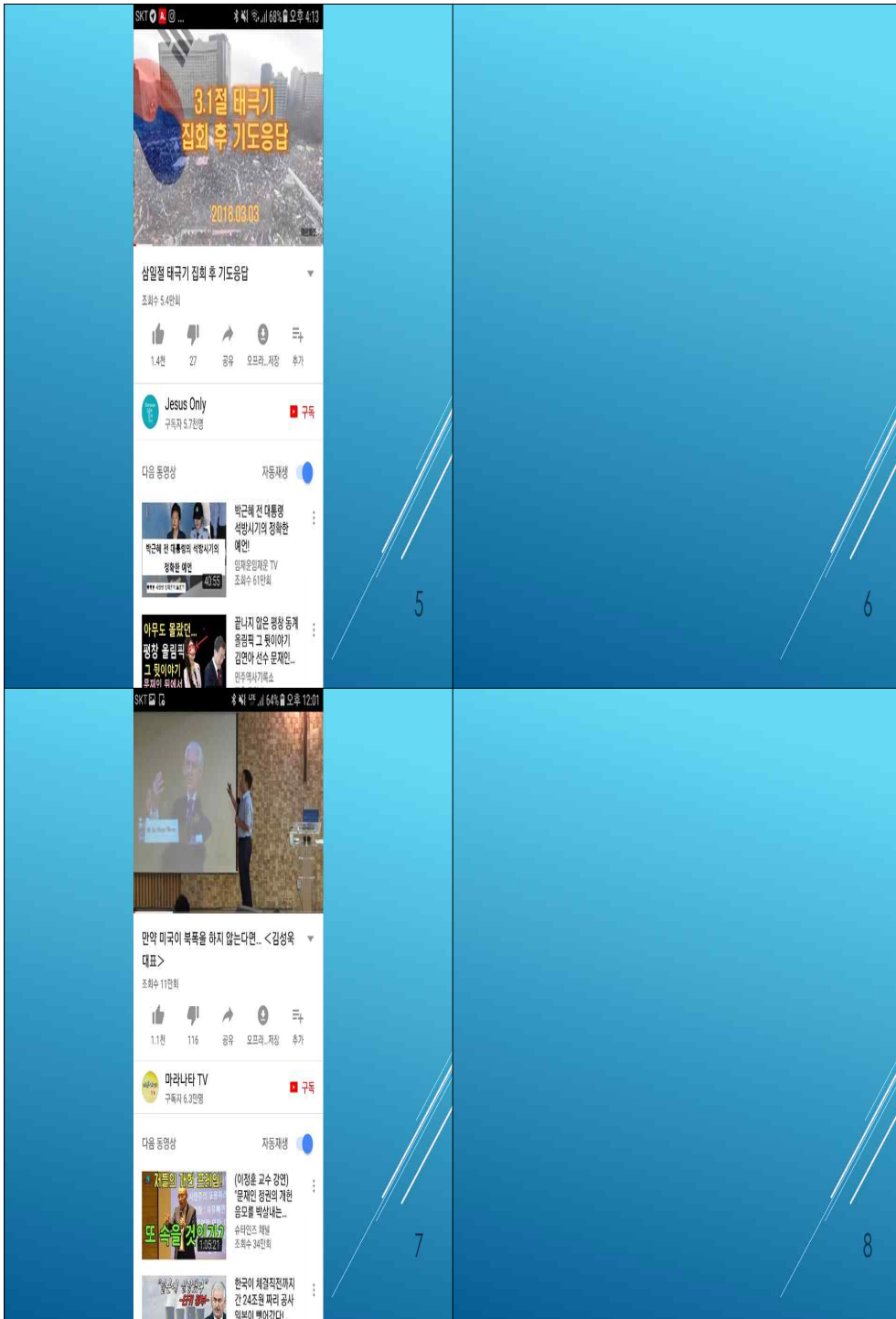
--->

(현재) WCC 반대 WCC 지지한 문재인.목회자 규탄

경제기근과 지구기후 종말

차별금지법 반대





# 이 영상을 보고도 WCC와 WEA, NCCK에 침묵한다면 당신은 가짜 입니다!

3:57

FTNER  
이것을 보고도 WCC와 WEA,  
NCCK에 침묵한다면 당신은...

FTNER · 조회수 7.4만회 · 2년 전

For The Never Ending Revival  
종교가 없는 세상을 위하여

FTNER  
ministry

## FTNER

구독

구독자 15.3만명 · 동영상 1천개  
'FTNER(에프티너)' 채널은 'FOR THE NEVER-  
ENDING REVIVAL'의 약자로 '끝나지 않는 부흥...

[귀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시리...

**꼭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과 마르  
틴루터, 마이클 조 건양역 사제  
1:24:07

[마지막 영상입니다 :  
꼭 보십시오!...]  
FTNER  
조회수 1.7만회 · 2일 전

[귀 있는 자는  
깨달을 진저! 5-1]...  
FTNER  
조회수 12만회 · 9개월

### [화요철야모임]

이영희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한  
한국 교회의 역할  
FTNER  
1:54:07  
조회수 1.3만회 · 스트리밍

이호 목사님이 말씀하는  
마르쿠스와 성령의  
그리고 차별금지법  
FTNER  
57:51  
조회수 6.6만회 · 스트리밍

북한 동포들을 위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FTNER  
1:23:35  
조회수 9.4만회 · 스트리밍

WCC에 상을 준  
문재인이 예수회와...  
FTNER  
1:15:08  
조회수 5.7만회 · 2년 전

### [한국교회에 침투한 주사파 세력...]

공산주의의 실제 3강 :  
문재인을 옹호하...  
FTNER  
1:11:46  
조회수 9.1만회 · 3년 전

지금 싸우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잃는다  
26:02  
FTNER  
조회수 4.2만회 · 3년 전

공산주의의 실제 1강 :  
지금 싸우지 않...  
FTNER  
조회수 4.2만회 · 3년 전

공산주의의 실제 2강 :  
기독교에 침투한...  
FTNER  
53:06  
조회수 27만회 · 3년 전

교회를 다녀도  
그들을 지지한다...  
FTNER  
8:48  
조회수 17만회 · 3년 전





← 너만몰라TV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

♥ 아성한복사취임예배  
업데이트: 5일 전

대한민국, 변화의 힘  
**10.10 국민대회**  
광화문 이슴만광장  
27

10월10일 광화문 국민대회  
업데이트: 3일 전

대한민국, 변화의 힘  
**10.3 국민대회**  
광화문 이슴만광장  
36

2022.10.3일국민대회  
업데이트: 5일 전

17

안희환tv4

구독자 2.42천명  
동영상 432개  
구독

지만원박사에게 돈 주고도 얻어터진  
전광훈. 비참한 인생이다/...  
안희환tv4 · 조회수 2.1천회 · 4일 전

8:02

7:08

18

Shorts

전광훈 집단은  
피디수첩이  
무서운듯....  
조회수 5.3천회

기자보고 못된  
애네. 쫓아내. 역시  
전광훈/...  
조회수 1.9천회

10월 16일 안희환 광화문 광장에  
설교. 기가 막힌 선물입니다/...  
안희환tv3 · 조회수 3.1천회 · 3일 전

6:49

19

S우림과둥뭍

구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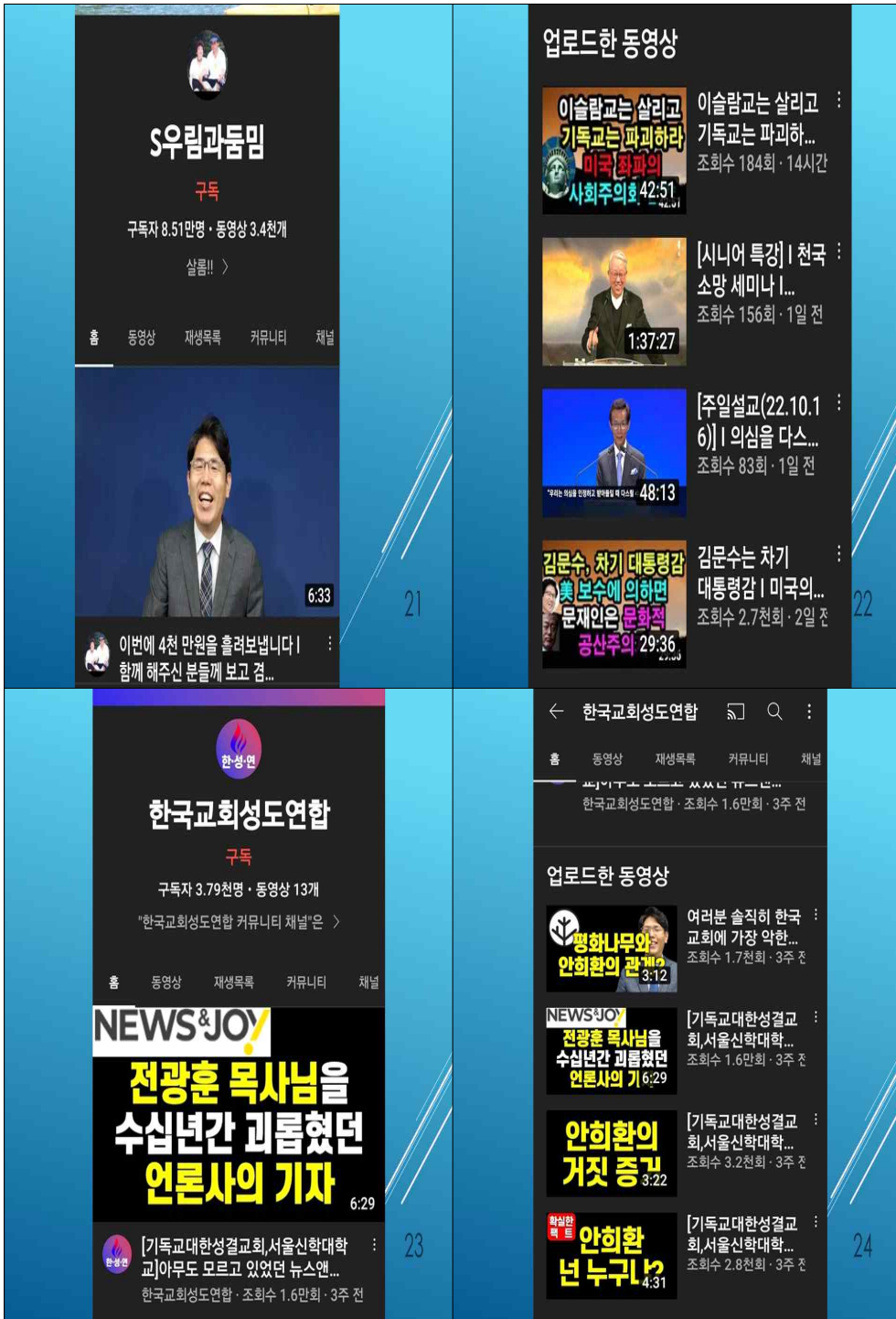
구독자 8.51만명 · 동영상 3.4천개  
살롱!! >

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

이번에 4천 만원을 흘려보냅니다!  
함께 해주신 분들께 보고 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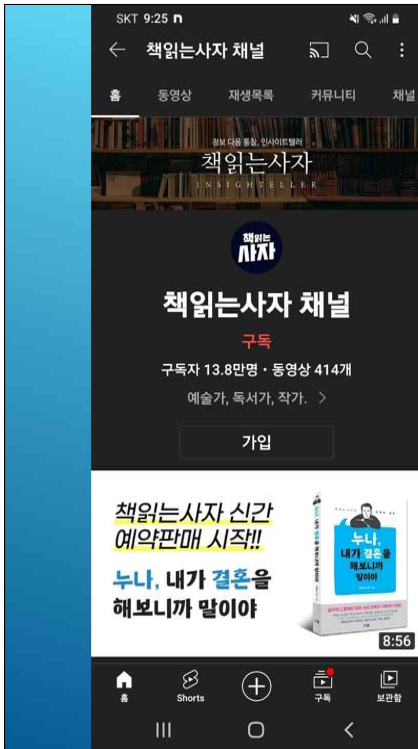
6:33

20





<div data-bbox="300 231 600 627">  <h2>내정신</h2> <p>구독</p> <p>구독자 7.34만명 · 동영상 948개</p> <p>이 채널명 '내정신'은 '내 정금같은 신앙'의 약자입니다. 어떻게 순수성, 무구성에 이를수...</p> <p>가입</p> <p>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p> </div> <div data-bbox="300 633 600 973">  <p>너무 잘 믿으려고 하지마세요! - 김진홍목사 [내정신]</p> <p>내정신 · 조회수 2.5만회 · 11개월 전</p> </div>	25	<div data-bbox="791 276 930 426">  <p>사회주의화</p> <p>5:48</p> </div> <div data-bbox="934 276 1085 417"> <p>걱정돼요! 우리 사회의 '사회주의'...</p> <p>내정신</p> <p>조회수 1.3만회 · 11개.</p> </div> <div data-bbox="791 452 930 602">  <p>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p> <p>3:16</p> </div> <div data-bbox="934 452 1085 593"> <p>[책소개] 작은 꿈을 위한 방은 없다...</p> <p>내정신</p> <p>조회수 5.2천회 · 1년 전</p> </div> <div data-bbox="791 627 930 778">  <p>목사의 최고 덕목은 이것입니다...</p> <p>2:46</p> </div> <div data-bbox="934 627 1085 768"> <p>목사의 최고 덕목은 이것입니다...</p> <p>내정신</p> <p>조회수 7.8천회 · 1년 전</p> </div> <div data-bbox="791 803 930 954">  <p>WCC는 적그리스도인가...</p> <p>5:08</p> </div> <div data-bbox="934 803 1085 944"> <p>WCC는 적그리스도인가...</p> <p>내정신</p> <p>조회수 1만회 · 1년 전</p> </div>
<div data-bbox="300 977 600 1400">  <h2>바이블 쉽터TV</h2> <p>구독</p> <p>구독자 1.21천명 · 동영상 85개</p> <p>바이블 쉽터TV &gt;</p> <p>홈 동영상 재생목록 커뮤니티 채널</p> </div> <div data-bbox="300 1406 600 1665">  <p>이제 내가 살아도</p> <p>3:50</p> </div>	27	<div data-bbox="791 977 930 1128">  <p>무자비한 숙청과 공포정치의 레닌</p> <p>11:45</p> </div> <div data-bbox="934 977 1085 1118"> <p>무자비한 숙청과 공포정치의 레닌</p> <p>조회수 460회 · 10개월</p> </div> <div data-bbox="791 1143 930 1294">  <p>철저한 반공주의자 대한민국 건국...</p> <p>8:21</p> </div> <div data-bbox="934 1143 1085 1284"> <p>철저한 반공주의자 대한민국 건국...</p> <p>조회수 335회 · 10개월</p> </div> <div data-bbox="791 1300 930 1450">  <p>빨치산 총사령관 이현상의 최후</p> <p>9:51</p> </div> <div data-bbox="934 1300 1085 1441"> <p>빨치산 총사령관 이현상</p> <p>조회수 5.8천회 · 11개.</p> </div> <div data-bbox="791 1456 930 1607">  <p>간첩 성시백</p> <p>6:34</p> </div> <div data-bbox="934 1456 1085 1597"> <p>간첩 성시백</p> <p>조회수 884회 · 11개월</p> </div> <div data-bbox="791 1613 930 1763">  <p>풍요와 번영을 이룩한 위대한...</p> <p>9:17</p> </div> <div data-bbox="934 1613 1085 1754"> <p>풍요와 번영을 이룩한 위대한...</p> <p>조회수 1.3천회 · 11개.</p> </div>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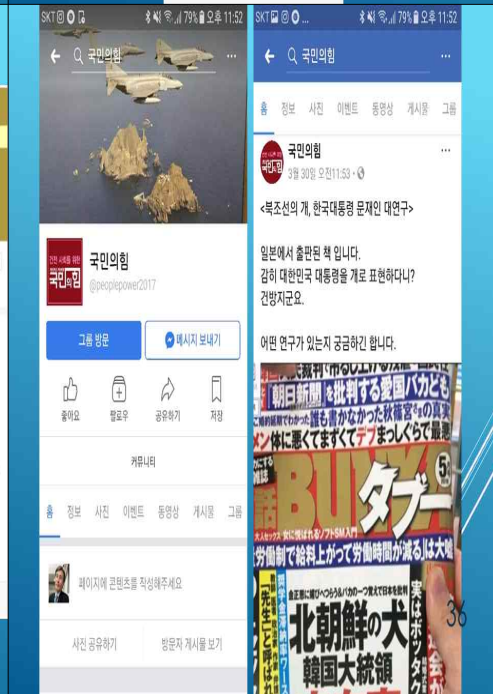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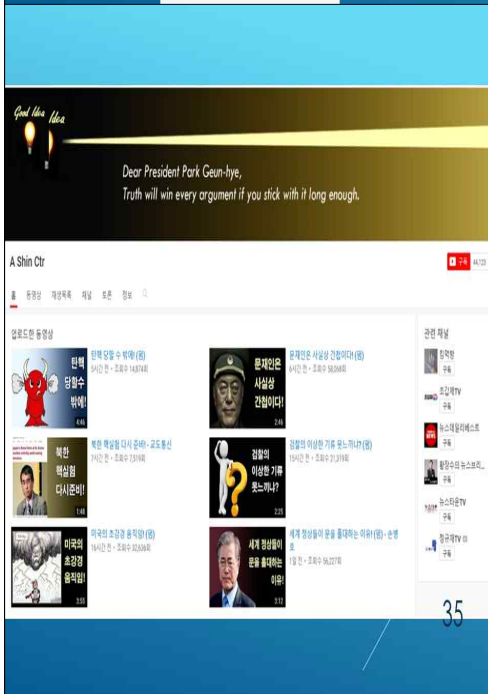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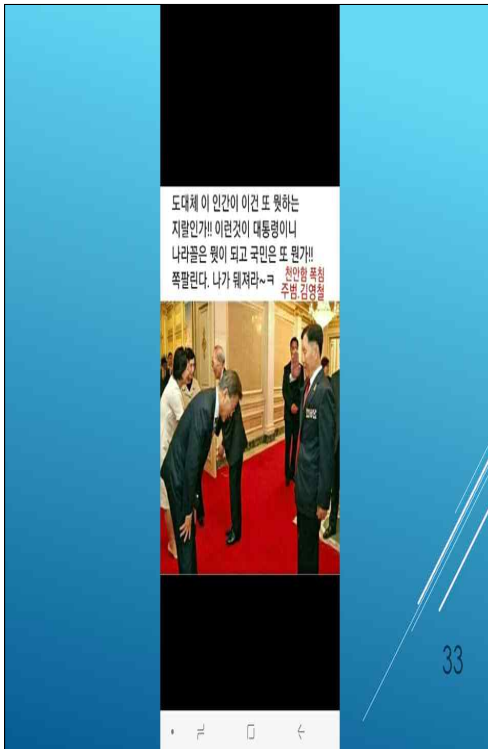
30



31



32





37



38



39



40

## 기독교 소식

### 김승규 전 국정원장 "기독교를 모욕하는 배후세력을 알아보니"



열사데이

2009.12.10. 14:48

\* 원문보기

### 김승규 "기독교를 모욕하는 배후세력을 알아보니"

(다음은 지난 12월 3일 서울대 기독교동문모임에서 김승규 전 국정원장의 총괄적 강연을 요약한 내용이다. 수백억 수 천억을 들어 교회를 건축해 놓아도 교인이 없으면 남재이다. 청소년들이 노는 인터넷에서 기독교에 공격적 환경을 만들어 놓지 못하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암담하다. 청소년들의 생각을 도둑질하는 사이버 테러범을 잡는 '기독교 변론 특공대'를 만들 목자들은 어디에 있는가)

#### 기독교를 '개독교'라 부르며 유린하는 사이버세력들

제가 수년간 공개심대를 보고 한국교회가 내리막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대학생의 4% 공동체 3.3%가 신자이고 절대적으로 교인수가 감소하고 출산율이 낮습니

### × 김승규 전 국정원장 "기독교를..."

누가 기독교를 공격하나 알아보니 첫째 이슬람 5인이 매일 전문적으로 분석 공격하며 둘째 동성애자들이 성경을 공격하고 세번째로 단월드가 엄청나게 기독교를 해방하고 있고, 친북좌파, 개인적 원한을 가진이들, 무속인들.. 이들이 그룹이 되어 같은 목소리를 내어 공격하고 성경 19금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곡시켜 나쁜책이므로 읽으면 안 된다고 선포합니다.

성경가운데 "나를 위해 가정과 전도를 버리면 복을 받는다", "장예들을 끌어내는 구약이야기", "아이성을 무자비하게 진 열했다"... 등을 곡해 해석하여 성경을 욕하는 겁니다.

300여명이 매일 그날의 이슈를 만들어 기독교를 공격합니다. 다음(daum.net) 사이트는 마치 기독교인들을 유린하는 해방구 같습니다. 이에 반하여 기독교는 겨우 5명이 저임금으로 일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슬람 세력이 20만명이 있으나 40만명만 되면 교회가 골짜기를 못한다. 외국인의 경우를 보아 작은 수로 몹시 시달린다. 다수 유권자로 정치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면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계 무슬림이 15억 2천만명으로 최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이주노동자가 13만명인데 이들을 치밀하게 관리 선교하는 단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대적합니다. 그들의 머리에 든 생각을 바꾸려면 성경의 강력한 능력을 힘입어야 한다. 한국인 선교사 80명을 이슬람 지역에서 쫓아내고 반대로 한국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200개 교단으로 분열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1

42

작성일 2016.08.19 조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 반기독교 대응팀 운영 제한

회 수:182

국동방송교계뉴스 2016. 8. 19. (금)

김승규 전 국가정보원장은 어제 제주도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3차 한국기독교실업위원회 한국교회'에서 한국교회에 대해 반기독교 대응팀 운영을 제안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5년마다 실시하는 인구조사에 따르면 한국교회 성도수는 1995년 876만 명에서 2005년 861만 명으로 감소했고 교회학교는 10년간 34%나 줄었다"며 "이는 이단이 개신교 성도들을 쫓고 사이버 공간에서 교회에 대한 공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 전 원장은 "5년 전 사이버 공간을 조사했는데 신천지는 별도의 막강한 동영상 제작팀이 있었고 불교에도 인터넷 포교사라는 이름으로 50여명이 활동했다"며, "한국교회도 사이버상의 기독교 공격에 긴밀하게 대처할 대응팀을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로고스 변호사인 김 전 원장은 법무부 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을 역임한 뒤 온라인에서 한국교회를 음해하는 이들을 제지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Facebook Twitter Youtube 이계  
시흥을

43

"안티는 인터넷 상주 인원만 300명, 기독교 논객은 1명"

있는 김승규 변호사(장로)가 최근 한국교회에 점점 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안티기독교' 문제에 대해 적극적 대응을 요청했다. 그는...

2011.6.4. 크리스천투데이

"한국교회, 반기독교 세력 사이버 공격에 무방비"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김승규 장로는 지난 7~8일 경북 상주 BTJ열방센터에서 한국교회, 세력, 특별히 인터넷 사이버 세계를 통한 안티 기...

2016.11.12. 국민일보

"선교사들, 과거 아닌 미래 믿음으로 바라보는 사람"

2일간 상주 열방센터에서 개최됐다. 목회자 7백여 명 등 1천여 명이 참석한 이번...동아시아 A국 교회 지도자 C목사, 김승규 장로(전 법무부...

2016.11.9. 크리스천투데이

이미지

44



[illegible]

"Let My People Go!" 2018 여름 JESUS ARMY					
2018. 7/14(토)~7/15(일)   주일 특별찬양 수요일   문의: 02-711-2648					
3월(토)	4월(사)	5월(목)	6월(토)	7월(토)	
8:30			영광찬양 (목)	찬양	영광찬양 (목)
				찬양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2 영광찬양 2 영광찬양 2	영광찬양 3 영광찬양 3 영광찬양 3	영광찬양 4 영광찬양 4 영광찬양 4	영광찬양 5 영광찬양 5 영광찬양 5	영광찬양 6 영광찬양 6 영광찬양 6
	영광찬양 7 영광찬양 7 영광찬양 7	영광찬양 8 영광찬양 8 영광찬양 8	영광찬양 9 영광찬양 9 영광찬양 9	영광찬양 10 영광찬양 10 영광찬양 10	영광찬양 11 영광찬양 11 영광찬양 11
12:00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1:00	영광찬양 12 영광찬양 12 영광찬양 12	영광찬양 13 영광찬양 13 영광찬양 13	영광찬양 14 영광찬양 14 영광찬양 14	영광찬양 15 영광찬양 15 영광찬양 15	영광찬양 16 영광찬양 16 영광찬양 16
	영광찬양 17 영광찬양 17 영광찬양 17	영광찬양 18 영광찬양 18 영광찬양 18	영광찬양 19 영광찬양 19 영광찬양 19	영광찬양 20 영광찬양 20 영광찬양 20	영광찬양 21 영광찬양 21 영광찬양 21
4:00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6:00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7:00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영광찬양 (목)

[illegible][illegible]

## 에스더기도운동

7월 10일 오후 1:24~3

[이스라엘 선교학교(23기)에  
초청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장, 눈동자!  
이스라엘은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며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 보기



**이스라엘 선교학교**  
7/11(수)~13(금)

대 성: 이스라엘 성도 관심있는 성도들, 기도원/교회, 기도소/교회  
일 시: 2023. 7. 11(수)~13(금)  
장소: 온라인(가짜사) 23기  
주최: (주)에스더 140-000-7000 (서울 / 부산지부)

7/11(수)	7/12(목)	7/13(금)
2시	이스라엘의 역사와 문화	이스라엘의 정치와 사회

###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강사 프로필

“강사 사진을 클릭  
하시면 세부 프로그램을  
볼 수 있습니다”

session 1	session 2	session 3
 김종국 대표 전 부총장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신원호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김정민 대표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 기독교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7월 20일부터 22일까지 전국교회를 초청합니다!  
일시: 2023. 7. 20(목)~22(토) / 장소: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습니다!”**

- 1차: 7월 20일(목) 14:00~16:00 / 1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2차: 7월 21일(금) 14:00~16:00 / 2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3차: 7월 22일(토) 14:00~16:00 / 3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4차: 7월 23일(일) 14:00~16:00 / 4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5차: 7월 24일(월) 14:00~16:00 / 5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6차: 7월 25일(화) 14:00~16:00 / 6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7차: 7월 26일(수) 14:00~16:00 / 7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8차: 7월 27일(목) 14:00~16:00 / 8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9차: 7월 28일(금) 14:00~16:00 / 9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10차: 7월 29일(토) 14:00~16:00 / 10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11차: 7월 30일(일) 14:00~16:00 / 11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12차: 7월 31일(월) 14:00~16:00 / 12차 주제: 한국교회 미래


# 동성애 대책 아카데미

일시: 2017. 2. 20(월) 오후 10시~22(수)날 12시  
장소: 백석대학교(백산)


“국내 최초의 동성애 문제에 대해 아카데미”

“국내 최초 동성애 전문 강사진 강의”

“강사들의 강의 경험과 강의 자료 제공”



한국교회동성애대책위원회(한동부 대표회장 소경석 목사)에서는 다음달 20일 오후 10시부터 22  
일 날 12시까지 중남 원전사 동남부 문공로 백석대학교에서 기독교 동성애대책 아카데미를 열  
다.



참가는 강유구 전 법무부장관, 상임성 소경교도회장, 김원준 신학교 이사장, 박종민 한성회 신학교  
이성훈 교수, 조영일 안드레아 홀로미니스트, 박영진, 이종필, 허스키, 조준환 대표, 정인섭 수문장요

**대표**  
이억주 목사(교회) 안동환 대변인, 김범(대학교 교수)

**실행위원**  
김규호, 김승규, 김세준, 김성범, 안동환, 이억주, 이영철, 이종현, 정경철

**운영위원/가나디순**  
김규호 목사(기독교 사회책임 사무총장)  
김세준 정보(팀앤원 이사, 출판목회교회장로)  
안동환 목사(한가을 정보보안위원장, 사단법인 [한국물민 이사]  
이억주 목사(교회) 안동환 대변인, 김범(대학교 교수)  
정경철 목사(사단법인 국제교육원 이사)

**전문위원/가나디순**  
김성욱 기자(김범 드 대표)  
안동환 목사(한가을 정보보안위원장, 사단법인 [한국물민 이사]

**사무국장**  
조선헌 목사

**홍대원 간사/가나디순**  
박미자  
박연미  
신국선  
이경선  
이수진  
이름식  
정인우  
정승연  
정지혜

54

한국인터넷신문간사등록번호 <http://cckk.pkr.or.kr/interanet/1111>

안평은 전도사업이 눈물로 기도하며 할만  
있습니다.

요청합니다.

! 수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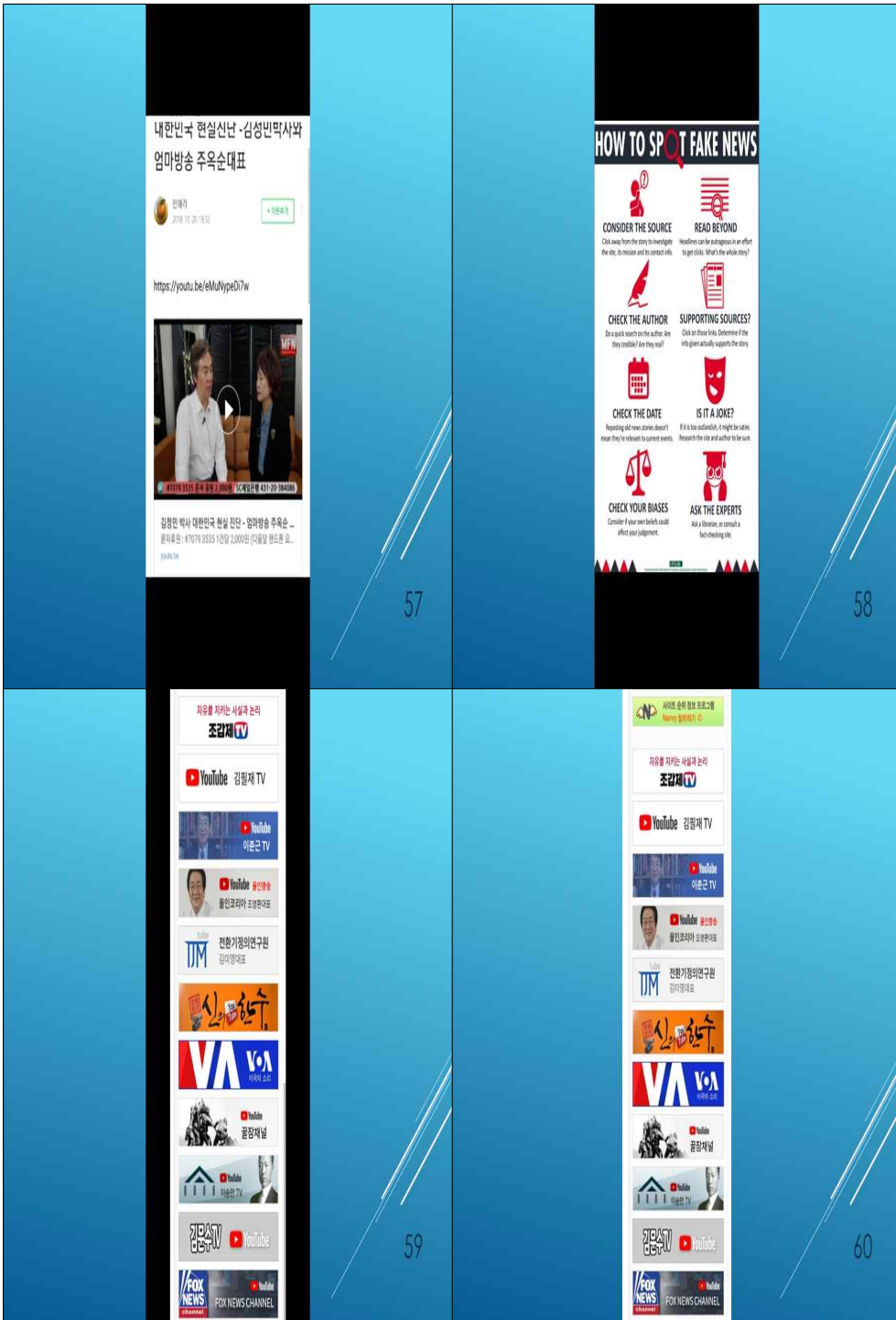
다.

목을 들고 무성새벽에 아함하며, 구걸적 변변  
반목하며 전전수호를 내세우며,  
는 견습고 변호사 군단에서 몰래, 깃발과 작로  
나 구걸하는 유약한 전술로 완연하며 해니  
이 돌변한 해심 지휘부에는 더 이상 기대

선두들과 친선공격로  
성도들을 분별케 하고, 깨어있는 성도와 예  
구면을 전향하고 반전시켜야 합니다.

55





 <p>61</p>	 <p>62</p>
<p><b>조선 &lt;박 대통령 지지율 68.5% 청와대도 놀랐다&gt;</b>  <b>조선 &lt;문 대통령 지지율 62%, 취임 이후 최저치&gt;</b></p> <p><b>중앙 &lt;62%가 무능오만이면 11%는 뭘까&gt;</b>  <b>중앙 &lt;가라앉은 경제지표, 차갑게 식는 국정 지지율&gt;</b></p> <p><b>동아 &lt;박 대통령 지지율 61% 2년차로는 역대 최고&gt;</b>  <b>동아 &lt;문 대통령 지지율 60% 취임 이후 최저&gt;</b></p> <p>63</p>	 <p>64</p>

오류 하루 이창 없지 않음. [보기]

**배미를 19금 지정 속주 위해 1,000만원 시연돈통**

«리얼리티 장르는 어린이들에게 적합 않다»

배우고의 경진 배미를통 속 유아에 할 특종 후라고의 경진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배미를통을 가져가서 유아에 촬영(리얼리티 아바) 테스트 촬영과도 우물대는 배우고의통도 많음이다. 그 책을 유아에 통다 주자하여 어린이들 중에는 배미 사적으로 통상하고 알려진 사람도 많음이다.

그들은 배미를통을 보며 자기 하고서 그런 일들을 할거요?

특히, 친한친한 어린이들이 유아에 출연한 일들은 통통을 담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있을거요?

그러나, 배미통(Bibim)은 아예 글자만 함부로 사용하지  
마침내, 사람이 없지 않는 자를 통통이서 영혼의 이를 끝내, 신은하라는  
의학과 자취를 보며 오는 우리들에게 **의식(의식)을** 일깨워 줄 것이다.

여기에서, 배미통(배우고)의 실제 내용을 보자. 가차만 한시 통통이 나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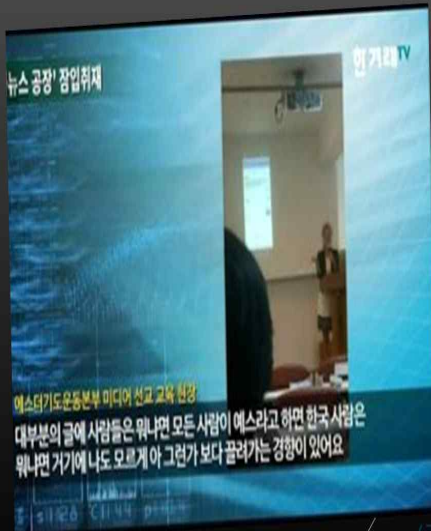
(1) [연호와 가리사리]  
[연호 통통, 해 지리나, 해 풀의 아내나, 나그네와 함께 가는 친구가 나를 피어 이르기,  
해 열조(조산)가 영차 후화한 다른 신통, (다들)연호의 사들음  
우리가 가서 생기가 활기차고 너는 그를 통통, 통통, 통통, 통통, 통통, 통통, 통통, 통통,  
해석의 여가(가리)를 달고 살기 시작, 너는 해와 함께, 그를 통통,  
그는 - 네 신통! 연호에서에서 나를 피어 보자. 하러가는 지리나 너는 '통로 처 죽이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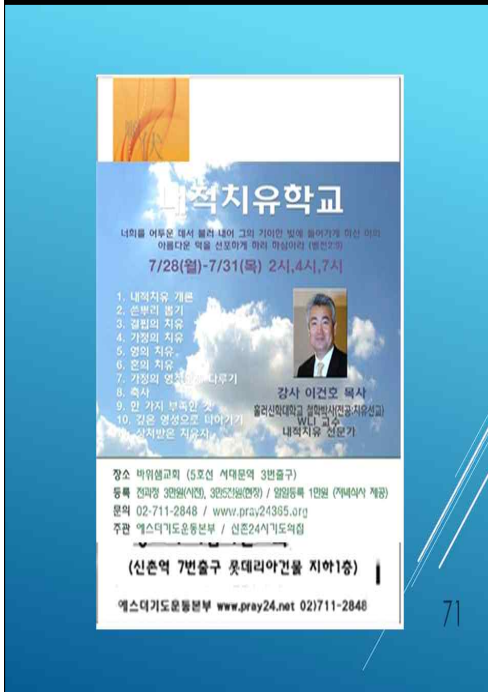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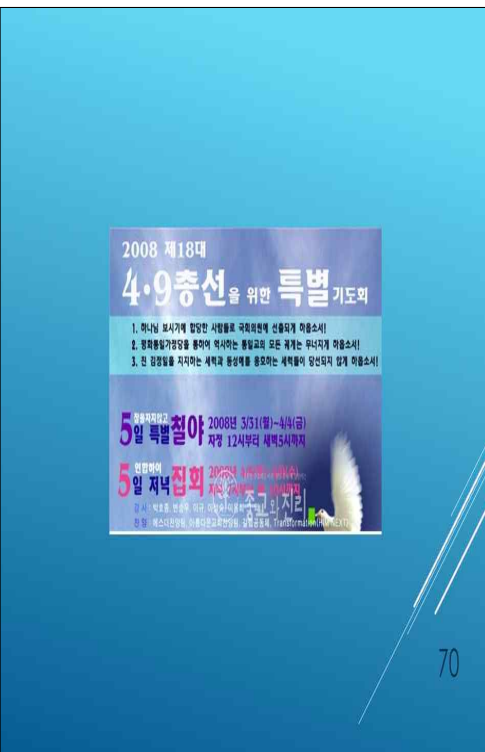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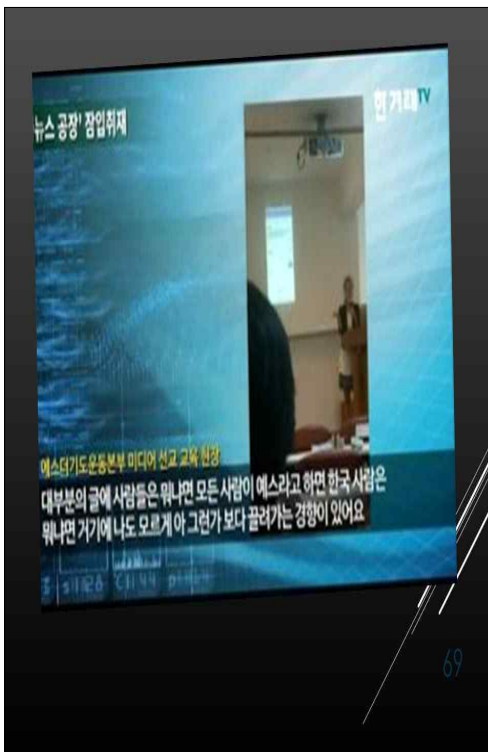
(신통과 136~11)

\* 해호(해수) 위해 다른 신통(의)을 가지고 파는 사람이 있으면,  
\* 육체변호선 선택 -  
\* 자의신호선 변호를 일깨워주시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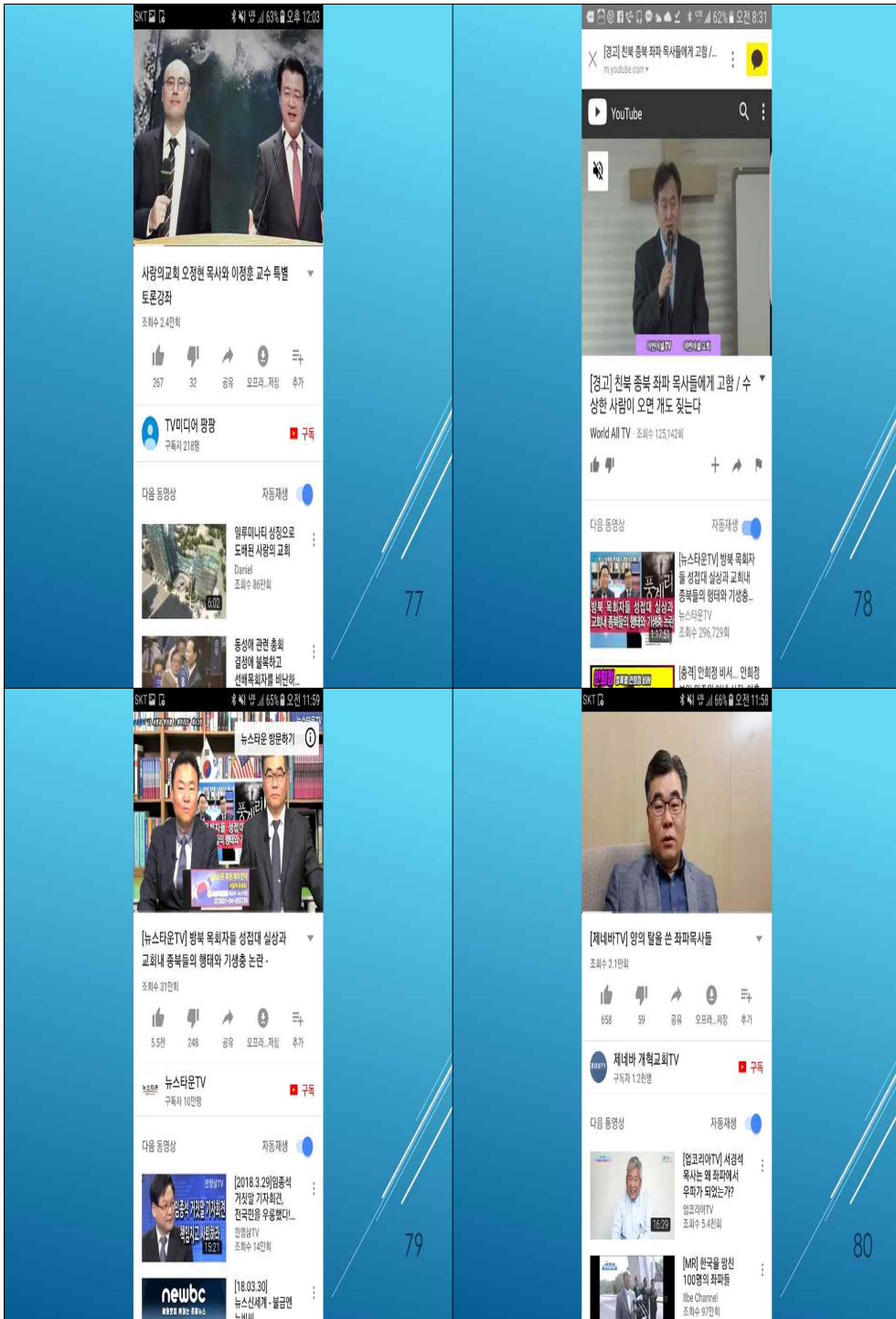
6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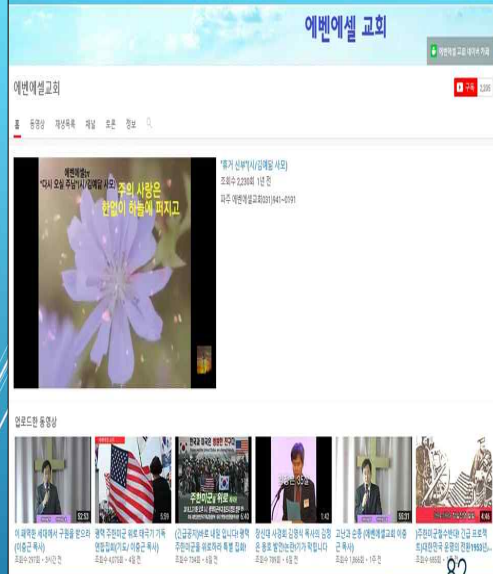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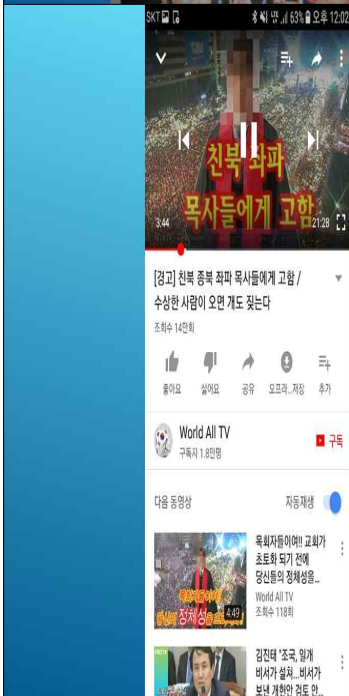




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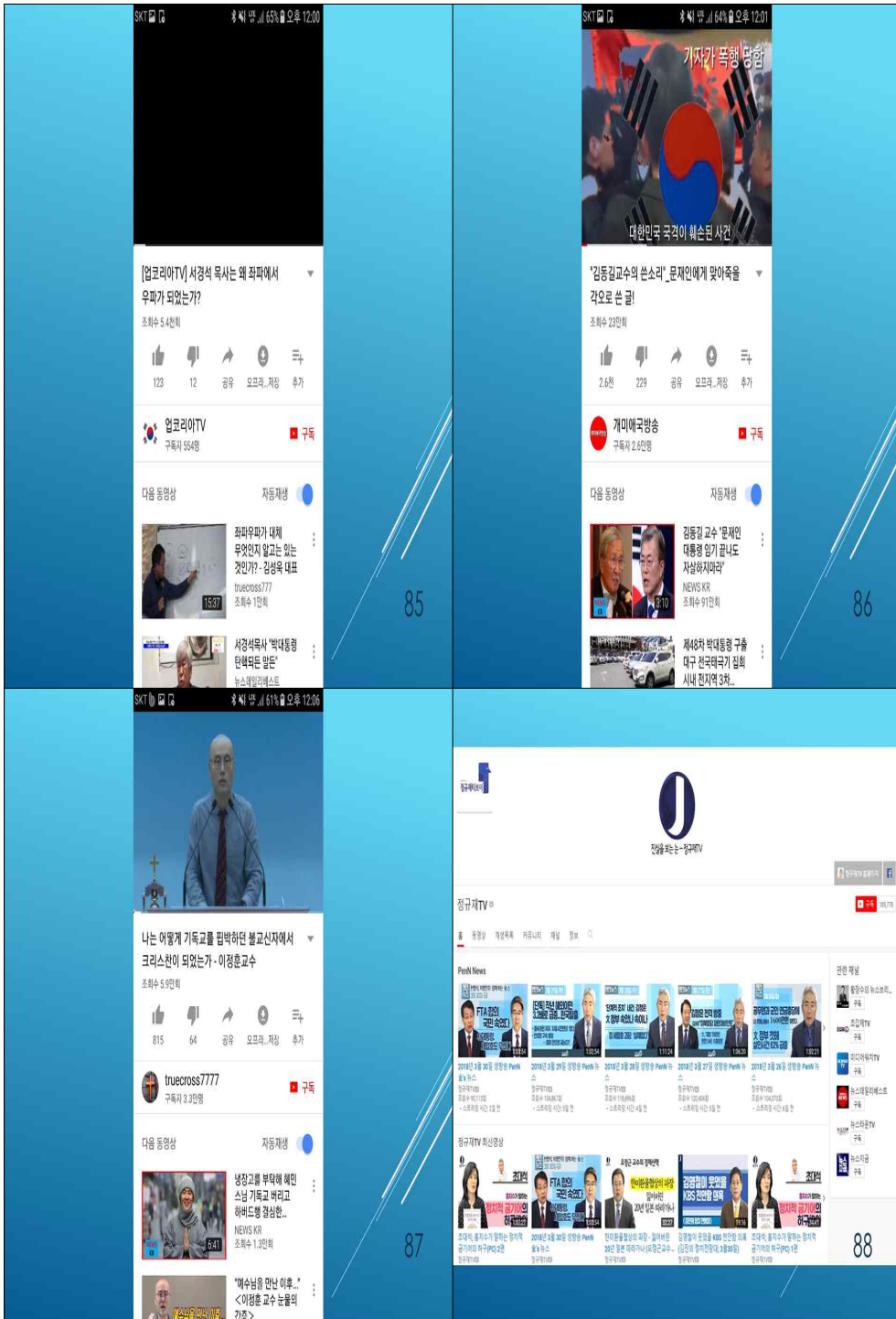
82



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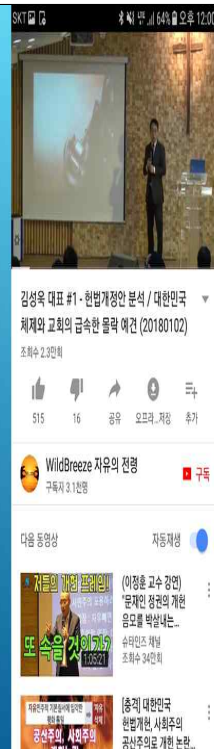
8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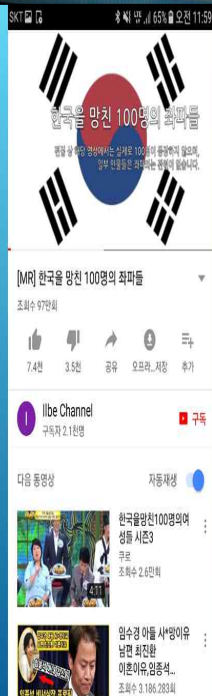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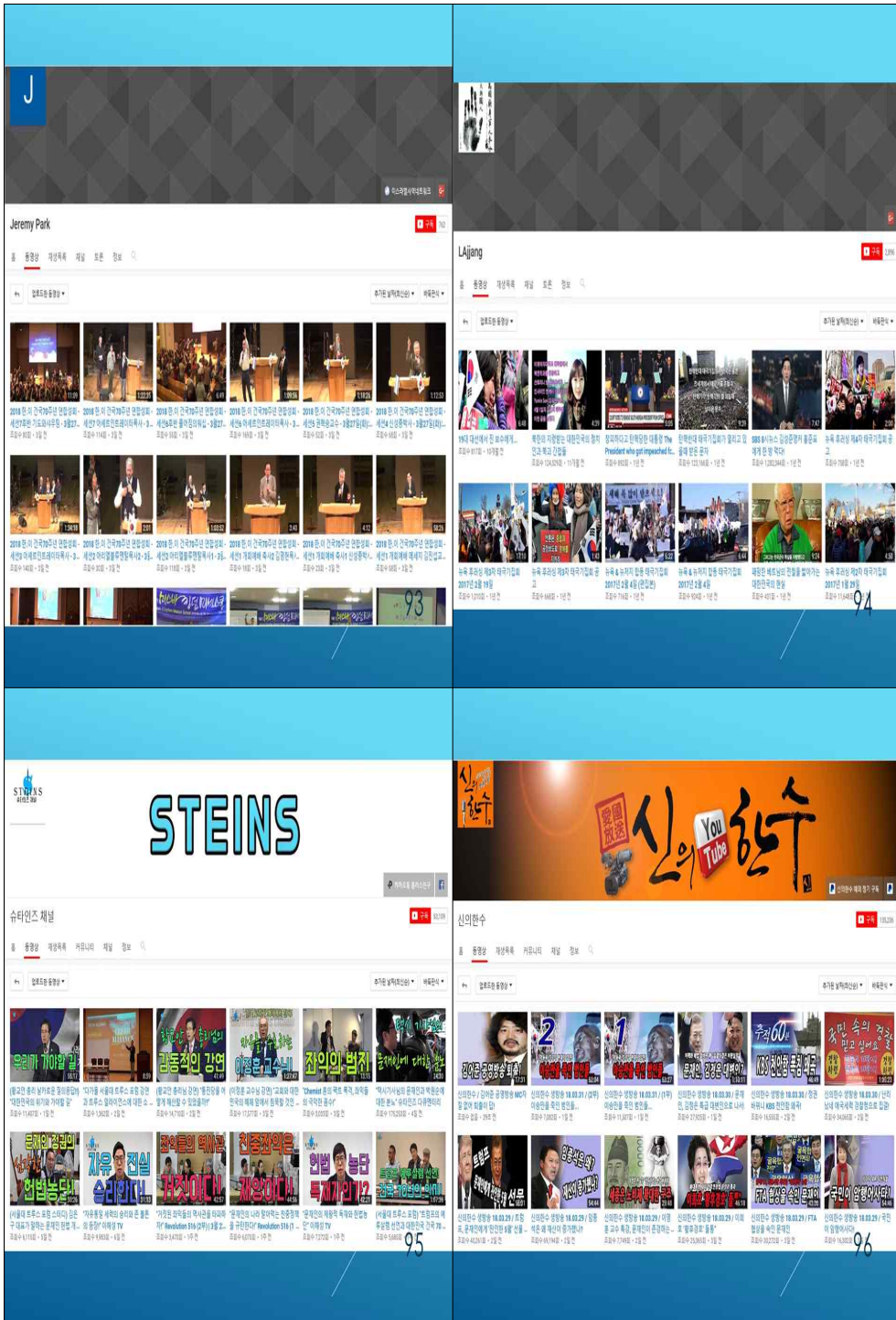
90



91



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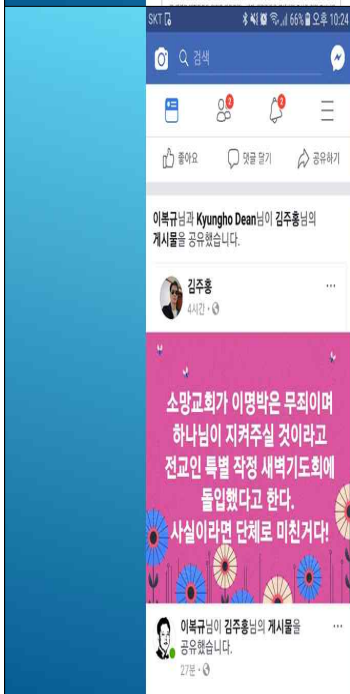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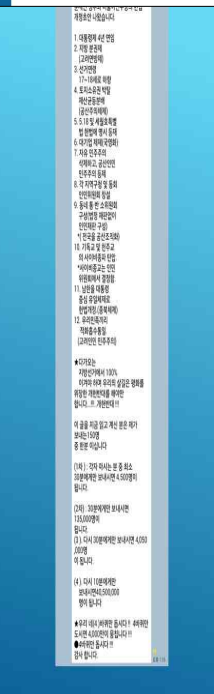
97



98



99



100



## “한국 사회 정세 변화와 기독교 가짜뉴스 동향” 논찬

이용필 기자  
(뉴스앤조이)

(저는 전광훈을 필두로 한 극우 개신교의 주효한 전략을 짚어 보고 몇 가지 이야기를 나눴으면 합니다.)

### 1. 유튜브와 양극단화

전광훈은 2019년 2월 한기총 대표회장 당선 직후,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실제로 '너알아TV' 채널 등을 만들었고 광화문 시위와 교회 집회를 주도하면서 채널은 대박을 칩니다. 단순히 개신교인뿐만 아니라 정치 성향이 같은 비종교인까지 흡수했는데요. 전광훈 지지 측은 종교적 신앙보다 정치적 신념이 우위에 있으며, 대한민국 정치 상황을 선(국민의힘)과 악(민주당 등 야당)으로 몰아갔습니다. 전만 해도 정치적으로 다름을 허용해 줬는데, 이제는 다름이 아니라 '적'으로 간주하는 상황입니다.

극우가 이렇게 나오다 보니 진보 진영도 따라서 열을 올릴 수밖에 없게 됐고, 결과적으로 정치적으로 양극단화가 됐습니다. 극단으로 치달으면 남는 건 '파국'일 텐데, 중재할 수 있는 길도 모색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2. 프레임

극우 카톡방에서는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민주당은 종북"이라는 등의 메시지가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극우 보수층을 결집하는 하나의 작은 선동 구호이지만, 알다시피 반공 이슈는 사회적으로 철 지난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장된 줄 알았던 반공 이슈가 되살아났습니다. 북한과의 대화나 평화를 추구하는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반공 프레임'이 계속해서 등장할 것입니다. 반대급부로 '친일 프레임'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반공 프레임이 더 주효하게 작용하는 듯합니다. 비생산적인 이념 논쟁을 잠재우기 위한 논의가 필요해 보이는데 이 역시 요원해 보입니다.

## 3. 허위·왜곡·과장 뉴스

소위 '가짜 뉴스'로 불리는 허위·왜곡·과장 뉴스는 종교적 신념(특히 개신교)과 어우러지면서 더 극대화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왜곡·과장 뉴스가 카톡을 통해 흐르고 있는데, 이를 막을 길이 전무해 보입니다. 레거시 미디어에서 종종 허위 뉴스에 관한 팩트 체크를 하지만, 일일이 따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 언론사들이 '무시'하기도 하는데, 급기야 '언론이 진실을 파묻고 있다'는 프레임을 동원하며 공격합니다. 이런 주장은 양측 진영에서 나오는 주장이기도 합니다.

'정파성'에 갇힌 나머지 진실을 외면하고, 관련해서 허위·과장 뉴스 등을 재생산해내고 있는데요. 이 점에 대한 진지한 성찰이 먼저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말이 잘 통하는 진보 진영이 먼저 포문을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가짜뉴스를 생산하는 종교 집단의 도구적 합리성과 야만성

유지윤 박사

(연세대학교 커뮤니케이션연구소)

한국 사회에서 보수 개신교 집단이 가짜뉴스의 주요 생산지로 지목된 이후 그와 관련된 논의들이 이어졌지만, 표면적인 현상 파악만 있을 뿐 심층적인 분석은 여전히 부족한 듯하다. 따라서 이 토론문은 변상욱 기자의 “기독교 가짜뉴스의 동향과 분석” 발제를 토대로 이론적 틀과 나름의 해석을 덧붙여 논의를 발전시켜 보고자 한다. 탈진실 시대를 살아가는 개신교인들과 가짜뉴스의 관계를 한 마디로 정의내릴 수 없겠지만, 이 복합적인 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 하나의 단초가 제공되길 바란다.

발제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두 가지다. 첫째로, 보수 정권의 집권 이후 보수 개신교 집단의 담론 생산 활동은 급격하게 줄어들었다. 특히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제외한 정치사회적 이슈가 눈에 띄게 축소되었는데, 이는 보수 개신교 집단에서 그동안 활발하게 생산했던 담론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반증한다. 그만큼 담론생산의 목적이 정보의 생산 및 전달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있다는 의미다. 둘째로, 보수 개신교 집단이 최근 들어 가장 활발하게 생산하는 가짜뉴스는 민주당이 교회폐지법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물론 근거 없는 이야기지만, 교회를 공격하는 집단으로 민주당을 상정했다는 사실은 앞선 논의와 마찬가지로 이들의 담론 생산 목적이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한 가지 눈에 띄는 특징은 보수 개신교 집단이 주로 사용하는 담론 전략인데, 이들은 특정 인물이나 집단, 사건의 감추어진 ‘실체를 폭로한다’거나, 자

신들의 주장이 ‘진짜’ 혹은 ‘팩트,’ ‘Truth’ 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경향을 보인다. 보수 개신교 집단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의 이름이 ‘너알아TV,’ ‘너만몰라TV’라는 것 또한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이들은 의사, 변호사, 교수 등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주요 스피커로 내세움으로써 소위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란 것을 사람들에게 깨우쳐 주는 계몽가로 스스로를 위치시킨다. 즉 보수 개신교 집단은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담론을 생산하는데, 이들은 주로 전문가의 권위나 객관적으로 보이는 근거를 제시함으로써 담론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사용한다. 일종의 계몽 서사를 통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것은 물론 해당 담론이 진실해 보이는 효과까지 얻는 것이다.

그동안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수 개신교 집단이 반지성주의적으로 그려진 것에 비한다면, 합리성을 강조하는 이들의 담론 생산 전략은 무척이나 흥미롭다. 우리는 얼핏 모순적으로 보이는 이와 같은 현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이들이 활용하는 합리성의 양태는 무엇이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해당 담론을 진실로 수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자발적으로 유통하게 되는 것일까?

지금으로부터 약 반세기 전 호르크하이머(Max Horkheimer)는 근대 과학문명의 발전과 종교의 쇠락을 목도하며 도구화된 이성이 야만적 사회를 야기할 것이라 주장했다. 그는 이성을 두 가지 측면에서 구분하는데, 주관적 이성이 객관적 이성보다 점차 우세해지면서 현대 사회의 위기가 초래되었다고 진단한다. 여기서 주관적 이성이란 개인 혹은 공동체의 자기보존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적 이성을 말한다. 주관적 이성은 어떤 대상이나 개념이 목표에 도달하는데 있어 유용한 지만을 문제 삼기 때문에 해당 목표가 다른 목표에 비해 가지는 우선성을 고민하거나 그 자체로 이성적인 목표를 갖지 않는다. 이에 반해 객관적 이성은 개인의 자기보존을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포괄적 체계를 발전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객관적 이성의 주된 관심은 이성적인 것의 객관적 질서와 개인을 화해시키는 것이며 수단보다는 목적을 강조하는 특징을 갖는다.

이와 같은 이성의 두 측면은 단순히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 인류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동안 공존해왔다. 문제는 시장경제 체제의 도입이 근대적 의미에서의 개인을 탄생시키고 개인의 자기보존이 보편적이고 절대적인 원리로 작동하면서부터 주관적 이성이 전면화된 것이다. 더 이상 이성은 자기보존과 상관없는 반성적 성찰을 목표로 하지 않으며, 사변적인 것 혹은 사물의 본성을 파악하는 기관으로서의 이성은 시대에 뒤쳐진 것이 되었다. 결국 합리적인 개념조차 주관적 이성의 관점에 따라 파



악되며 정의, 평등, 사랑과 같은 보편적 이념은 붕괴되고 말았다. 오늘날 우리가 흔히 이야기 하는 탈진실 현상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설명될 수 있다. 즉 문제의 핵심은 비이성적이거나 반지성적인 것이 아니라 이성을 도구적으로만 사용한다는 데에 있다. 주체의 이성적 활동이 객관적 질서를 배제하거나 그 목적 자체를 사유의 대상으로 성찰하지 않을 때, 혹은 그 결과로 도출된 진리가 자기보존적 욕구에 위배될 수 있다는 사실을 수용하지 않거나 오히려 그것을 폐기해 버릴 때, 이성적 인간은 얼마든지 야만적일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보수 개신교 집단의 담론 활동 역시 자기보존이라는 목적을 위해 주관적 이성을 활용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집단에게 있어 자기보존이란 특정 정당을 지지함으로써 얻어지는 상징적 이윤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보존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따라서 이들에게 객관적인 사실이나 보편적인 이념은 담론 생산에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없다. 오직 그 지식이나 정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보존하는데 있어 얼마나 유용한가만이 고려될 뿐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집단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데 있어 성경을 가장 큰 자원으로 활용하는데, 성경 또한 상당히 주관적 이성을 통해 수용한다는 것이다. 성경이라는 텍스트가 어떤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생산되었는지, 또는 종교가 사회의 다른 영역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총체적 고민은 생략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 리터러시 없이는 미디어 리터러시도 없다. 바로 이것이 보수 개신교 집단의 담론 활동을 비이성적 행위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 활동으로 바라봐야 하는 이유이다.

## 탈진실 시대, 정체성 갈등과 보수 기독교: 기독교 청년 보수의 정치적 행동주의 연구<sup>20)</sup>

허지영 박사  
(인하대학교 국제관계연구소)

### 1. 서론

과학적 사실조차 정치적 성향에 종속되는 탈진실(Post Truth) 현상은 진실 자체 보다는 자신이 중요하다고 믿는 무언가를 지키고자 하는 열망이 강할 때 발생한다. ‘진짜 진실이 무엇인지’가 초점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 또는 정치적, 경제적 이익에 따라 ‘진실’로 믿어 버리고 그것을 지키고자 적극적으로 행동한다. 2021년 개봉한 영화 ‘돈 룩 업(Don’t Look Up)’은 탈진실 현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지구와 혜성이 6개월 후 충돌할 것’이라는 과학적인 예측이 혜성이 불러올 경제적 가치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진실’로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정반대로 지구 종말에 대한 불안감과 공포에 매몰된 사람들은 전문가들의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할지라도 ‘가짜’라고 믿는다. 탈진실 현상은 때로 신과 진리를 절대적인 것으로 믿는 강력한 종교적 신념을 지닌 사람들의 행동 양상과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는데, 한겨레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한국 정치사에 주요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보수 개신교의 특정 집단을 가짜 뉴스의 주요 생산자로 지적하기도 했다(박준용 2018).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수를 지지하는 평신도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이 믿는 것이 곧 진리이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는 수호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적극적

---

20) 본 글은 미완성 원고로 배포 및 인용을 금함.

인 행동으로 표출하기 시작했다. 민주화 이전 기독교 보수는 국가권력에 순응하고 혜택을 누리거나 정치와는 거리를 두며 정파와 관계를 맺지 않으려는(apolitical) 태도를 보여 왔으며, 주로 교회 리더들에 의해 정치적 성향이 결정되었다. 하지만, 이런 경향은 민주화 이후 2000년대 진보 정부가 연이어 들어서면서 전환점을 맞는다. 한국 정치의 주류 세력으로 오랜 기간 권력을 누려왔던 보수진영의 상실감이 노무현 정부에서 본격 시행된 ‘과거 청산’ 정책 등에 대한 불만과 결합되며 보수의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게 되었다(윤해동 2012). 이런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뉴라이트’였다. 뉴라이트의 등장으로 과거 보수 기독교가 정치인들과 유착하거나 결탁하는 방식을 통해 정치에 영향력을 발휘하는 수준의 소극적 행태를 넘어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주의’가 본격화되었고 평신도들의 정치 참여도 활발해졌다(강인철 2006; 김민아 2018).

필자는 박사 논문의 사례연구를 위해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혼란스럽던 2017년 1월부터 6월까지 서울에서 1차 현장 연구,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집권 1년이 지난 2018년 4월에서 6월까지 인터뷰 중심의 2차 현장 연구를 진행했다. 본 글은 2차 연구에서 이루어진 보수 활동가 인터뷰 중에서 대학 캠퍼스에 기반을 두고 발전된 청년 보수 운동인 ‘트루스포럼’과 그리고 기독교 인권단체의 리더와 중요 회원 등을 포함하여 총 8명의 내러티브로 한정하여 탄핵 사건을 기점으로 등장한 기독교 보수 청년활동가들의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기독교 보수 정치 세력이나 반공과 박정희 세대를 경험한 어르신 보수층, 전광훈 목사와 같은 종교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신뢰하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나 트럼프와 같은 극단주의 정치인들에게 무조건적인 열광과 지지를 표현하는 반지성적 지지자들과 박근혜 탄핵을 계기로 적극적인 ‘정치적 행동주의’에 나선 청년 보수 지지자들의 신념과 정체성은 과연 다른 것일까? 만약 다르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가?

## 2. 청년 보수의 ‘정치적 행동주의’

2000년대 이후 한국 보수의 특징에 관한 연구는 보수와 기독교의 관계나 뉴라이트에 관한 연구(강인철 2006; 김민아 2018; 김진호 2017; 2020), 미국 기독교 우파와의 비교분석 연구(배덕만 2007), 그리고 반공 교육과 박정희 시대의 경제 발전을 경험했으며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어르신 보수층에 관한 연구(최현숙

2018; 김성경 2017; 천관울 2017), 보수의 역사관 연구(윤해동 2012) 등 다양하다. 하지만, 기독교 청년 보수의 ‘정치적 행동주의’에 집중한 연구는 많지 않다.<sup>21)</sup> 본 글은 유대-기독교 보수주의를 표방하는 대학 캠퍼스 중심의 보수 운동인 트루스포럼과 기독교 인권 시민단체 활동가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기독교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보수 정치 활동가로서 행동에 나서게 된 배경을 살펴본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시작되어 지금까지 캠퍼스를 중심으로 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트루스포럼은 기존 보수 기독교 정치인들이나 뉴라이트와는 구별되는 기독교 보수 청년들의 정치적 행동주의 유형을 보여주는 사례로서 연구의 의의가 있다.

## 2.1 트루스포럼

트루스포럼은 2017년 당시 서울대학교 법학과 박사과정생이었던 김은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대자보를 게시하며 시작되었다. 이후 대자보 내용에 공감하는 학생과 동문들이 모여 연이어 대자보를 게시했으며, 탄핵 심판이 인용된 후에는 트루스포럼 강연을 개최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이어갔다. 트루스포럼은 2017년 10월에 전국대학 연합 조직인 ‘트루스 얼라이언스’로 확대되었으며 인터뷰가 진행되었던 2018년 당시 800여 명이던 회원은 2021년 12월 기준으로 약 천 여명으로 증가했다.<sup>22)</sup> 공식 홈페이지에 트루스포럼은 “거짓된 선동정치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는 시대적 위기감”에서 시작되었다고 밝히고 있다.<sup>23)</sup> 이들은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에서 발견하고 북한을 해방하는 것을 사명으로 여기며 이를 위해 굳건한 한미동맹이 필수라고 인식한다. “정치적 입장은 다를 수 있지만, 진리를 향한 갈망은 모두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이 진리만이 분열된 대한민국을 하나 되게 하고 회복시키며 앞으로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라는 트루스포럼의 소개문은 탈진실 시대에 자신들이 지지하는 보수적 역사관과 정체성이 곧 진리라는 트루스포럼의 신념을 잘 보여준다. 이는 트루스포럼 사상의 뼈대가 되는 5대 기본인식에도 잘 드러나는데, 대한민국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인정, 북한의 해방, 굳

21) 청년 보수화 현상이 2022년 대선을 전후로 언론에서 집중 보도가 되었으나 이에 대한 연구는 부재하다.

22) 위키피디아, 트루스포럼

<https://ko.wikipedia.org/wiki/%ED%8A%B8%EB%A3%A8%EC%8A%A4%ED%8F%AC%EB%9F%BC>

23) 트루스포럼 홈페이지 <http://www.truthall.com/>

건한 한미동맹, 탄핵사태의 문제점 인식, 그리고 유대-기독교 세계관에 바탕을 둔 기독교 보수주의다. 5대 기본인식은 트루스포럼의 세계관이 대한민국 역사관, 대북 정책성과 안보, 그리고 기독교 정체성을 중심으로 구성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유대-기독교 세계관을 근간으로 서구 보수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기독교 보수주의를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시하며 현실 정치에 적극 개입하고자 한다.

대학 캠퍼스를 중심으로 기독교 정신을 전면에 내세운 청년세대의 보수 정치 운동이라는 점에서 트루스포럼은 다른 보수운동 단체들과 구별된다. ‘뜰썩보수’라는 말이 암시하듯이 보수 지지자 대부분은 노인이며 가짜뉴스와 같은 선동에 쉽게 휘둘리는 반지성주의라는 이미지가 강하다. 보수에 대한 이러한 비판과 냉소적 시각을 무릅쓰고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보수 정치활동에 참여하게 된 동기에 대한 인터뷰를 질적내용분석(thematic content analysis) 방법론으로 분석한다. 인터뷰는 2018년 4-5월 서울 주요대학 트루스포럼의 리더 4명, 주요 회원 2명 그리고 기독교 인권운동 단체 청년 리더 2명과의 반구조화된 면접(semi-structured interview)의 형태로 개인당 대략 1~3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총 8명 중 카톨릭 신자라고 밝힌 1명을 제외하고 모두 자신을 독실한 기독교 신자로 소개했으며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된 개인 스토리를 시작으로 인터뷰가 진행되었다. 본 글에서는 대외적으로 이름이 알려진 서울대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를 제외한 각 대학의 트루스포럼 대표들은 대학명으로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인터뷰 참여자는 서울대 대표, 이화여대 대표, 연세대 대표, 고려대 대표, 서울대 회원 A, 서울대 회원이자 보수 채널 운영자 B, 기독교 단체 대표 C와 임원 D이다.

## 2.2 기독교 청년 보수 내러티브

### 가. 정치 활동의 직접 동기: 탄핵 사건과 배후 세력

인터뷰에 참여한 보수 청년들은 모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대한민국 정체성 위기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게 된 결정적 계기였다고 언급했다. 트루스포럼을 시작한 김은구 대표는 미래한국과의 인터뷰에서 “지난 2008년 광우병 선동 때에도 그랬지만 이번 탄핵 사건이 진행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좌파들의 선동정치가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백요셉 2018). 또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민

주화운동을 실제 순수한 마음으로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그것을 주도했던 핵심세력 안에 ‘자유민주화’가 아닌 ‘인민민주화’를 위해 싸웠던 사람들이 있었다. 그러한 일명 ‘주사파 세력’이 순수한 학생들의 민주화운동을 호도한 것”이라며 탄핵의 배후 세력에 대한 의심을 제기한다. 탄핵을 주도한 배경에 특정 세력이 존재한다고 확신한 것이다. 보수 진영의 일반적인 내러티브와 유사하지만, 적극적인 보수 정치 활동을 기독교인의 사명으로 인식한다는 점이 다르다.

“탄핵 사건 진행되는 거 보면서, 좌파의 선동정치가 위험 수준에 왔다고 생각했고 대자보를 썼어요... 탄핵이 인용되는거 보면서 이거 포럼이라도 해야겠다... 24회 강연을 했고, 여러 가지 대자보 붙이는 활동과 포럼 활동을 아카데미나 이런 걸 계속하고 있고, 트루스 얼라이언스라고 그 사이트를 통해서 계속 가입을 받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공유하는 인식이, 보셨겠지만, 건국과 산업화의 가치, 한미동맹, 북한 해방 그리고 또 탄핵 사건의 부당성,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기독교적 가치관에 기반해서 활동하는 것에 공감하시는 분들을 모시고 있어요. 사실은 다섯 번째가 되게 중요합니다. 기독교 좌파가 좌파 진영의 이론적 핵심을 제공하고 있거든요... 대응하고 바로잡는 것이 크리스천의 사명 중의 하나라고 믿어요. 이 시대에... 저희 활동 자체는 이런 인식을 공유한 사람들이 코어입니다. 때문에 저는 이게 트루스포럼이 기독교적 가치관을 놓치게 되면 힘을 잃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구요. 제가 사실 정치 활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안 할거고, 못할 겁니다. 저는 이게 대한민국의 회복과 교회 회복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

#### 나. 보수 정치 성향 배경: 북한 관련 경험과 확신

박근혜 탄핵이 보수의 위기감을 느끼고 직접 행동에 나서게 된 결정적 계기이자 키워드라면 다음으로 발견되는 공통된 키워드는 북한이다. 대부분의 인터뷰 대상자들이 북한학을 공부하거나 북한 인권단체에서 활동했거나 탈북자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활동을 한 경험이 있었다. 해외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박사과정을 위해 귀국한 고대 대표는 트루스포럼을 시작한 계기를 다음과 같이 밝혔다.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것이 북한학을 시작했는데, 저는 북한을 어떻게 하면 바꾸고, 김정은의 전체주의 세계를 어떻게 하면 극복하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룰까 그걸 공부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닌거죠. 북한학에 와보니 북한을 어떻게 하면 이해하고, 북한의 체제를 어떻게 하면 존속시키고, 북한 인권 문제를 어느 정도 다루긴 하지만, 그게 주가 아니라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해하려 하고...”

고대 대표는 한국에 돌아와 북한학 박사과정을 시작하기 전까지 스스로 진보주의자로 인식했다. 하지만, 북한을 연구하며 자신의 관점이 보수주의자들의 담론과 일치한다는 것을 발견하고 정체성의 혼란을 겪었으며 보수로 분류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고 고백했다.

“(해외에서 제가 다닌) 학교는 전쟁학으로 유명한 학교예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유엔이라든가 국제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됐고 전과를 했어요. 그러면서 국가정체성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된거예요. 그전까지는 너무 어릴 때 (해외에) 나가서 한국에 대한 생각이 없다가 그때 탈북자 수기도 읽게 되면서 북한에 대한 것도 생각하게 되고... 결국에는 국가정체성을 회복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군대에 들어가고 또 레바논으로 파병을 다녀왔어요. 그러면서 나라에 대한 생각, 북한에 대한 생각이 더 강해지고 국가정체성의 일부분이 북한을 포함하고 있구나. 이것 회복하지 않으면 선진화나 국제 기여 이런 게 다 의미가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같은 대학에서 전쟁학 석사를 다시 하고... 한국에 돌아왔는데, 북한 관련 연구를 하려다 보니까 우리나라 진보, 보수 스펙트럼이 제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거예요. 저는 북한 인권이나 북한 그런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당연히 스스로 진보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와보니까 스펙트럼이 반대로 되어있어요. 완전히 반대도 아니고 섞여있어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보수 프레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이건 좀 두려운 거죠. 나이도 젊고 진보라고 생각했는데, 약간 틀딱 노인네 취급을 받을 거 같으니까. 약간 겁을 먹고... 이런 분위기를 피해있어야겠다. 그래서 분쟁 현장 경험을 쌓아야겠다. (국제기구 소속으로) 아프리카 콩고, 케냐 소말리아 접경지대 이런데서 경험을 쌓다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통일 대박이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이 아니면 연구를 못하겠다...”

이대 대표 역시 인터뷰 당시 북한학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었다. 정치에 무관심했던 자신이 우연한 기회에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정치 문제에 눈을 뜨게 되고 보수 정치 성향을 가지게 되었다고 했다.

“크리스천이었고, 정치에 특별한 관심이 있지는 않았어요... 제가 한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게 로버트 박의 ‘목소리’라는 책이었어요. 그분이 12월 25일 2009년인가 2010년에 북한으로 걸어 들어가게 되요. 미국 시민권자인 한국 사람이 그렇게 했던 이유는 북한 인권의 처참한 상황들을 자기가 이렇게라도 전 세계에 알려야겠다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알려야겠다 그래서 걸어서 들어가요. 제가 미용실에서 그 책을 읽다가 눈물을 펴펴 쏟으면서 제가 같은 한민족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렇게 무지하고 너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살아왔던 것에 대해 반성을 하면서... 북한 인권에 눈을 뜨게 되요. 그때가 한 2003년인가... 그때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해서 찾다가 북한 인권에 대해 일을 하시는 선교사님을 찾게 돼서... 북한 인권에 대한 인연이 시작이 됐어요.”

트루스포럼의 대표들은 대부분 석박사 과정에 재학 중인 80년대 생인 반면 유일하게 90년대 태어난 연대 대표는 본인을 좌파에서 전향한 사람으로 묘사했다.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하면서 신앙을 회복하고 우파로 전향하게 되었다고 한다.

“모태신앙인데, 하나님을 만난 건 20살 이후예요... 어린이 집회를 섬기면서 대학교 때 탈북인 아이들 공부방을 했었어요. 자봉으로. 북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 땅의 사람들은 왜 탈북을 해야 했으며, 어떻게 살고 있고, 왜 저렇게 살고 있는가... 그런 거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들고 하나님을 만난 케이스예요... 저는 원래 좌파였는데... 이승만에 대한 강의를 (듣고) ... 다시 알게 됐어요. 내가 알게 있는 게 다가 아니고... 그것도 굉장히 왜곡되어 나에게 주입이 되어왔구나... 이 나라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내가 이 나라에 태어나게 하신 거는 나를 저주하고 나를 불행하게 살게 하려고 하신 게 아닌데, 나는 이 나라를 왜 미워하고 있지... 뭔가 주님의 뜻이 아닌거예요... (굉장히 이 나라에 대해 불행하게 생각했군요?) 저는 외교관이 돼서 이 나라를 뜨는 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고.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얼마나 이 땅에서 잘못 가르쳐지고 있는가 그 한 사람에 대한 것만 제대로 알려져도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가 더 잘 되기를 바라고, 무엇이 진짜 추구해야 하는 가치인지를 제대로 알 수 있고, 지금 청년들이 지금 데모하고 투쟁하는 게 아니라 다른 가치관과 비전을 세워서 나아갈 수 있는데, 저도 그렇게 돌이킨 케이스고... 박근혜가 실수했을 수 있죠. 그걸 인정해야 해요... 그렇지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하는 자유라는 가치와 법치라는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체제를 뒤집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정도까지 가게 되면..."

북한과 관련된 경험과 활동을 통해 북한과 북한 인권에 대해 문제의식을 품고 보수적 정치 성향을 가지게 된 이들이 탄핵을 계기로 적극적으로 정치 행동에 나선 것이다. 그 배경에는 박근혜 탄핵 사건의 배후와 북한이 연결되어 있다는 개인적인 경험과 확신이 있었다. 이대 대표는 관련 경험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인권단체에 있었고 지금 이대 북한학과에 다니고 있어요... 사실 북한학과에서 유일하게 보수적인 목소리를 냈었어요... 탄핵 시점에 대자보 같은 거 붙일 때예요, 남자들이 와서 붙이고 하는데, 이거는 학생들이 하는 수준이 아닌 거예요... 아 이걸 당에서, 뒤에서 조직이 있구나 이렇게 인식을 했었고... 제가 2017년 4월에 학교 과제로 노동신문을 보고 북한 인권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지 찾는 과제가 있었어요... 일 년 전부터 박근혜 탄핵하라는 글이 노동신문에 실렸어요. 그땐 분명히 2016년이었던데요... 2016년 3월부터 일 년 치 한번 보시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수위가 굉장히 높거든요. 박근혜가 어떤 년이고, 어떤 잘못을 했고... 탄핵해야 한다는 그런 북한에서 계속 지령을 내려요... 매일매일 그런 식으로 박근혜를 탄핵하자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있는 거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정말 그때가 딱 탄핵된 시점이기 때문에”

그는 박근혜 탄핵을 꾸준히 요구해 온 노동신문 기사들을 발견하고 세상에 알려야겠다는 생각에 기사를 사진으로 찍어 SNS에 공개했다가 국가보안법의 문제로 자진해서 자료를 내려야 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가짜 뉴스를 유포한다는 모함과 협박을 수없이 받았다고 한다.

“제가 이걸 도서관에서 사진으로 찍었어요... 특수 자료라 한국에서는 (가지고) 나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그걸 폐북에 올렸어요. 이렇게 북한에서 움직임이 있었는데 왜 우리나라 언론과 정치는 북한 신문과 똑같이 가냐, 매우 비슷한 부분이 많은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 팩트를 올린 거고... 그리고 거기 올라오는 댓글들이 하루 만에 몇 만 개가 올라왔는데, 놀랐던 거는 댓글부대가 있긴 있더라구요... 내가 거짓말쟁이고 애는 허위사실 유포하는 거다... 학교에서 교수님 통해서 긴급회의들이 열리고, 교수님 한 분이 강력히 얘기를

해주셨고... 다만 특수자료 유포한 것은 국가보안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자료를 내려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료를 내리게 됐어요. 근데 자료를 내리게 되니까 애네들이 더 이거 봐라 내렸으니까 이거 가짜다... 그래서 어쨌건 그걸 내리고도 이 모든 사실을 직접 겪었기 때문에”

고대 대표도 이와 유사하게 캠퍼스에 대자보를 게시하고 그 사실이 신문기사에 보도된 이후 협박에 시달렸다고 한다. 이 경험으로 인해 더욱 적극적으로 정치 행동에 나섰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보수 정치 활동을 정치 운동을 넘어서는 영적 싸움으로 받아들이는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일단 대자보로 시작하는 게 맞다. 그래서 12월 9일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된 지 1주년 되었을 때 ‘촛불혁명의 진실’ 이런 제목으로 붙인거예요. 두 번째 대자보 ... 파급력이 좀 셧어요... 좌익들의 공격이 심했죠. 살해 협박도 들어오고, 페이스북에 처음에 올렸는데 제 가족사진이 그대로 있거든요. 18개월 된 아기 살해 협박도 들어오고... 위축이 되더라고요... 정치 운동이라고 생각이 되었는데, 그때부터는 영적 운동이라는 생각을 받아들였죠. 아는 기독교인들, 부모님들에게 기도를 부탁드리고, 적어도 개인적으로 영적 세계의 싸움이라는 걸 인지하기 시작했어요.”

이처럼 인터뷰에 참여한 트루스포럼 대표들은 대부분 북한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자신이 가진 생각과 가치관이 보수와 일치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며, 스스로 이를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혼란을 경험했다. 이러한 정체성과 신념의 혼란을 겪으며 정치에 보다 관심을 가지게 되었으며 박근혜 탄핵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보수정치운동을 ‘소명’으로 받아들이고 활동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 **다. 보수와 진보를 나누는 기준: 역사관**

트루스포럼 대표들은 대부분 한국에서 보수와 진보는 국가정체성 인식과 역사관에 따라 나뉜다고 보았다. 이들의 역사 내려티브는 뉴라이트의 역사관과 거의 동일한데, 2000년대 등장한 뉴라이트가 보수의 역사관을 정립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대 대표는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역사 인식에 따라서 갈라진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좌우가, 1945년에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건국하면서부터... 그거에 대한 인식에서부터 우리나라의 좌우가 갈라진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좌파 친구들을 만나서 아무리 얘기해도 이게 바뀔 수 없는 게, 역사 인식 자체, 여기서부터 다르기 때문에”

고대 대표는 기독교적 가치관은 근본적으로 진보 사상과 일치할 수 없다고 지적하며 이승만 대통령은 이미 이 점에 주목했었다는 것을 강조한다.

“제가 생각했던 진보와 보수의 스펙트럼이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해외도 마찬가지지만 진보라고 하는 좌익사상은 결국에는 유물론에 뿌리를 두고 있는 걸 알게 됐어요. 유물론의 뿌리는 결국 진화론, 모든 사람은 영혼이 없이 다 물질, 먼지이기 때문에 윤리가 파괴되고 도덕 가치가 없어지고... 그런 걸 깨달으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절대적인 진리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통독하고 그 가치관 안에서 영향을 받았고... 전체주의와 공산주의의 유물론적 반기독교적 배경을 확실히 인지하셨던 거 같아요. 그러면서 [일본내막기 (Japan Inside Out)]에 분명히 나와 있죠. 전체주의와 자유주의 구분한 거. 자유주의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전체주의 모든 것은 집단일 뿐이고... 인본중심적인 이 두 개의 사상을 꿰뚫으신 거죠.”

그는 뉴라이트가 기독교와 보수 진영에 미친 영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나 뉴라이트나 태극기 집회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보수의 가치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저는 대학까지만 해도... 정교분리 이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정치 참여, 정치 발언 자제해야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최근에 생각을 달리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뉴라이트처럼 우파들이 소리내기 이전에 좌익 사상을 목사들이 훨씬 더 노골적으로 해왔던 거죠... 그것이 굉장히 효과적으로 대부분의 신학교들이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목사들이 어떤 정치 소리를 내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뉴라이트는 그런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신학 학계 자체를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라도 자유민주주의 자체가 유대 기독교 가치를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사실 만큼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나라 정치 환경상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표심을 가지고 있다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뉴라이트를 통해서 교인들을 깨우치고 일으키고 일종의 효과는 봤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단, 태극기라는 집단에 속해버리면 개인을 설득할 논리를 개발할 힘을 잃어버려요. 개발할 의지가 안 생겨요. 왜냐면 집

단의 힘을 믿기 때문에... (예를 들어) 청와대에 쳐들어가(라고 주장한다면)... 그 집단에 속하면 쳐들어갈 수 있을 거 같아요. 우리의 우파의 가치관과 그런 맞지 않아요. 개인 오천만 명을 하나하나 만나서 변화시킬 각오를 해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면 오래 걸리지만 가장 확실해요. 사실 기독교가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서울대 트루스포럼 회원인 B는 근본적으로 보수 진영의 철학이 부재한 한계를 지적하며 뉴라이트 계열의 전향 우파 학자들이 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역할을 했다고 평가한다. 또한, 박근혜 탄핵과 이를 둘러싼 진보·보수의 충돌을 대한민국의 생존과 연결된 문제로 보았다.

“뉴라이트라고 하는 게 제가 알기론 전향 우파거든요... 우파의 가장 큰 문제는 우파의 텍스트가 없고 우파를 설명할 수 있는 정치철학과 역사와 미학, 시각과 그런 콘텐츠가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는 환경에서 그나마 뉴라이트가 생겨서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역사, 저와 같이 이승만과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역사를 해석하기 시작한 게 얼마 안돼요... 제가 알기론 아마 그 시작은 뉴라이트 분들이 역사를 다시 해석하시면서 다시 텍스트를 쓰시고... 대한민국의 우익적 가치의 역사 해석을 쓰신 거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종교인이라면 정치색을 떠나서 하나님 복음 말씀만 전해야 하지 않느냐... 맞는 말일 수 있지만...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말하는 좌나 우라는 것은 대한민국의 존립과 관련된 것이다... 여러 법제화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입 다물고 있으면...”

연대 대표는 본인이 과거 대한민국에 대해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고백하며 잘못된 역사교육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 한쪽에 편향된 역사인식이 주입되었던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역사교육, 일단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해요. 이 나라의 시작이 잘못됐다. 일단 단독정부를 세운 것이 잘못이다... 그때 김구가 주도해서 남북한 연합정부가 세워지고 하나의 나라가 되었다면, 6.25 같은 비극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거고... 지금 이 나라가 불행한 것은 다 분단 때문에... 이런 역사 교육을 받다보니까... 분단만 사라지면 다 해결되는 것으로 보는 거예요... 이승만 박사가 왜 남한이라도 지키고자 했는지에 대한 중심을 보지 않는 거죠. (이승

만 박사는) 공산주의, 그게 얼마나 사람을 핍박하는 사상이고, 그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을 것이고 그걸 이미 알고 계셨고”

그는 청년들의 역사 인식을 바로 잡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하며, 그릇된 역사가관이 도덕적 가치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한다.

“생각보다도 저도 (역사)교육을 잘못 받았고, 그 교육의 잘못된 왜곡된 시각만 잡아줘도 많이 돌아와요... 진리가 사람을 바꾸게 할 수 있다는 거에 완전 공감하고, 복음에 기반하지 않더라도 역사의 사실만 제대로 집어줘도 이 사람들이 현 시대와 앞으로 나갈 방향성과 자기 인생의 가치관까지 변할 수 있는 거를 저는 되게 많이 보거든요... 정말 도덕적 가치관이 무너졌다고 느껴지는데, 김정은이랑 자유한국당 홍준표 의원이랑 비교하면서 총알 한 발이 있는데 누굴 죽일 거냐... 페이스북에 홍준표를 죽이고 싶다면 좋아요를 누르세요가 거의 지금 4만 표를 넘어가는... 오히려 김정은을 귀엽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기본으로 지켜야 하는 도덕과 가치관이 없구나. 분단만 사라지면 다 해결될 거라는 논리에 지금... 이 논리가 굉장히 커요.”

#### 다. 보수의 쇄신: 기독교인으로서의 소명

이들에게 박근혜 탄핵은 보수의 위기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수나 기독교 안에서 가짜와 진짜가 구분되고 비판적 성찰을 바탕으로 보수를 개혁할 기회로 인식되었다. 고대 대표는 탄핵으로 인한 변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일단 보수가 괴멸했다고 봐요, (그 원인은) 사실은 정신문화적인 가치를 너무 오래 소홀히해왔다... 기독교이라 생각하고 자녀들에게 가치관을 가르치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적 세력이 분명히 있는데, 그렇게 경계하지 않았던 것은 교회와 보수의 잘못이라고 생각해요... 한 가지 고무적인 것은 태극기 집회를 통해서 우리나라 기독교가 분명한 색채를 구분할 수 있었던 것은 긍정적이지 않았나...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주사파 세력, 전체주의에 동조하는 세력에 대해 경계심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해 분명히 파악할 수 있었다는 것... 분별이 생긴 거죠... 무엇을 중심으로 하나 되야 할지 몰랐던 보수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 어느 정도 위치를 찾고 있는 과정이지 않을까... 물론 극소수지만 이승만의 건국과 산업화

의 위치를 인정하고, 역사를 부정하지 않고... 계산이 아니라 가치적인 동맹이라는 것, 그 가치는 자유민주주의 대 전체주의라는 것이 분명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결할 수 있지 않았나. 위기가 없었으면 이렇지 않았을 거다. 여전히 기득권을 누리고 안주해 있고... 확 깨우지 않았나 우리나라 보수 기독교를... 이걸 트루스포럼 전체 의견이 아니라 개인 얘기에요. 탄핵이후에도 (박근혜) 석방을 외칠 게 아니라, 문재인 부정을 외칠게 아니라, 이건 우리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 정신문화를 소홀히 한 것, 자유민주 가치관을 소홀히 한 것, 북한 동포를 소홀히 한 것을 뼈저리게 반성할 기회다. 이걸 안하고, 이것은 가짜 정부다라고 외치는 것은 방법론적으로 맞지가 않고 대중을 설득하기 힘들다고는 생각해요”

이대 대표 역시 같은 맥락에서 탄핵은 기독교와 보수 안에 진짜와 가짜가 나뉘는 계기였다고 말했다.

“박근혜 탄핵 시점으로 많은 보수 기독교 분들이 일어나게 됐잖아요. 그것에 저의 주위 분들이 이번 사태를 기점으로 확실하게 많이 나뉘어 졌다고 보거든요. 기독교 안에서, 왜냐면 지금까지 정권을 잡고 일 년을 지나는 걸 보면서, 확실히 기독교는 좌파가 될 수 없구나 확신하거든요. 안 그래도 몇 번 친구랑 다툼이 있었거든요... 세상에는 진리라는 것은 없고 신은 존재하지 않고 계속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진보되어야 한다는 걸로 나아가는데... 거기서 기독교의 가치관이 과연 하나로 갈수 있나... 하나님을 제대로 안다면 보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계속 공부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하고...”

또한 대부분의 리더들이 트루스포럼이 보수를 쇄신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보수 정치 활동을 일반적인 정치 운동의 차원을 넘는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이자 영적 전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에 대해 김은구 대표는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교회가 지금 이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정체성의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교회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명확하게 정리해야 할 것이 인간의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로 볼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역사를 보는 사조가 교회 안에 침투해 있는 것은 아닌지 명확하게 깨닫고 분별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오염되고 정체성 자체에 혼란이 올 거고... 대한민국 교회를 정결케 하시고 예비하시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결국에는 이것들이 북한의 해방과 연결되기를, (그리고) 연결되어 있다고 개인적으로 믿고 있고...”

연대 대표도 탄핵 사건으로 인한 유익을 보수의 변화에서 찾았다. 개별적이고 연합되지 못하던 보수가 탄핵으로 인해 하나로 연합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에 눈을 뜨게 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저는 그래도 하나의 구심점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뭔가 연합하려는 움직임이 생겨나고 있다. 사실 저도 이쪽(보수)으로 돌아서서, 이쪽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우파의 치명적인 약점은 자기가 너무 다 잘났어요. 개별적이고, 연합을 절대하지 않아요... 저는 좌파도 본받을 점이 있다고 보는 입장인데, 인간적으로 후대를 이끌어주고 양성하고 나와 다르다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연합하려고 하는 움직임, 그 힘을 모아서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려는 그런 움직임은 좌파가 훨씬 잘하죠. 우파도 그런 게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보수들이) 오히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그게 안 되는구나 그걸 깨달으신 거 같고 구심점을 만들려고 노력하시는 거 같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인재를 양성하려고 하는 움직임, 후대를 키우려고 하는 움직임, 좌파는 끊임없이 교육을 시켜왔거든요. 그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탄핵을 빌미로 보수 지지자들이 지나치게 과장해서 위기를 조장하는 것은 아닌지, 민주화가 상당히 발전되었는데 우리 국민이 나라가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화 되는 것을 보고 가만히 있겠는가라는 반론을 제기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비난받는 게 두렵고 배제되는 게 두려운 거 같아요. 욕먹는 게 싫고. 진짜 웃긴 게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면, 생각이 없는 게 아니에요. 뭔가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다 그런 문제의식이 있는... 제가 만난 사람들만 그런 건지. 대학교에서 만나고, 제 대학원 친구들만 봐도. 이 언론에서 떠드는 얘기가 다가 아니더라는 것을 인지는 하고 있어요. 근데 제 친구들만 봐도 행동으로 옮겨지지는 않는다는 것을. 이걸 반대 흐름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정말 엄청난 용기와 결단이 필요하고 그거를 지지해 주고 서포트해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그거를 하느냐는 거죠... 자기가 낙인이 찍히

니까... 그게 싫어서 자기 앞길 막히고 (하니까)..."

서울대 트루스포럼의 주요 회원이자 보수 채널을 운영하는 B씨는 보수 운동에 나서게 된 계기와 박근혜 탄핵으로 인한 변화에 대한 질문에 탄핵을 보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답했다.

“(보수) 채널은 저는 박사과정생이라 시간 여유가 없지만 그래도 이렇게 있을 수 없다는 생각. 탄핵 정국 때부터 이상하게 돌아가는 현실과 언론이 언론답게 진실을 제대로 얘기해 주지 않고 매우 편향적으로 얘기하는 현실... 공부를 많이 한 건 아니지만, 과거에 알게 된 지식과 제 스스로 이런 말 드리기 부끄럽지만 공분, 이런 것들을 실천, 터뜨리고자 한 게 아닌가... 저에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 알려준 그 친구가 먼저 제안해서 보수 채널을 4명이 모여서 시작을 했구요... 태극기 이전에는 (보수 시민) 정치 세력 자체가 거의 없었어요. 자생적 세력이 없었어요. 있었다고 해도 정당 조직에 연결되어 있거나 특정 기업, 전경련의 지원을 받는 세력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탄핵 이후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일단 엄청난 위기의식 느낀 사람이 많았기 때문에 사람이든 인력이든 자금이든 그것이 뭉쳐지고 있고... 그런 면에서 긍정적이고 물론 여러 불협화음도 있지만 어쨌든 긍정적이다... 자신(진보)들이 싫어하는 건 혐오 발언이고, 자신들이 좋은 건 표현의 자유고 이런 식의 해석이... 법제화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교회가 입 다물고 있으면 교회에서 나중에 복음을 전하는데... 조금씩 악의적으로 해석해서 교회를 해체할 수 있어요. 그냥 법에 의해서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까지 가만히 있고 바라만 봐야하느냐. 이거는 교회 해체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트루스포럼 대표들은 대체로 기독교적 가치관에 근거해서 사회를 변화시켜야하며 보수의 개혁을 위한 적극적 정치 활동은 신앙적인 소명이라고 생각했다. 반면 우파적 목소리를 강하게 내는 기독교 단체의 두 명의 리더는 트루스포럼과는 다른 관점에서 진리를 수호해야 할 기독교인으로서의 사명을 강조했다. 트루스포럼은 기독교 사상에 가까운 보수의 가치가 곧 진리라는 의식이 강한 반면, 기독교 단체 리더들은 보수와 진보진영 모두 잘못된 정치를 해왔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진보의 주장은 북한과 매우 유사하고, 보수의 가치관이 기독교의 진리에 보다 가깝기 때문에 보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보수를 포함 양쪽 진영 정치인들의 잘못을 비판하



고 바로잡을 책임이 기독교인들에게 있다고 보았다.

“좌파도 하나의 의견, 우파도 하나의 의견, 그래서 그 사이에서 중립을 지키는데... 가정을 갖게 되고 자녀를 양육하고 보니까... 이걸 좌우의 대결이 아니고 원래 진리 안에서 정치를 하는 게 목적이고 진리 안에서 나라를 잘 세팅해야 하는데, 그나마 보수 우파들이 진리를 많이 따라가기 때문에 구지 좌우로 나누자면 우파가 되지만, 우파들도 잘못하고 정치인 짓하고 너무나도 안 좋은 짓들을 했을 때는 크리스찬들은 거기에서 이것들을 커팅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교회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못하면 이 세상에 끌려가거든요... 북한 인권 운동을 하다보니까 정치를 알게 된 거예요. 탈북자들을 구출해야 하고 매주 저희가 탈북자들을 만나서 인터뷰하는 일을 했는데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과 실제로 북한을 갔다 온 외국계 한국인들이 북한을 갔다 온 것을 얘기하는 것과 실제 탈북자들이 얘기하는 게 다 달라요... 탈북하신 분들은 물어보니까 너네는 왜 좌파가 아니라 보수를 지지하나 했을 때 이유는 하나였어요. 형 우리 북한에는 좌우가 없어요. 근데 나와 보니까 우리는 자유를 찾아 온 건데, 대한민국의 보수는 그나마 자유를 얘기를 해. 많이 썩었지만 그래도 자유를 얘기해. 근데 좌파는 우리가 북한에서 들었던 얘기 똑같이 한다고 (아,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네, 북한에서 들었던 교육 받았던 거 그대로 얘기하고, 초등학교 교과서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북한에서 사상 교육 받을 때 받은 내용을 지금 이제 하니까... 형 이거는 똑같이 우리가 배운 거랑 똑같아. 뭐 백두혈통도 배우고... 대한민국이 자국민 대한민국에서는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정권이 들어선 거죠. 그러니까 정치는 땔레야 땔수가 없는 거고, 생명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나이브하게, 그냥 우리는 전도만 할테니 너희는 알아서 정치해 이래도 괜찮다면 우리도 그냥...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정치를 얘기 안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 라. 북한과 화해 그리고 평화구축: 남북한 정체성의 양립불가능성(irreconcilability)

청년 보수는 북한 주민과 북한 정권을 철저히 분리하여 생각했다. 특히 북한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한 북한과의 평화나 화해는 불가능하다고 간주하며, 대부분 이 점에 대해서는 확신하고 있었다. 북한학 전공자인 고대 대표는 남북한 정체성은 기본적으로 양립할 수 없다고 설명한다.

“반공이라는 게 많은 프레임이 씌워진 단어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북한의 국민은 우리가 해방시켜야 할 우리의 국민이라는 헌법적 가치, 북한의 독재자는 국가가 아니라 어떤 집단, 어떤 범죄 집단, 반인도적 집단이라는 것을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들로부터 우리의 국민을 해방시켜야 한다는 국가정체성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45년 민주기 이론, 김일성이 democracy base theory라는 것을 설파하면서 최종 목표가 북반부에 먼저 사회주의 혁명 국가를 건설하고 다음에 남반구로 확장한다는 것을 45년부터, 국가수립 이전부터 (주장했고) 정부 수립 이후에는 헌법과 당 규약에 들어갔고 지금까지 바뀌지 않았어요. 제 논문 연구가 지금까지 신년 기념사를 검토해서 의도를 파악하는 건데, 단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2018년 신년사에는 굉장히 유화적인 정책으로 많이 바뀌었다고... 그건 잘못 보는 거고, 우리나라에도 자유민주주의 국가정체성이 있듯이 북한 정체성은 결코 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죠. 다 합리적이라고 한다면, 오바마가 당선이 되든 트럼프가 당선이 되든 정체성이 변하지 말아야죠. 다 합리적으로 국제정치를 계산적으로 가장 합리적 방안으로 내놓는다면 지도자의 변수가 없어져야죠.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지도자의 신념이 분명한 역할을 하고 특히 북한에선 그게 가장 큰 역할을 한다. 왜냐면 주체, incarnated 수령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북한의 의도를 무시할 수 없다...”

이처럼 남북한 정체성은 양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는 남한의 존재가 북한에게 위협이듯이 북한의 존재도 남한에게 위협이라고 설명한다. 북한 정권이 교체되지 않는 한 이런 관계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한다.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느끼듯이 북한도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한 레짐이 유지가 안 된다는 걸 알아요.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존재하는 한, 바로 인근에서, 막 경제협력을 하는 상황에서 자기 체제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수가 기대하듯이 자유민주주의가 들어가면 전체주의 정체성이 바뀐다 기대하지만 그런데... (물론) 바뀔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김정은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한 안되요. 왜냐면 국가정체성이 ‘짐이 곧 국가’, 전근대적 incarnated 수령과 일치가 되기 때문에 정체성만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이 말하는 민족은 한민족이 아니에요. 노동자 계층, 김일성 혈통을 존중하는 핵심계층을 의미합니다. 주체사상이라는 게 결국 그겁니다. 주체는

민족주의 사상인데, 주체는 70년대 말부터 김일성 수령과 일치가 됐어요. 저는 이걸 제 논문에서 주체 incarnated 수령이라고 부릅니다. 성육신, 기독교 가치관이지만 북한이 사교 전체주의 집단으로서 주체라는 극단적 민족주의 사상을 김일성의 혈통과 일치시킨 겁니다. 그래서 수령이 곧 국가 자체입니다... 그러므로 체제적으로 우리와 하나가 될 수가 없고, 가치적으로도 하나가 될 수 없고, 우리가 극복, revise해야 할 하나의 체제라고 보는 것이 맞는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북한학을 전공한 이대 대표도 같은 맥락에서 인권 문제를 생각한다면 북한 정권을 인정할 수 없으며 남한이 추구하는 가치와도 양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인권을 존중하면 레짐체인지가 안되면 있을 수가 없거든요. 두 개가 같이 갈 수가 없잖아요. 만일 김정은이 완전 행복해서 정치범 수용소 다 없애고, 북한 주민에게 자유를 주겠다 이것까지 가면은 그러면 우리나라 보수들에서 더이상 얘기할 게 없어요. 그건 사회주의 공산화로 가지 않으니까... 왜냐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김정은이 아니라 정상통치자자, 우리가 말하는 정상이 만약에 되면,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실제 우리처럼 자유를 얻게 되면, 사실 진정한 보수의 가치, 우리가 정말 추구해야 할 가치가 자유라면 어떤 정치권의 이득 이런 게 아니라 자기 자리(지키는 게) 아니라 그거라면 그렇게 주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 3. 내러티브 분석과 함의

기독교 보수 청년 운동가들의 내러티브를 통해 비기독교 보수 지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반공주의 또는 반북주의 이데올로기가 확고히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이들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절대적 신념을 바탕으로 자신들이 믿는 가치관이나 정체성이 곧 ‘진리’이며 북한과의 공존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강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따라서 기독교 신앙에 기반을 둔 보수 지지자들의 신념과 정체성은 더욱 변화되기 어려워 보인다. ‘트루스포럼’이란 명칭이 암시하듯이 사회가 잃어버린 진리를 회복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려는 ‘소명’으로서 정치 운동을 인식한다는

점에서 비기독교 보수 운동과 차별성이 있다.

그러나 보수 청년활동가들의 인터뷰에 드러난 역사관과 정체성 인식은 한국 보수 진영의 지배적인 내러티브와 크게 다르지는 않다(Heo 2020). 내러티브의 중심 주제는 공산주의로 인해 희생당한 ‘희생자 대한민국’이다. 희생자 내러티브를 통해 북한은 과거의 적일뿐만 아니라 현재의 대한민국에게 여전히 존재론적인 위협으로 인식된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해 막대한 희생을 치러야 했던 대한민국의 역사와 여전히 한반도에 자리하고 있는 북한의 존재는 현재의 실체적인 위협이라는 인식은 한미동맹에 정당성을 부여한다. 또 다른 키워드로 ‘대한민국 중심 민족주의’를 들 수 있다. 진보가 주장하는 인종 민족주의(ethnic nationalism)와는 달리 보수 청년들은 자유경제와 민주주의 체제를 바탕으로 하는 시민 민족주의(civic nationalism)를 지지한다고 말한다. 공산주의 침략으로부터 민족을 지켜낸 대한민국만이 우리 민족의 유일한 합법적 국가이며, 그러한 대한민국의 정치와 경제 체제에 동의하는 자들만이 ‘우리’가 된다. 따라서 북한과 북한을 추종하는 자들은 불법한 존재이자 적대적 ‘타자’로 규정된다.

또한, 이들은 기존 기독교 보수층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바탕으로 자신들을 스스로 구별함으로써 ‘새로운 보수’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한다. 과거 기독교 보수가 정치적 상황을 받아들이고 소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으로 정치에 관여했다면 인터뷰에 참여한 기독교 청년 보수들은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정치 상황을 개혁하기 위해 행동하며 이를 위해 기득권 보수 세력에 대한 비판을 망설이지 않는다. 보수의 쇄신을 위해서 건전한 비평과 반성적 사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선택’의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정치적 이슈를 옳고 그름, 즉 ‘진리’의 영역으로 판단하고, 자신이 옳다고 믿는 것이 유일한 진리라고 주장하는 현상은 사실 한국 사회에만 나타나는 것은 아니며 전지구적으로 관찰되는 ‘이데올로기적 사유’를 바탕으로 한다. 한나 아렌트(Arendt)는 이데올로기란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현상을 단순화하고 논리적으로 설명하여 ‘사실’로 만드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Arendt 1951, 470-471). 따라서 이데올로기적 사고는 어떤 현상에 대한 ‘사실’이 무엇인지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로 귀속되는 “논리적인 추론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긴다(Arendt 1972, 39). 즉, 이데올로기적 사유를 통해 사람들은 진실에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이데올로기가 주장하는 논리적 추론 과정에 매혹되는 것이며 자신들이 믿는 신념과 이데올로기에 적합하지 않은 정보는 무시되거나 부정하게 된다. 오늘날처럼 대부분의 정보가 공개되고 손쉽게 공유되는 개방된 정보사회에서도 정치인들의

거짓말이나 가짜 뉴스가 여전히 효율적으로 활용되는 이유를 이데올로기적 사유에서 발견할 수 있다.

오랜 분단체제는 남북한 주민에게 분단의 감정과 정동을 남겼다(김성경 2020). 평화갈등학에서는 남북한 분쟁을 ‘고질분쟁(또는 고질갈등, intractable conflict)’<sup>24)</sup>으로 분류한다. 고질분쟁은 해당 사회의 개인과 집단의 심리, 정체성, 감정, 그리고 사회에 갈등문화와 내러티브, 에토스(ethos)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허지영 2021). 고질분쟁 사회에서는 적대적 상대와 제로섬 경쟁 관계가 형성되어 상대 집단의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 집단의 존재와 정체성을 말살하는 것이라고 인식하게 된다. 마찬가지로 우리 집단의 정체성은 상대를 부정하고 존재를 말살해야 한다는 적대적 중심으로 형성된다(Bar-Tal 2013). 존재론적 안보(Ontological Security) 이론에 따르면 집단 정체성은 상대 집단과의 관계를 통해 형성된다. 설사 적대적 경쟁 관계에 있는 상대일지라도 상대 집단과 관계를 일상화함으로써 정체성은 유지된다(Mitzen 2006). 이 관점에서 보면 남북한의 일상화된 물리적 위협과 분쟁 상황에 이미 적응한 남북한 주민들은 분쟁 상황이 유지될 때 오히려 존재론적 안전함을 느끼게 된다. 반면 이미 일상화되어 익숙해진 적대와 경쟁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이 더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다시 말해, 반복되고 익숙해진 안보딜레마에서 벗어나 평화로 향하는 ‘새롭고 불안정한’ 평화프로세스가 더 큰 위협으로 느껴질 수 있다. 특히, 오랜 고질분쟁을 경험한 사회에서 이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 분쟁의 평화적 종결로 인해 발생하게 될 상황과 적대적 상대와의 관계 변화에 대한 두려움으로 평화협상이나 평화프로세스에 저항하기도 한다(Bar-Tal 2013, 247-280).

남북한의 분단과 고질분쟁은 분단 상대 집단에 대해 무조건적인 적대와 혐오를 표출하는 정동을 남겼으며, 이는 이데올로기적 사유와 결합되어 더 강화된다. 따라서 한국 사회에 굳어진 ‘선한 우리’ 대 ‘악한 타자’라는 이분법적 세계관 그리고 상대 집단에 대한 적대적 정체성과 혐오 감정을 완화하는 문제는 상대를 말살하는 것이 곧 우리의 생존이라는 제로섬 남북한 관계의 변화와 밀접하게 연결된다. 고질분쟁으로 인해 형성된 이분법적 세계관은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각종 혐오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다. 갈등이 오래 지속되면서 북한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에 동의하지 않는 상대를 ‘적대적 타자’로 인식하고 혐오와 분노를 표출하는 현상이

---

24) 폭력적 갈등이 장기화되어 해결이 매우 까다로운 분쟁으로 정의된다. 고질분쟁이 해당 사회에 미치는 사회심리적 영향으로 야기되는 여러 현상들은 갈등의 악순환과 장기화에 기여한다. 고질분쟁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Bar-Tal 2013 참조.

나타나는 것이다. 특히 북한을 여전히 남한의 존립에 직결된 적으로 간주하는 국가 정체성을 형성한 대부분의 보수지지자들은 북한이나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로부터의 위협을 남한의 생존과 직결된 문제로 받아들이거나 존재론적 안보 이론의 설명과 같이 현 분단체제에 변화와 불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평화프로세스에 저항하게 된다.

그렇다면, 오랜 남북한 고질분쟁의 맥락에서 좌·우파 간 상이한 국가정체성을 형성하고 상호 적대와 혐오의 감정이 극대화된 남한 사회의 갈등 문화와 내러티브를 해체하고 화해를 이루는 것은 가능할 것인가? 본 글은 경합적 민주주의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공론과 숙의의 과정을 통해 보편적 합의에 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숙의민주주의는 근본적으로 합의 과정에서 사회 내에 존재하는 갈등이나 적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Mouffe 1993). 경합적 민주주의는 이렇게 합리적 이성애 근거한 공론을 강조하는 하버마스(Jürgen Habermas) 인식을 바탕으로 하는 숙의민주주의 기본 전제에 도전한다. 경합주의는 서로 다른 관점과 정체성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는 불일치와 그것을 바탕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갈등과 대립이 숙의 과정을 통해 소멸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숙의론적 인식에 근본적으로 회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도덕적 기준을 바탕으로 합리적인 것과 비합리적 것을 구분하는 기준에 대한 합의를 이루고자 숙의의 방식은 지향하는 가치를 둘러싸고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 해결이 매우 어렵다.

이런 관점에서 경합주의는 도덕적 기준으로 ‘우리’와 다른 타자를 ‘적’ 또는 근본적으로 ‘악한 타자’로 규정하는 적대성을 ‘경합성’으로 전환할 것을 강조한다. 설사 비합리적이거나 비도덕적으로 보이는 상대일지라도 민주주의 공론의 장에서 정당성을 지닌 존재로 인식하고 그들의 주장을 경청하고 판단하는 개방성이 핵심이다. 경합적 민주주의에서 정치적 갈등의 과정에서 경쟁하는 집단 간 경계는 열려있으며 또한 최종적이지도 않다(Mouffe 2000). 민주주의는 적대적인(antagonistic) 정체성과 감정이 다원주의적이며 상호 공존이 가능한 경합적(agonistic)인 것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대립하는 의견들이 서로 소통하고 마주할 수 있는 경합적 논쟁의 장을 제도화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필수적 요소이다. 따라서 경합적 민주주의는 나와 의견이 다른 상대나 집단을 ‘적(enemy)’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적법한 ‘상대(adversary)’로 인식할 것을 요구한다. 다시 말해 경합적 상대로서 타자는 나와 우리 집단의 생존을 위해 소멸시키거나 파괴해야 할 ‘슈미트적인 적’이 아니라 정치라는 대결과 경합의 장에 합법적이고 정당성을 가지고 참여하는 주체이다(Mouffe 2005).

고질분쟁 상황에서 사회에 굳어진 갈등문화와 적대와 혐오 감정, 이데올로기적 사유를 해체하는데 경합적 민주주의는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한다. 남북한의 적대성을 해체하기 위해서 남북한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정치적 자원에서의 상호불일치를 인정하고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이해하고 서로를 정당하고 적법한 정치체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다(강혁민 2020). 무엇보다 한국 정치에 참여하는 보수와 진보 진영의 관계 또한 상호 소멸시키고 파괴해야 할 ‘슈미트적인 적’이 아니라 경합의 장에 참여하는 ‘적법한 상대’로 인식이 전환될 필요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먼저 자신의 의견이나 신념에 배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을 선악이라는 도덕적 기준으로 판단하고 배제하거나 혐오하는 이분법적 세계관과 갈등문화가 해체되어야 한다. 쉽지 않은 과정이겠지만 서로 다른 의견 사이의 갈등과 경합은 민주주의에서 필수불가결한 부분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다양한 논의들이 건전하게(constructive) 경합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제도화되어야 할 것이다.

인터뷰에 참여한 기독교 보수 청년들은 정치적인 이득을 추구하거나 특정 정치인들을 무조건적으로 추종하는 반지성적 반공주의 보수 성향과는 다른 특징을 보였다. 보수의 역사관과 정체성을 민주사회의 맥락에 맞게 수정하고 논리를 발전시키고 이데올로기를 공고히 하고자 포럼과 강연 등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새로운 세대를 교육한다. 하지만 사회정치의 문제를 종교적 신념과 결부시키며 영적 전쟁으로 인식하고 타협할 수 없는 진리로 인식한다는 점에서 변화나 타협이 어렵다. 그렇지만 이런 특징은 기독교 보수 지지자에서만 관찰되는 현상은 아니다. 탄핵 국면에서 진보와 보수 진영 모두의 담론에서 상대 집단을 정치적 의견이 다른 정치적 경합의 ‘상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슈미트적인 적’으로 인식한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이는 고질분쟁 사회에 두드러진 갈등문화의 한 단면으로 갈등전환(conflict transformation)과 평화구축 과정에서 반드시 해체될 필요가 있다(Bar-Tal 2019). 이 과정에서 기독교 보수 청년들을 반지성적인 극우주의자들로 쉽게 낙인찍는 것 또한 경계할 필요가 있다. 좌·우로 나뉘어 극심한 혐오 현상을 보이는 남남갈등을 넘어서기 위해서는 보수 청년들의 정치적 신념이나 주장 또한 도덕적 잣대로 판단하고 배제하거나 혐오의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민주주의라는 경합의 장에서 건전하게 경쟁하는 다양한 의견 중 하나로서 받아들이고 건전하게 경합하고 선택의 결과를 수용하는 경합적 민주주의로 인식 전환이 필요하며,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요구된다.

## 참고문헌

- 강인철. 2006. 한국의 개신교와 반공주의: 보수적 개신교의 정치적 행동주의 탐구. 서울: 도서출판 중심.
- 강혁민. 2022. “경합적 평화론의 한반도 평화구축에의 함의: 경합적 다원주의를 중심으로.” 『담론201』 제25권 1호, 79-111.
- 김만권. 2021. “‘탈진실’시대의 정치와 논쟁적 민주주의 모델.” 철학 147집, 137-156.
- 김민아. 2018. “한국 복음주의 사회운동의 분화와 개신교 뉴라이트의 등장.” 『한국기독교와 역사』 제48호, 73-116.
- 김성경. 2017. “분단의 마음과 환대의 윤리: ‘태극기’집회 참가자들과 탈북자를 중심으로.” 『민족문화연구』 75, 195-227.
- 김진호. 2017. “‘태극기집회’와 개신교 우파: 또 다시 꿈틀대는 극우주의적 기획.” 『황해문화』 여름호, 76-93.
- 김진호. 2020. 대형교회와 웰빙보수주의. 서울: 오월의봄
- 박준용. 2018. “동성애·난민 혐오 ‘가짜뉴스 공장’의 이름, 에스더.” 한겨레 (9.27).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63478.html)
- 배덕만. 2007. 미국 기독교 우파의 정치운동. 서울: 넷북스.
- 백요셉. 2018. “대학가를 휩쓰는 ‘트루스’혁명.” 미래한국 (2.26).  
<https://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343>
- 윤해동. 2012. “뉴라이트 운동과 역사인식-비역사적 역사” 『민족문화논총』 51권, 233-234.
- 천관율. 2017. “태극기 집회의 비결 ‘애국의 삼각형’.” 시사인 (4.3).
- 최현숙. 2016. 할배의 탄생. 서울: 이매진
- 허지영. 2021. “고질갈등 이론으로 보는 남북관계.” 서보혁·문인철(편). 12개 렌즈로 보는 남북관계. 서울: 박영사, 211-234.
- Arendt, Hannah. 1951. *The Origins of Totalitarianism*. Cleaveland and New York: Median Books.
- Arendt, Hannah. 1972. “Lying in Politics.” In *Cries of the Re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Jovanovich.
- Bar-Tal, Daniel. 2013. *Intractable Conflicts: Socio-Psychological Foundations and Dynamic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Bar-Tal, Daniel. 2019. “Transforming Conflicts: Barriers and Overcoming Them.” In Miriam F. Elman, Catherine Gerard, Galia Golan and Louis Kreisberg eds. *Overcoming Intractable Conflicts: New Approaches to Constructive Transformation*. London & New York: Rowman & Littlefield International Ltd.,



221-242.

- Heo, Ji Young. 2020. Contentious Narratives on National Identity of South Korea: How to Understand the Self and the Significant Others, Nor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eie Universitat Berlin (Ph.D. Diss)
- Mitzen, Jennifer. 2006. "Ontological Security in World Politics: State Identity and Security Dilemma."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Relations* 12(3), 341-370.
- Mouffe, Chantal. 1993. *The Return of the Political*. London: Verso.
- Mouffe, Chantal. 2000. *The Democratic Paradox*. London: Verso.
- Mouffe, Chantal. 2005. *On the Political*. London: Routledge.

## “탈진실 시대, 정체성 갈등과 보수 기독교” 논찬 1

배덕만 교수

(기독교연구원 느헤미야)

허 박사님의 글을 흥미롭게 잘 읽었습니다. “트루스 포럼”의 핵심 멤버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 시대 기독교 청년 보수들의 진지한 고민과 지향점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었고, 이에 대한 허 박사님의 분석과 평가를 통해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허 박사님의 글을 통해 얻은 학문적 수확, 글을 읽으면서 발생한 질문, 그리고 트루스 포럼 관계자들에게 드리는 제안 등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1. 배움

먼저, 허 박사님의 글을 통해, 기독교 청년 보수들이 기존의 일반 보수나 기독교 보수와 분명한 연속성과 불연속성을 지닌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 수 있었습니다. 기존의 보수 일반이 거의 맹목적으로 현 체제를 옹호하고, 이에 대한 일체의 비판에 강력히 저항한 것과 달리, 이들이 현 체제와 상황에 대해 객관적인 태도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대부분의 기독교 보수는 일반 보수와 특별한 차이점을 갖지 않으며, 특히 자신의 정치적 보수성과 기독교 신앙의 상관관계를 치열하게 고민하지 않았으나, 이들은 자신의 보수적 정치관을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연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들은 한국의 보수진영에서 새로운 영역과 특성을 형성하고 있음에 틀림없습니다.

둘째, 기독교 청년 보수들이 대체로 명문대학 재학생들이고 신실한 기독교 신자

들로서 자신들의 정치적 신념을 보다 분명한 역사인식과 사명감에 근거하여 형성·실천하고 있지만, 한국역사와 기독교 신앙에 대한 왜곡된 정보와 판단에 근거하고 있다는 사실도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들은 “대한민국 건국”을 절대 가치로 설정하고 한국 역사 전체와 현 상황을 판단하기 때문에, 이승만·박정희에 대한 신화적 인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현재의 보수와 진보의 대립도 굴절된 이념의 안경으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란 절대가치를 수호한다는 명분하에, 이런 체제의 한계와 오류를 정직히 성찰하려 하지 않으며, 그 한계와 오류에 저항해온 역사를 폄하하고, 이를 통해 성취한 업적을 공정하게 수용하길 거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보수보다 한결 발전된 모습을 보이지만, 이들이 한국 사회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특별한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셋째, 허 박사님이 소개한 한나 아른트의 이데올로기 담론은 제가 기독교 청년보수와 보수 일반의 행태를 이해하는데, 특히 거침없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행태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데올로기적 사유를 하는 이들에겐 진실보다 신념과 이데올로기가 더 중요하며 그 논리적 과정이 더 매혹적이므로, 이런 목적과 과정을 위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매우 흥미롭고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이단 ‘신천지’의 포교활동과 전략을 이해하는데도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이데올로기적 사유는 정치적·종교적 이단과 정통의 준거점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이런 한국사회의 이념적 갈등과 대립의 해법으로서 “경합적 민주주의”를 제시한 것도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셨습니다. 결국, 맹목적·극단적 대립 대신, 서로를 “슈미트적인 적”이 아니라 “적법한 상대”로 여기고, “다양한 논의들이 건전하게 경합할 수 있는 장들을 마련하고 제도화해야 할 것이다”란 제안을 보수와 진보 모두가 경청하고 실천해야 할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 2. 허 박사님께 드리는 질문

먼저, 허 박사님이 제안하신 다른 이념의 진영에 서 있는 주체들이 서로를 “적법한 상대”로 인식하고, 이를 위한 경합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현재 한국사회, 특히 한국교회가 당면한 과제임에 틀림없습니다. 이런 제안을 하실 만큼, 보수와 진보 간의 간극이 넓고 깊습니다. 조국 사태 때, 진보는 서초동, 보수는 광화문에 모였던 사

실이 양자간의 공간적 거리만큼 정서적·이념적 차이를 가지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극단적인 적대과 분리의 정서 속에, 어떻게 양자가 서로를 적법한 상대로 인식하고, 공정하고 치열하게 경합할 장을 마련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허 박사님의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듣고 싶습니다.

둘째, 허 박사님이 인터뷰한 트루스 포럼 관계자들은 기본적으로 명문대 출신 혹은 재학생이며, 정치적 보수주의자이자 돈독한 그리스도인으로 소개되었습니다. 이들은 기존 보수 세력과 북한과 미국, 한국에 대한 입장을 공유하지만, 보다 자기 객관화나 반성이 가능한 그룹으로 규정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 글에선 직접 언급하지 않으신 부분, 즉 이들이 현실적으로 기존의 보수 기독교 집단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트루스 포럼과 대형교회, 한기총, 국민의 힘, 태극기 집회 등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요? 이 포럼을 지원하는 인적, 재정적 후원이 어디에서 주로 제공되고 있는지, 이들이 어느 특정 교회나 단체와 연대나 교류를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해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 3. 트루스 포럼 관계자들을 향한 제안

첫째, 트루스 포럼 관계자들처럼, 한국교회의 청년 보수들은 대한민국 자체를 절대시하고,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 그리고 친미와 반공을 절대적인 가치로 지지합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의 역사를 수구적 태도로 접근함으로써, 그 안에서 파생된 수많은 비극과 불행을 정직히 직면하고 반성하지 않습니다. 동시에,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해서도 이 체제를 형성하고 수호했다는 차원에만 주목하여, 정작 이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어떻게 부정하고 오염시켰는지에 대해선 냉철한 비판과 성찰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일체의 비판적 목소리를 체제부정세력, 즉 ‘종북좌파’로 정죄하고 매도합니다. 이런 태도는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로 발전하는데 결코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장점과 약점, 성공과 실패, 성취와 오류를 함께 인식하지 않는 한, 건강한 미래의 발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과거의 맹목적 보수와 구별된 진정한 청년 보수가 되길 원한다면, 한국 역사의 명(明)과 암(暗)을 함께 끌어안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트루스 포럼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보수적 정치 이념과 기독교 신앙을 견고

하게 결합시켰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신앙에 기초하여 정치적 현실에 유능하고 책임 있게 참여하는 것은 당위이자 사명임에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들이 주장하는 “기독교=보수주의”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이것 자체가 기독교를 이념의 눈으로 바라보는 환원주의적 발상입니다. 성경 안에는 다양한 계층과 민족, 사건과 예언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지난 2천 년 간 전 세계에서 다양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쳤습니다. 당연히 황제와 교황 같은 지배 세력에게 보수적인 종교로, 농민전쟁과 각종 혁명에 참여했던 민중들에게 성경은 진보적인 문서로 읽혔습니다. 그런 면에서, 성경과 기독교를 보수주의와 동일시하는 것도 트루스 포럼이 특정한 계층과 이념을 대변할 뿐, 진정한 성경과 교회, 예수의 사람들을 포괄한 모습은 아닙니다. 특히, 우리가 예수와 초대교회의 가르침에 주목할 때, 기독교를 보수주의와 일치하려는 노력은 결코 정당성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트루스 포럼은 기독교에 대한 자신의 편향적·이념적 이해를 극복할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 허 박사님의 글을 통해 드러난, 기독교와 탈진실의 문제를 기독교 청년 보수들이 좀더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길 바랍니다. 특정한 신념이나 이념에 과도히 심취할 경우, “진실”보다 “자기 이념의 정당성”에 더 집착하게 되어, 심지어 거짓과 조작마저 서슴지 않게 된다고 허 박사님이 아른트를 통해 지적하셨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듯이, 이런 현실의 대표적인 예가 신천지의 포교전략입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선 거짓말도 문제 삼지 않는다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고 궤변입니다. 사실,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이익을 위해 거짓, 선전선동, 심지어 폭력마저 불사하는 것이 정치판의 현실입니다. 트루스 포럼이 단지 한국의 또 하나의 청년 보수라면 상관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트루스 포럼이 기독교 신앙에 근거해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자본주의를 추구한다면, 특히 이 알고리즘에서 기독교 신앙에 그들의 방점이 놓여있다면, “탈진실”과 기독교신앙은 결코 공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 거짓마저 서슴지 않아야 한다면, 그런 정치는 포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동시에, 거짓마저 전략으로 수용하는 종교라면, 그런 종교는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부디, 트루스 포럼이 그런 자기모순·자기부정의 덫에 걸리지 않길 바랍니다.

## “탈진실 시대, 정체성 갈등과 보수 기독교” 논찬 2

정주진 박사  
(평화갈등연구소)

### 보수 기독교 청년의 정체성

발제가 보수 기독교 청년들의 정체성과 정치적 행동주의를 심층 인터뷰를 통해 설명하고 분석한 것은 매우 흥미로웠다. 그런데 그들의 보수 기독교 정체성이 장기적으로 어떤 환경과 경로를 통해 형성되었는지는 거의 확인할 수 없어서 아쉬운 점이 있었다. 그들이 청년이고 보수 기독교 정체성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한다면 그들의 정체성은 상당히 오랜 기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 보수 개신교회 안에서, 그리고 보수적인 목회자 아래서 형성됐다는 합리적 짐작도 할 수 있다. 그들의 정체성이 어느 시기부터, 그리고 얼마나 결속력이 강한 교회 환경과 신도들 및 목회자와의 유대관계 안에서 형성됐는지 여부가 궁금하다. 또한 그들이 보수적 기독교 가정 환경과 부모 아래서 성장했는지 여부도 궁금한 점이다.

정체성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점을 생각해볼 수 있다. 하나는 한 인간의 정체성은 보통 자신이 경험하고 속한 개인 또는 집단의 영향에 의해 형성된다는 점이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의 보수 기독교 정체성은 교회, 목회자, 교우, 부모, 또래 신앙 집단 등을 통해 형성됐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각자의 정체성 형성에 크게 영향을 준 개인이나 집단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다른 의미로 규모는 알 수 없지만 그들과 비슷한 정체성을 가진 다수의 기독교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 하나는 한 인간은 여러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로 인해 정체성 계층

(hierarchy)이 형성된다는 점이다.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상위에 위치하고 자신의 존재 이유와 세계관을 설명하는 가장 강력한 근거가 된다. 인터뷰에 응한 청년들은 보수 기독교 정체성을 자신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 정체성은 정치적 보수의 정체성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발제에서 보수 청년들이 “탄핵을 보수의 위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 해체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위협으로 본다고 답했다”는 대목은 그래서 매우 흥미로운 부분이다.

성서의 가르침과 기독교 윤리에 근거한 정치적 상황과 사건 분석의 시도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는 점은 매우 흥미롭다. 이것은 보수 기독교가 보수 정치와 구분 없이 보수적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고 당연하게 공동운명체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종교적 가르침과 윤리에 기반한 분석 없이 보수 정치가 거부하는 정치·사회적 상황과 사건이 기독교의 존재를 위협하고 있다고 인식하는 건 결국 그들에게 정치적 보수의 정체성이 훨씬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그들은 상위에서 하위로 정치적 보수-기독교 보수-기독교 보수 청년의 정체성 계층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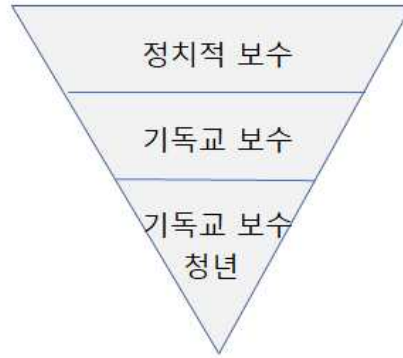
발제에서는 정체성 갈등(identity conflict)의 대립하는 주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설명되어 있지 않다. 미루어 짐작컨대 이것은 보수 기독교와 진보 기독교, 또는 보수 기독교 청년과 진보 기독교 청년의 갈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상호 감정적 거부감을 넘어 실제 그런 갈등이 존재하는지, 또는 우려할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갈등은 접촉면이 있어야 발생하고 전개 또는 악화되는데 우리 사회, 그리고 개신교회 현실에서 두 집단이 접촉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는 갈등보다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인 단절과 상호 무시가 고착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 오독과 편협성

인터뷰 내용을 통해 볼 수 있는 보수 기독교 청년들의 생각과 주장은 유감스럽게도 여러 면에서 상황의 오독과 시각의 편협성을 드러내고 있다. 발제에서 언급된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먼저 박근혜 탄핵 과정 당시 북한이 같은 주장을 했다는 이유로 탄핵이 북한의 지령이었다는 건 상황의 오독에서 비롯된 논리적이지 않은 주장이다. 북한은 항상

## 보수 기독교 청년 정체성 계층



남한 언론과 정세를 주시하며 남한 전문가나 시민사회의 주장을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거나 유리한 경우 같은 주장을 하기도 한다. 그런데 주장이 같다고 해서 지령을 내렸다고 단정하는 건 논리적이지 않다. 탄핵 과정과 집회를 진보 또는 급진 좌파가 주도했다고 주장하는 건 현장성 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진보, 보수, 중도를 아우르는 대다수 국민이 탄핵을 지지했고 그들이 광장을 가득 메웠다. 국회의 탄핵 또한 여야 모두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소수의 극단적 보수만이 탄핵을 반대했다.

북한학이 북한을 바꾸고 “자유민주 통일을 이루는” 공부를 하는 것인 줄 알았다는 말은 이해의 부족과 편협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북한학은 학문적으로 북한을 이해하고 분석하고 남북관계에 적용하는 학문이다. 학문은 이론과 실천을 위해 다양하고 자유로운 접근을 취하고 독려한다. “자유민주 통일”을 목표로 삼는다면 학제로서 ‘북한학’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덧붙여 1991년 남북 총리가 서명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남북은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 관계”임을 인정하고 “남과 북은 서로 상대방의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한다”고 명시했다.

인터뷰 대상자 중 자신이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진보라 생각했다는 점도 흥미로운 내용이었다. 북한 인권 문제를 정치적으로 강력히 주장하는 개인과 집단은 미국이나 한국 모두 보수 집단이다. 그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지적과 함께 북한 정권이 몰락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은 북한을 거부하는 보수의 인식



및 정치적 목표와 통한다. 다른 한편 진보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이 없다는 주장은 다양한 진보의 입장과 목소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보 또한 북한 인권 문제에 우려를 표하고 관심을 가진다. 다만 접근 방식에 있어서 정치적 보수와 차이가 있고 보수의 극단적인 주장과 정치화를 우려해 상대적으로 조심스럽게 접근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뷰 내용을 통해 보수 청년들의 인식과 주장이 극단적인 보수 쪽으로 심하게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자신들을 평범한 보수라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의아했다. 그것이 상황의 오독, 경험의 부재, 진보와의 교류 부재, 현장성의 부재 등에서 비롯됐을 것으로 보이지만 스스로 그런 점을 알고 있는지, 또는 알지 못하는지, 아니면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궁금한 지점이다.

## 거부와 사회적 제재

발제의 결론에서는 기독교 보수 청년들을 “반지성적인 극우주의자들로 쉽게 낙인찍는 것”을 경계할 것과 그들의 신념이나 주장을 도덕적 잣대로 판단, 배제, 혐오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결론은 상투적이고 다소 허술하기도 하다. 보수 기독교 청년과 그들의 주장을 이해하고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몇 가지 점을 숙고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사회적 기준을 만들고 적용해야 한다.

우선 보수 기독교 청년들의 주장이나 행동 중 무엇을 비판과 거부의 대상으로 삼을 것인지, 또는 그들의 주장에 대한 비판 중 무엇을 혐오로 규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하다. 정당한 비판과 평가까지 혐오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특히 그들의 주장 중 자기 이익을 위해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악마화하거나 존재를 부인하는 언어와 행동에 대해서는 거부를 표명해야 한다. 나아가 필요하다면 적절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필요한 경우와 관련해서는 적어도 두 가지 기준을 세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는 오늘 포럼의 주제기도 한 가짜뉴스와 관련된 것이다. 인터뷰에 응한 한 청년이 탄핵을 북한의 지령이라고 주장하고 대자보와 사회관계망을 통해 퍼뜨린 건 명백한 가짜뉴스 유포다. 지금도 많은 가짜뉴스가 보수 기독교인들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사회적 제재, 나아가 법적 제재까지 이뤄져야 한다. 대부분의 가짜뉴스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만들어지고 유포된다는 점 또한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하

나는 방식의 문제로 폭력적 방식은 거부되고 사회적 제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인권 침해, 폭행과 폭언, 특정 개인과 집단에 대한 혐오 표출과 존재의 거부 등에 대해서는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져야 한다. 보수 기독교 청년들이 북한 인권을 주장한다면 그에 걸맞게 우리 사회 구성원의 인권도 존중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동시에 제재해야 한다.

보수 기독교 청년의 정치적 행동주의와 관련해 성찰할 문제는 이 문제를 교회의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접근할 것이냐일 것이다. 토론의 처음에서 언급한 것처럼 보수 기독교 청년들의 정체성 형성에는 보수 교회와 목회자가 중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동시에 교회의 절대적 진리의 주장과 배타성, 다양성을 거부하고 죄악시하는 주장과 환경 또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종교적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질문하고 토론하는 방식이 아니라 일방적 가르침과 복종이 요구되는 환경 또한 중요한 역할을 했을 수 있다. 그렇다면 교회는 그런 환경과 방식을 개선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다양한 정체성의 인정과 수용은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어느 한쪽이 다른 쪽을 부인하고 거부하면 공존은 불가능하다. 부인과 거부를 깰 수 있는 건 접촉이고 대화다. 그러나 보수 기독교 청년들이 진보 기독교인이나 사회 구성원과 접촉하고 대화를 할 수 있을지, 또는 그 반대의 상황이 가능한지는 의문이다.

2022 기사연 포럼  
“탈진실 시대: 종교와 가짜뉴스”

발 행 일: 2022년 11월 8일

발 행 처: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11길 20

전 화: 02-312-3317

E-mail: [cisjd@jpik.org](mailto:cisjd@jpik.org)

홈페이지: [www.jpik.org](http://www.jpik.org)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  
christian institute for the study of justice and development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총정로 11길 20  
T. 02-312-3317